

# 9시 등교 효과 분석

백병부 조윤정

우옥영





수시연구	2015-01
보안등급	일반과제

## 9시 등교 효과 분석

**연구책임자:** 백병부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조윤정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우옥영 (경기대학교 겸임교수)



# 머리말

9시 등교 효과 분석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쁩니다. 일하는 시간 또한 지나치게 많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한 달씩 휴가를 가는 것은 고사하고 주말마저 편하게 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니 OECD에서 발표한 주요국의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학생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세계에서 공부를 가장 잘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공부가 즐거워서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의 외재적 학습동기는 내재적 학습동기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도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어른들의 삶의 방식은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른들의 영향을 받아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온 아동·청소년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스스로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이 하루하루를 소진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쁘게 사는 것이 미덕이 되었고, '아침형 인간'으로 살아갈 것이 권장되었으며, 아동·청소년들의 생체리듬을 고려하지 않은 이른 등교가 사회적 관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른 등교는 아동·청소년들의 생체리듬을 고려하지 않은 비정상적 관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2014년 9월부터 각급 학교에 9시 등교를 추진하도록 권고한 결과 2014년 10월 31일 현재 초등학교의 99.7%, 중학교의 98.8%, 고등학교의 81.6%가 9시 등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시 등교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9시 등교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맞벌이 가정의 부담 증가, 학력 저하의 가능성 등을 이유로 9시 등교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9시 등교 이후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이 모두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수면시간이 증가했고, 아침 결식 학생이 줄었으며,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졌고,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 등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연구는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시 등교 정책에 반대했다가 현재는 찬성으로 돌아선 비율이 찬성했다가 반대로 돌아선 비율을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9시 등교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한 이 연구는 경기도교육청은 물론이고 9시 등교를 준비하고 있는 타 시도 교육청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가 정신적으로 보다 여유로운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편의 연구보고서는 연구진 이외에도 다양한 분들의 협조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지원과와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면담을 위해 시간을 내준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 학부모님들께는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에서는 의미 있는 연구를 통해서 경기교육과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2월

경기도교육연구원  
원 장 이 한 복

# 목 차

---

<b>제1장 서론</b> .....	<b>3</b>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제2절 주요 연구내용 .....	8
1. 9시 등교 관련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정리 .....	8
2. 9시 등교 효과 분석 .....	9
3. 9시 등교 정책 정착을 위한 정책적 제언 .....	9
제3절 연구추진방법 .....	9
1. 문헌 연구 .....	9
2. 양적 연구 .....	10
3. 포커스그룹 인터뷰 및 자문회의 .....	10
<b>제2장 이론적 배경</b> .....	<b>13</b>
제1절 수면의 기능 및 청소년기 수면의 특징 .....	13
제2절 청소년의 수면 부족 현황 및 문제점 .....	15
제3절 이른 등교시간으로 인한 문제점 .....	17
제4절 등교시간 지연 효과 및 추진 사례 .....	18
1. 등교시간 지연 효과 .....	18
2. 등교시간 지연 사례 및 효과 .....	19
<b>제3장 9시 등교에 대한 선호 및 쟁점에 대한 인식</b> .....	<b>25</b>
제1절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선호의 변화 .....	25
1. 학생 .....	25
2. 학부모 .....	33
3. 교사 .....	41
제2절 9시 등교 정책 관련 쟁점에 대한 인식 .....	46
1. 학부모 .....	46
2. 교사 .....	64

# 목 차

---

<b>제4장 9시 등교 정책의 효과 분석</b> .....	<b>69</b>
제1절 수면시간의 변화 .....	69
1. 학교급별 비교 .....	69
2. 학교급 내 비교 .....	72
제2절 학교생활의 변화 .....	89
1. 학교급별 비교 .....	89
2. 학교급 내 비교 .....	91
제3절 가정생활의 변화 .....	107
1. 학교급별 비교 .....	107
2. 학교급 내 비교 .....	110
제4절 공부시간의 변화 .....	124
1. 학교급별 비교 .....	124
2. 학교급 내 비교 .....	125
제5절 건강 상태의 변화 .....	130
1. 학교급별 비교 .....	130
2. 학교급 내 비교 .....	131
제6절 수업분위기 및 학교에 대한 태도의 변화 .....	136
1. 학생 .....	136
2. 교사 .....	147
<b>제5장 요약 및 정책 제언</b> .....	<b>151</b>
제1절 요약 .....	151
1.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의 변화 .....	152
2. 수면시간의 변화 .....	153
3. 학교생활의 변화 .....	154
4. 가정생활의 변화 .....	155
5. 건강상태, 수업분위기 및 학교에 대한 태도의 변화 .....	157
제2절 정책 제언 .....	158
참고문헌 .....	161
〈부록〉 설문지 .....	165



# 표목차

---

〈표 1-1〉 아동·청소년 수면 시간 .....	3
〈표 1-2〉 등교 전 아침식사 여부 .....	5
〈표 1-3〉 경기도 내 학교 등교시간 .....	6
〈표 1-4〉 경기도 내 학교 9시 등교 실시 현황 .....	7
〈표 1-5〉 설문조사 대상 .....	10
〈표 3-1〉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초, 학생, 학년별) .....	26
〈표 3-2〉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초, 학생, 성적별) .....	27
〈표 3-3〉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초, 학생, 맞벌이 여부) .....	27
〈표 3-4〉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초, 학생, 보호자 재가 여부) .....	28
〈표 3-5〉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중, 학생, 학년별) .....	29
〈표 3-6〉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중, 학생, 성적별) .....	29
〈표 3-7〉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중, 학생, 맞벌이 여부) .....	30
〈표 3-8〉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중, 학생, 보호자 재가 여부) .....	30
〈표 3-9〉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고, 학생, 학년별) .....	31
〈표 3-10〉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고, 학생, 성적별) .....	32
〈표 3-11〉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고, 학생, 맞벌이 여부) .....	32
〈표 3-12〉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고, 학생, 보호자 재가 여부) .....	33
〈표 3-13〉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초, 학부모, 학년별) .....	34
〈표 3-14〉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초, 학부모, 성적별) .....	35
〈표 3-15〉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초, 학부모, 맞벌이 여부) .....	36
〈표 3-16〉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초, 학부모, 보호자 재가 여부) .....	36
〈표 3-17〉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중, 학부모, 학년별) .....	37
〈표 3-18〉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중, 학부모, 성적별) .....	38
〈표 3-19〉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중, 학부모, 맞벌이 여부) .....	38
〈표 3-20〉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중, 학부모, 보호자 재가 여부) .....	39
〈표 3-21〉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고, 학부모, 학년별) .....	39
〈표 3-22〉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고, 학부모, 성적별) .....	40
〈표 3-23〉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고, 학부모, 맞벌이 여부) .....	40
〈표 3-24〉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고, 학부모, 보호자 재가 여부) .....	41
〈표 3-25〉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초, 교사, 경력별) .....	42
〈표 3-26〉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초, 교사, 직위별) .....	43
〈표 3-27〉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중, 교사, 경력별) .....	44

# 표목차

---

〈표 3-28〉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중, 교사, 직위별) .....	44
〈표 3-29〉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고, 교사, 경력별) .....	45
〈표 3-30〉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고, 교사, 직위별) .....	45
〈표 4-1〉 잠드는 시간(학교급별) .....	70
〈표 4-2〉 일어나는 시간(학교급별) .....	71
〈표 4-3〉 총수면시간(학교급별) .....	72
〈표 4-4〉 잠드는 시간(초등학생) .....	74
〈표 4-5〉 일어나는 시간(초등학생) .....	75
〈표 4-6〉 총수면시간(초등학생) .....	77
〈표 4-7〉 잠드는 시간(중학생) .....	79
〈표 4-8〉 일어나는 시간(중학생) .....	81
〈표 4-9〉 총수면시간(중학생) .....	83
〈표 4-10〉 잠드는 시간(고등학생) .....	85
〈표 4-11〉 일어나는 시간(고등학생) .....	86
〈표 4-12〉 총수면시간(고등학생) .....	88
〈표 4-13〉 학교생활의 변화(학교급별) .....	91
〈표 4-14〉 지각(초등학생) .....	93
〈표 4-15〉 오전 수업 중 졸거나 잠을 잠(초등학생) .....	94
〈표 4-16〉 숙제를 못하거나 준비물을 못 챙김(초등학생) .....	96
〈표 4-17〉 지각(중학생) .....	98
〈표 4-18〉 오전 수업 중 졸거나 잠을 잠(중학생) .....	100
〈표 4-19〉 숙제를 못하거나 준비물을 못 챙김(중학생) .....	101
〈표 4-20〉 지각(고등학생) .....	103
〈표 4-21〉 오전 수업 중 졸거나 잠을 잠(고등학생) .....	105
〈표 4-22〉 숙제를 못하거나 준비물을 못 챙김(고등학생) .....	107
〈표 4-23〉 아침식사 횟수(학교급별) .....	108
〈표 4-24〉 하루 동안 어머니와 대화 시간(학교급별) .....	109
〈표 4-25〉 하루 동안 아버지와 대화 시간(학교급별) .....	110
〈표 4-26〉 아침식사 횟수(초등학생) .....	111
〈표 4-27〉 하루 동안 어머니와 대화 시간(초등학생) .....	113
〈표 4-28〉 하루 동안 아버지와 대화 시간(초등학생) .....	114
〈표 4-29〉 아침식사 횟수(중학생) .....	116

---

〈표 4-30〉 하루 동안 어머니와 대화 시간(중학생) .....	117
〈표 4-31〉 하루 동안 아버지와 대화 시간(중학생) .....	119
〈표 4-32〉 아침식사 횟수(고등학생) .....	120
〈표 4-33〉 하루 동안 어머니와 대화 시간(고등학생) .....	122
〈표 4-34〉 하루 동안 아버지와 대화 시간(고등학생) .....	123
〈표 4-35〉 공부 시간의 변화(학교급별) .....	124
〈표 4-36〉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초등학생) .....	125
〈표 4-37〉 학습 관련 사교육 시간(초등학생) .....	126
〈표 4-38〉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중학생) .....	127
〈표 4-39〉 학습 관련 사교육 시간(중학생) .....	128
〈표 4-40〉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고등학생) .....	129
〈표 4-41〉 학습 관련 사교육 시간(고등학생) .....	130
〈표 4-42〉 건강 상태의 변화(학교급별 비교) .....	131
〈표 4-43〉 신체 건강(초등학생) .....	132
〈표 4-44〉 정신 건강(초등학생) .....	132
〈표 4-45〉 신체 건강(중학생) .....	133
〈표 4-46〉 정신 건강(중학생) .....	134
〈표 4-47〉 신체 건강(고등학생) .....	135
〈표 4-48〉 정신 건강(고등학생) .....	135
〈표 4-49〉 수업분위기가 활기차졌음(초등학생) .....	138
〈표 4-50〉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함(초등학생) .....	138
〈표 4-51〉 선생님과의 상담기회가 많아졌음(초등학생) .....	139
〈표 4-52〉 학교 가는 것이 즐거워졌음(초등학생) .....	140
〈표 4-53〉 마음에 여유가 생겼음(초등학생) .....	140
〈표 4-54〉 수업분위기가 활기차졌음(중학생) .....	141
〈표 4-55〉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함(중학생) .....	142
〈표 4-56〉 선생님과의 상담기회가 많아졌음(중학생) .....	142
〈표 4-57〉 학교 가는 것이 즐거워졌음(중학생) .....	143
〈표 4-58〉 마음에 여유가 생겼음(중학생) .....	144
〈표 4-59〉 수업분위기가 활기차졌음(고등학생) .....	144
〈표 4-60〉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함(고등학생) .....	145
〈표 4-61〉 선생님과의 상담기회가 많아졌음(고등학생) .....	145
〈표 4-62〉 학교 가는 것이 즐거워졌음(고등학생) .....	146
〈표 4-63〉 마음에 여유가 생겼음(고등학생) .....	147

---

# 그림목차

---

[그림 1-1] 평균 수면 시간 3개년 추이 .....	4
[그림 3-1]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학생) .....	26
[그림 3-2]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학부모) .....	34
[그림 3-3]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교사) .....	42
[그림 3-4] 긍정적 기대에 대한 인식(학부모) .....	46
[그림 3-5] 부정적 우려에 대한 인식(학부모) .....	47
[그림 3-6] 긍정적 기대에 대한 인식(초, 학부모, 학년별) .....	48
[그림 3-7] 부정적 우려에 대한 인식(초, 학부모, 학년별) .....	49
[그림 3-8] 긍정적 기대에 대한 인식(초, 학부모, 성적별) .....	49
[그림 3-9] 부정적 우려에 대한 인식(초, 학부모, 성적별) .....	50
[그림 3-10] 긍정적 기대에 대한 인식(초, 학부모, 맞벌이 여부) .....	51
[그림 3-11] 부정적 우려에 대한 인식(초, 학부모, 맞벌이 여부) .....	51
[그림 3-12] 긍정적 기대에 대한 인식(초, 학부모, 보호자 재가 여부) .....	52
[그림 3-13] 부정적 우려에 대한 인식(초, 학부모, 보호자 재가 여부) .....	53
[그림 3-14] 긍정적 기대에 대한 인식(중, 학부모, 학년별) .....	53
[그림 3-15] 부정적 우려에 대한 인식(중, 학부모, 학년별) .....	54
[그림 3-16] 긍정적 기대에 대한 인식(중, 학부모, 성적별) .....	55
[그림 3-17] 부정적 우려에 대한 인식(중, 학부모, 성적별) .....	55
[그림 3-18] 긍정적 기대에 대한 인식(중, 학부모, 맞벌이 여부) .....	56
[그림 3-19] 부정적 우려에 대한 인식(중, 학부모, 맞벌이 여부) .....	57
[그림 3-20] 긍정적 기대에 대한 인식(중, 학부모, 보호자 재가 여부) .....	57
[그림 3-21] 부정적 우려에 대한 인식(중, 학부모, 보호자 재가 여부) .....	58
[그림 3-22] 긍정적 기대에 대한 인식(고, 학부모, 학년별) .....	59
[그림 3-23] 부정적 우려에 대한 인식(고, 학부모, 학년별) .....	59
[그림 3-24] 긍정적 기대에 대한 인식(고, 학부모, 성적별) .....	60
[그림 3-25] 부정적 우려에 대한 인식(고, 학부모, 성적별) .....	61
[그림 3-26] 긍정적 기대에 대한 인식(고, 학부모, 맞벌이 여부) .....	61
[그림 3-27] 부정적 우려에 대한 인식(고, 학부모, 맞벌이 여부) .....	62
[그림 3-28] 긍정적 기대에 대한 인식(고, 학부모, 보호자 재가 여부) .....	63
[그림 3-29] 부정적 우려에 대한 인식(고, 학부모, 보호자 재가 여부) .....	63
[그림 3-30] 긍정적 기대에 대한 인식(교사) .....	64
[그림 3-31] 부정적 우려에 대한 인식(교사) .....	65

---

(그림 4-1) 수업 분위기 및 학교에 대한 태도의 변화(학생, 학교급별) .....	137
(그림 4-2) 수업 분위기 및 학교에 대한 태도의 변화(교사, 학교급별) .....	148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제3절** 연구추진방법





# 제1장

##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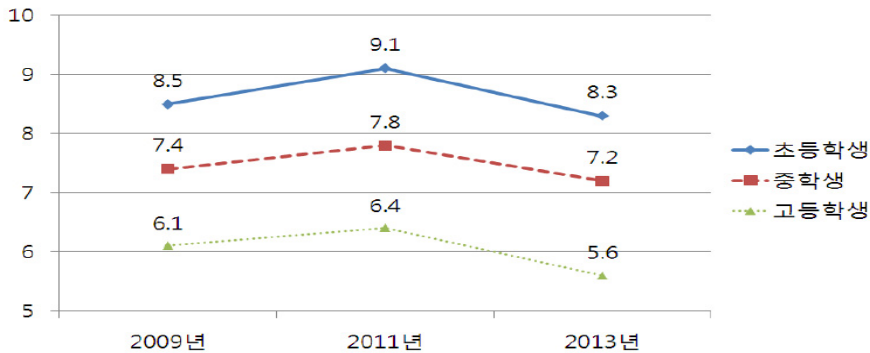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3년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의 수면 시간은 초등학교 8시간 19분, 중학생 7시간 12분, 일반고·특목고·자율고 재학생 5시간 27분, 특성화고 재학생 6시간 11분이었음(김영지 외, 2013).

〈표 1-1〉 아동·청소년 수면 시간

구분	5시간 미만	5시간-6시간 미만	6시간-7시간 미만	7시간-8시간 미만	8시간-9시간 미만	9시간 이상	평균	전체(N)	
전체	6.6	14.5	19.5	24.7	21.8	12.9	7시 6분	100(9195)	
학교 유형	초등학교	0.6	0.6	3.1	17.1	41.4	37.1	8시 19분	100(2736)
	중학교	1.8	6.0	19.8	42.8	24.8	4.9	7시 12분	100(3142)
	일반/특목/자율고	17.5	36.8	33.1	11.1	1.4	0.2	5시 27분	100(2705)
	특성화고	11.4	22.3	32.3	26.4	6.8	0.8	6시 11분	100(584)
	양부모가정	6.7	14.6	19.3	24.5	21.9	13	7시 6분	100(8234)
가족 유형	한부모가정	6.9	14.8	24.3	25.7	16.6	11.8	7시 1분	100(716)
	조손가정	5.2	9.9	12.7	32.2	29.2	10.7	7시 15분	100(75)
	기타	4.7	9.5	11.3	26.5	31.0	17.0	7시 21분	100(150)
경제적 수준	상	5.8	12.3	16.2	23.2	25.2	17.3	7시 14분	100(4180)
	중	6.1	14.4	19.8	27	21.6	11.1	7시 5분	100(3420)
	하	10.1	20.5	27.4	23.5	13.1	5.4	6시 22분	100(1583)

출처: 김영지 외(2013)

- 아래의 [그림 1-1]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09년 조사에 비해 2013년 조사에서는 초, 중, 고 재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모두 줄어들고 있었음. 초등학교의 경우 2009년에는 8.5시간이었으나 2013년에는 8.3시간으로 줄었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각각 7.4시간에서 7.2시간으로, 6.1시간에서 5.6시간으로 줄어들었음(김영지 외, 2013).



출처: 김영지 외(2013)

(그림 1-1) 평균 수면 시간 3개년 추이

- 이러한 결과는 미국 국립수면재단(National Sleep Foundation)에서 제시한 연령대별 권장 수면 시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학생들의 상당수가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구체적으로 미국 국립수면재단에서는 6~13세 아동의 권장 수면 시간이 9~11시간, 14~17세 청소년의 권장 수면 시간이 8~10시간이라고 밝히고 있음(Hirshkowitz et al., 2015). 반면 김영지 외(2013)의 보고에서는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32.0%, 중학생의 53.6%, 일반/특목/자율고 재학생의 69.5%, 특성화고 재학생의 69.1%가 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음.
- 아래의 <표 1-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등교 전 아침식사를 하는지와 관련해서도 초등학생의 17.2%, 중학생의 25.2%, 일반/특목/자율고 재학생의 27.7%, 특성화고 재학생의 42.9%가 거의 하지 않는 편이거나 보통 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이유로 입맛이 없어서가 34.7%,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가 23.1%, 학교에 일찍 가야해서가 29.1%로 나타났음.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는 판단의 기준이 등교시간임을 감안한다면 학생들이 아침식사를 하지 못하는 주 이유는 이른 등교시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표 1-2〉 등교 전 아침식사 여부

구분	거의 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 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 하는 편이다	거의 매일 하는 편이다	전체(N)	$\chi^2$
전체	17.0	7.7	15.3	60.0	100(9486)	
성별	남자	15.9	7.6	15.0	100(4968)	18.881*
	여자	18.3	7.8	15.6	100(4518)	
학교 유형	초등학교	10.4	6.8	13.6	100(2817)	7.8
	중학교	17.0	8.2	15.9	100(3267)	
	일반/특목/자율고	19.8	7.9	16.3	100(2793)	
가족 유형	특성학교	35.1	7.8	15.1	100(608)	28.406***
	양부모가정	15.8	7.5	15.1	100(8479)	
	한부모가정	29.4	10.1	17.8	100(756)	
	조손가정	21.8	6.3	13.5	100(77)	
경제적 수준	기타	19.6	7.2	16.2	100(153)	70.185***
	상	12.5	7.0	14.9	100(4302)	
	중	18.2	8.2	15.6	100(3520)	
	하	26.1	8.6	15.8	100(1650)	

출처: 김영지 외(2013)

- 한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2년에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아동·청소년 중에서 72.4%가 학교수업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나, 62.4%는 최근 1년 동안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적이 있다고 응답했음. 그 이유로는 일찍 일어나기 힘들어서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25.3%로 가장 높았음. 이러한 결과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고등학교의 상당수가 '0교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등교시간이 이른데다가 방과후 사교육 등으로 하루의 일과가 늦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들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음(임희진, 2013).
- 전술한 보고들은 한국의 청소년들이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관행에 따라 정해진 이른 등교시간 때문임을 시사해 주는 것임. 즉 한국의 청소년들은 이른 등교시간으로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침식사까지 거르는 경우가 많아 학교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해서 부족해진 학습은 방과후 사교육 등으로 보충하려 하기 때문에 잠시도 쉴 수 없는 일상을 보내게 된다고 볼 수 있음. 나아가 여성가족부(2012)의 조사에 따르면, 만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 중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이 전혀 없거나 30분 미만인 청소년이 48.9%,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이 전혀 없거나 30분 미만인 청소년이 24.9%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 또한 이른 등교시간으로 인한 여유의 부족과 이로 인한 학생들의 피로감 때문에 야기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른 등교시간이 학생들의 가정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제3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으로 당선된 이재정 교육감은 학생중심 교육과 현장중심 교육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교육감직인수위원회를 통해 학생과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도록 하였음. 그 결과 9시 등교를 청원하는 학생들의 요구가 분출하여 총 1,507건의 요구 중 713건이 9시 등교를 청원하는 것이었음.
- 이러한 요구는 한국의 혁신교육을 선도해온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른 등교라는 기존의 관행을 깨지 못해왔음을 의미함. 아래의 <표 1-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기도교육청에서 9시 등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중학교의 99%가 8시 이전 혹은 8시 30분까지를 등교시간으로 하고 있었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2학년의 63%, 3학년의 64%가 8시 이전에 등교하고 있었음(경기도교육청, 2014a).

<표 1-3> 경기도 내 학교 등교시간

학교급	등교 실태	
초	8:30이전 9교(1.1%), 08:30~08:40 1,163교(97.3%), 08:40 이후 23교(1.9%)	
중	8:00이전 18교(3%), 08:00~08:30 557교(96%), 08:30이후 9교(1%)	
고	1,2학년	07:40 이전 37교(8%), 07:40~08:00 247교(55%), 08:00 이후 167교(37%)
	3학년	07:40 이전 62교(14%), 07:40~08:00 217교(50%), 08:00 이후 155교(36%)

- 이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 하에 2014년 9월부터 각급 학교에 9시 등교를 추진하도록 권고하였음(경기도교육청, 2014a).

- 가족과 함께 하는 아침식사로 건강 증진과 화목한 가족문화 형성
- 청소년기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면과 휴식, 과중한 학습부담 경감으로 학습의 효율성 제고

- 한편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한 9시 등교 정책은 초기의 우려와는 달리 학교현장에 빠르게 정착되고 있음. 아래의 <표 1-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14년 10월 31일 현재 초등학교의 99.7%, 중학교의 98.8%가 9시 등교를 실시하고 있음. 특히 입시 준비에 대한 부담과 수능에 대한 고려 등으로 9시 등교 정책에 거부감이 있었던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정책 시행 초기인 9월 1일에는 67%의 학교가 9시 등교를 실시 하였으나, 10월 31일 조사에서는 81.6%의 학교가 9시 등교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4> 경기도 내 학교 9시 등교 실시 현황

일시	학교수	실시교	실시 비율	초			중			고		
				학교수	실시교	실시 비율	학교수	실시교	실시 비율	학교수	실시교	실시 비율
9.1	2,250	2,028	90.1	1,195	1155	96.7	604	571	94.5	451	302	67.0
10.31	2,250	2,157	95.9	1,195	1,192	99.7	604	597	98.8	451	368	81.6

출처: 경기도교육청(2014b)

- 이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학교의 일상을 관찰한 결과 9시 등교로 인해 수업과 학교의 모습이 다음과 같이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경기도교육청, 2014b). 이러한 결과는 9시 등교가 목표로 했던 변화가 짧은 시간 안에 달성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 수업에서 조는 학생들이 현저하게 줄어들
- 여유로운 아침시간 확보로 자녀와 학부모의 대화 시간이 늘어나 학교와 가정과의 연계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짐
- 과제를 잘 해오고 준비물도 잊지 않고 잘 가져옴
- 아침자율학습과제 부담이 없어 1교시 학습집중도가 높아짐
- 공식적인 아침자습활동을 하지 않아서 아침활동에 여유가 있고,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많이 하여 학생들과 더 친밀해짐
- 수업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향상되고 집중력이 높아짐
- 좀 더 여유롭게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의 수업을 준비할 수 있음
- 아침도서실 프로그램 활용으로 과제 학습 및 예습복습활동을 할 여유가 생겨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습 효과가 높아짐
- 선생님과 아침맛이를 하며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 교사-학생 간 신뢰가 증진됨

- 나아가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경기도교육청의 9시 등교와 유사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거나 시행하고 있음. 일례로 2014년 10월부터 9시 등교를 실시한 전북의 경우 92.6%의 학교가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 인천, 대전, 광주, 제주 등에서도 내년부터 9시 등교를 실시할 예정이거나 시행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음(한국일보, 2014. 11. 3). 이는 9시 등교가 단순히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늦추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여 학교구성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삶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임.
- 그러나 일각에서는 9시 등교 정책을 반대하고 있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들을 9시에 등교시키기 위해서는 가족 등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학습시간 감소에 따른 학력의 저하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여기에 더해 교총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등교시간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책 시행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서울신문, 2014. 11. 4).
- 문제는 9시 등교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모두 과학적이고 엄밀한 근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장을 펼치지 않고 있다는 점임. 9시 등교를 반대하는 입장은 말할 것도 없고, 9시 등교 정책을 처음으로 실시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정책의 효과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이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9시 등교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자 함. 특히 이 연구에서는 9시 등교가 목표로 했던 학교생활의 변화와 가정생활의 변화를 모두 검증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함.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결과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9시 등교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여타의 시도교육청에도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제2절 주요 연구내용

### 1. 9시 등교 관련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정리

- 이 연구에서는 9시 등교 정책의 정당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이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관련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를 정리하였음.

- 수면시간 및 등교시간이 학생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정신건강, 학업성취도 등)
- 주요국의 등교시간 지연 정책 사례 및 효과

## 2. 9시 등교 효과 분석

-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9시 등교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임. 이에 이 연구에서는 9시 등교 이전에 비해 9시 등교 이후 학교 안팎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음.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 분석한 것은 다음과 같음.
  -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의 변화
  - 9시 등교에 따른 수면시간의 변화
  - 9시 등교에 따른 학교생활의 변화
  - 9시 등교에 따른 가정생활의 변화
  - 9시 등교에 따른 공부시간의 변화
  - 9시 등교에 따른 건강상태의 변화
  - 9시 등교에 따른 수업분위기 및 학교에 대한 태도의 변화

## 3. 9시 등교 정책 정착을 위한 정책적 제언

-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설문조사 및 FGI 결과 등을 종합하여 9시 등교 정책의 정착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음.

## 제3절 연구추진방법

### 1. 문헌 연구

- 이 연구에서는 9시 등교 정책 추진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폭넓게 수집하여 정리

하였음.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9시 등교의 추진 경과와 관련된 교육청의 내부 자료와 관련 선행연구, 등교시간 지연 정책의 의학적, 교육학적 근거 및 주요국의 등교시간 지연 사례 등을 정리하였음.

## 2. 양적 연구

- 양적 연구는 9시 등교 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증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하였음.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9시 등교를 실시하는 학교들 중에서 학교 규모나 지역 등을 고려한 일부 학교를 표집한 다음, 설문지를 대상학교에 우송하여 2014년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표 1-5〉 설문조사 대상

학교 급	전체 학교수	9시 등교 실시 학교수	설문대상 학교수	학생 설문 대상자	학부모 설문 대상자	교사 설문 대상자
초	1,195	1,192	60	4-6학년 각 한 반 표집	1-6학년 각 두 반 표집	재직 교사 전체
중	604	597	60	1-3학년 각 한 반 표집	1-3학년 각 두 반 표집	재직 교사 전체
고	451	368	60	1-3학년 각 한 반 표집	1-3학년 각 두 반 표집	재직 교사 전체

- 최종적으로 수합된 설문응답자는 다음과 같음.
  - 초등학교: 56개교 학생 3,658명, 학부모 7,990명, 교사 1,366명
  - 중학교: 52개교 학생 4,684명, 학부모 5,784명, 교사 1,716명
  - 고등학교: 56개교 학생 4,752명, 학부모 6,669명, 교사 2,577명

## 3. 포커스그룹 인터뷰 및 자문회의

- 양적 연구를 통해서 드러난 9시 등교의 효과를 심도 깊게 이해하기 위해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음. 인터뷰 대상은 설문조사 결과 9시 등교의 효과가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였음.
- 9시 등교 관련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를 통해서 정책 제언을 검토하였음.



##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수면의 기능 및 청소년기 수면의 특징

**제2절** 청소년의 수면 부족 현황 및 문제점

**제3절** 이른 등교시간으로 인한 문제점

**제4절** 등교시간 지연 효과 및 추진 사례



## 제2장

# 이론적 배경

-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청소년의 수면 부족 실태에 대해서 종종 조사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등교시간 지연 및 그 효과에 관련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음.
- 특히 청소년의 수면 주기 및 이를 고려한 적정 등교시간, 등교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나타나게 될 효과와 한계 등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려움.
- 반면 외국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청소년 수면생물학 연구, 청소년의 수면 부족이 발달과 학업성취 등에 미치는 영향, 등교시간 지연에 대한 정책 시도와 효과 등에 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수행되었음.
- 우리나라에서도 9시 등교 정책 시행을 계기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 이루어진 청소년 수면생물학 및 수면 부족의 문제점, 등교시간 지연 정책이 제기된 이유와 효과 등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제1절 수면의 기능 및 청소년기 수면의 특징

- 수면은 회복, 에너지 보호, 본능, 적응 등 여러 측면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음. 전체 수면 시간의 75~85%를 차지하는 비렘수면(NREM: non rapid eye movement)은 신체의 피로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며, 이 시간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면역작용이 활성화됨. 전체 수면 시간의 20~25%를 차지하는 렘수면(REM: rapid eye movement)은 지각, 인지, 정서적 과정, 장기기억에 필수적임. 깊은 수면은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며, 뇌 성장 시기에 특히 중요함(신흥범, 2008).
- 수면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수면 항상성 시스템(Sleep Homeostatic System)과 일주기 시스템(Circadian Timing System)이 있으며, 이는 수면 유도 호르몬인

- 멜라토닌과 깊은 관계가 있고, 수면 행동과 환경(빛, 운동, 식습관 등의 생활양식, SES, 학교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음(Saper et al., 2005).
- 미국 국립수면재단 등의 연구에 따르면, 10대에는 평균 8~10 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이 필요함(Hirshkowitz et al., 2015). 또한 청소년기에서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8시까지 수면 시간이 지속되도록 수면-각성 사이클이 전위되어 오후 11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들기가 어렵게 됨. 이로 인해 후기 청소년기 학생들은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초기 청소년기 아동들보다 더 늦게 잠자리에 들고 더 늦게 일어나게 됨(Carskadon et al., 1993; Andrade et al., 1993).
  - 이와 같은 취침 시간의 변화는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로부터 영향을 받는데, 여러 연구자들은 그 원인이 수면을 야기하는 생물학적 방아쇠라 할 수 있는 수면압력을 혹은 항상성 드라이브(sleep drive)의 지연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음(O'Malley, E. B. and O'Malley, 2011).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 학생들은 사회적 통념에 의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음. 따라서 사춘기 학생들은 대개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하고 있으며, 깨어있는 시간이 길수록 수면에 대한 압력이 높아져 저항하기가 힘들어지게 됨(Mindell and Owens, 2003).
  - 이러한 상황은 주중의 수면 및 기상 시간과 주말의 수면 및 기상 시간과의 차이로 이어지기가 쉬우며, 이 차이가 클수록 수면의 질이 나빠지고, 낮에 졸리는 현상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Wrzus and Wagner, 2014). 이와 관련하여 Wolfson and Carskadon(2008)은 미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주말과 주중의 수면시간이 2시간 이상 차이 나는 학생들은 1시간 이하로 차이가 나는 학생에 비해 낮 동안의 졸림, 우울, 수면 행동 문제 등을 겪을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했음.
  - 수면 각성 사이클(생체 내부 시계)이 2시간 혹은 그 이상 지연되는 수면 주기 지연 증후군(DSPS: Delayed sleep phase syndrome)이 심한 학생들은 밤 12시가 넘을 때 까지 잠을 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에 가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는 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됨(Saxvig et al., 2012). DSPS는 대개 사춘기 동안에 나타나게 되지만, 그 이전에도 나타날 수 있음. DSPS를 가진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스스로를 올빼미로 묘사하는데, 저녁이나 밤에 공부할 때 학습효율이 높아지며, 아침 늦게까지 잘 수 있게 되면 더 나은 성취를 거둘 수 있음.

- 사춘기 청소년의 약 7~8%가 의도하지 않게 심한 DSPS를 가질 수 있는데, 이들은 결석이나 지각이 잦고 기타 학교생활에 문제를 보일 수 있으며, 권위에 도전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쉬움. 이들의 행위는 생물학적인 것으로서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해도 잠드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음(Mindell and Owens, 2003).
- 청소년 수면에 생물학적 요인뿐 아니라 문화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음(Short et al., 2013). 이 연구에서는 호주와 미국 청소년의 수면시간 차이가 등교시간, 취침시간에 대한 부모의 간섭, 방과 후 활동 등의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함.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호주 청소년 385명과 미국 청소년 302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연령과 성별을 통제한 결과 호주 학생들은 미국 학생들보다 평균 47분을 더 자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자들은 호주 학생들은 부모님이 정해준 취침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미국 학생보다 많았으며, 등교시간도 평균 8시 32분으로 미국의 7시 45분보다 늦고, 과외활동 시간도 미국보다 적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고 있음.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생물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요인도 청소년의 수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등교시간 지연과 같은 정책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수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 제2절 청소년의 수면 부족 현황 및 문제점

- 미국 국립수면재단 등에 따르면 사춘기 학생들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9시간 또는 그 이상의 잠을 자야 하지만, 많은 나라의 10대 청소년들은 전술했던 DSPS 등에 의해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아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고 있음. 미국의 경우 13-18세 청소년의 14%만이 주중 9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의 경우, 중고등학생의 평균 수면시간은 중학생 7시간, 고등학생 5.7시간으로 약 6.3시간에 불과하며, 이들이 느끼는 수면 충족률은 중학생 30.6%, 고등학생 21.8%로 약 26.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질병관리본부, 2013). 김영지

외(2013)의 보고에서도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32.0%, 중학생의 53.6%, 일반/특목/자율고 재학생의 69.5%, 특성화고 재학생의 69.1%가 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아시아의 다른 나라 청소년들 역시 수면 부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의 청소년들이 북미와 유럽의 청소년들보다 취침 시간이 더 늦고, 총수면시간도 더 짧으며, 낮 동안 졸린 정도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Gradisar et al., 2010).
- 한편 수면 부족은 심각한 감정 기복, 주의 산만, 충동 조절의 어려움 등과 관련이 있으며, 학습동기를 떨어뜨리고, 과제를 지겨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경향이 있으며, 기억, 의사결정, 조직, 창의력 등에도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Mindell and Owens, 2003). 특히 수면 부족은 사춘기의 학습과 발달에 지장을 초래하며, 졸음과 주의집중의 문제 등을 야기하여 학업 능력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피로, 자살 충동, 약물 및 음주 등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Saxvig et al., 2012).
- 특히 수면과 학업성취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연구들이 보고되었음. 예를 들어 미국의 고등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기상시간과 학점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학점이 높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기상시간이 늦으며, 더 많은 수면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Link and Ancoli-Israel, 1995). 독일의 고등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수면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역시 수면의 질이 좋고, 수면 시간이 긴 학생일수록 더 나은 학업성취를 보이고 있으며(Hofman and Steenhof, 1997), 미국의 로드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3,120명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면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를 살핀 결과에서도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집단별로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에서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일찍 잠자리에 들어 더 많이 자는 것으로 나타남(Wolfson and Carskadon, 1998).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아침형 인간 혹은 잠을 덜 자는 사람이 학업성취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에 근거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임. Carskadon et al.(2014)는 10대에서 1시간의 수면 실종은 2년간의 인지 성숙과 발달을 실종시키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기도 함.
- 한편 식이 습관과 수면 습관은 긴밀한 관계에 있음. 수면 결핍은 식욕 자극 호르몬인

그렐린을 증가시키는 반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의 생산을 감소시켜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음. 또한 수면 결핍은 스트레스를 높이게 되고, 코티존 호르몬을 증가시키며, 심장 박동과 혈압을 높이게 됨. 코티존 레벨(cortisone level)의 만성적인 상승은 2형 당뇨와 심혈관계 질환 및 비만의 위험을 증가시킴(NIH, 1997).

### 제3절 이른 등교시간으로 인한 문제점

- 사춘기 청소년들이 생물학적 요인을 비롯한 여러 원인에 의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보다 취침 시간 및 기상 시간이 늦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등교시간이 빠른 경우가 대부분임.
- 따라서 청소년은 등교시간과 같이 사회에서 부과된 일정과 생물학적 시계와의 불일치로 인해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릴 개연성이 높음(Carskadon et al., 1993).
- 이른 등교시간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수면 결핍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다가 학교가 거의 끝나가는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비로소 집중할 수 있게 됨(Cardinali, 2008). 청소년들의 수면 사이클을 고려할 때 이는 성인들이 새벽 3시나 4시에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음(Mindell and Owen, 2003).
- 이른 등교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는 것은 수면 사이클을 교란시켜 지각, 인지 과정에 필수적인 REM(rapid eye movement) 수면을 제한시킴. 나아가 선택적 REM 수면 결핍은 불안정, 우울 증상을 초래하기도 함. 이와 관련하여 하버드 대학교 수면 의학교수인 Susan Redline은 오전 8시 수업은 사춘기 학생들의 REM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너무 이른 시간이라고 주장함(Czeisler et al., 2012).
- 청소년들의 건강과 뇌 발달을 위해서는 평균 8시간 30분에서 9시간 15분 정도의 수면이 필요하지만(Carskadon et al., 1980), 미국 고등학생의 경우 7시간의 수면도 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Wolfson and Carskadon, 1998). 이러한 문제의 기저에는 청소년기의 생체 리듬의 변화와 사회적 관행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자리하고 있음. 즉 청소년은 생체 리듬의 변화로 11시 이후에 취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

이며 취침 시간이 늦어진 만큼 기상 시간도 늦어져야 함. 그러나 이른 등교시간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필요한 8시간 30분에서 9시간 15분의 수면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성적인 수면 부족을 경험하게 됨.

- 이같은 청소년기의 수면 패턴 변화는 미국뿐 아니라 남미, 아시아, 호주와 유럽에서도 여러 연구를 통하여 입증됨. 이에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늦추어 수면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으며, 청소년기 학생들이 아침 8시경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이 제출됨.

## 제4절 등교시간 지연 효과 및 추진 사례

### 1. 등교시간 지연 효과

- 미국 소아과학회(AAP)는 중고교생의 수면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중고교의 등교시간을 8시 30분 이후로 늦춰야 한다는 정책보고서를 발표함. 연구결과에 의하면 등교시간을 늦추면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향상되고 일부 학생의 경우에는 학업성취도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남.
-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e)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등교시간 지연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중요 전략 중의 하나임(Jacob and Rockoff, 2011). 비용이 많이 소요되거나 정치적으로 논쟁의 소지가 많은 교육정책을 수립할 필요 없이 등교시간만 변경하여도 별다른 비용 지출 없이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임.
-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등교시간을 한 시간 늦추면 교통 관련 비용을 비롯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0~1950 달러에 불과한 반면, 학업성취 향상으로 인해 예상되는 미래 수익은 17,500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등교 시간 지연은 비용 대비 약 9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수면 부족이 초래할 수 있는 학습능력과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대한 부작용 등을 보고한 연구들과 함께 등교시간을 늦추라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등교시간은 주(州)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청소년의 등교시간을 늦출 것을 요구하는 압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버지니아와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등교시간과 관련된 새로운 법안제정을 고려하고 있으며, 메릴랜드 주에서는 최근 등교시간 지연과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킴. 전국적 차원으로는 2009년에 상하 양원에서 채택된 찬동결의(House Concurrent Resolution) 제176조에서 중·고등학교의 경우 등교시간을 9시까지 늦추도록 권고하고 있음. 영국이나 뉴질랜드의 경우도 등교시간 지연이 학업성취도나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등교시간을 10시 또는 10시 30분으로 정하고 있음(Kelley and C.L., 2014).

## 2. 등교시간 지연 사례 및 효과

### 가. 미국 매사추세츠 주 중학교 사례

- Wolfson et al.(2007)은 매사추세츠 주에서 7시 15분에 등교하는 학교와 8시 37분에 등교하는 학교의 7학년과 8학년 학생을 비교하는 연구를 실시함.
- 등교시간이 이른 학교 학생들은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수업에 집중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늦게 등교하는 학생들과 빨리 등교하는 학생의 취침시간은 차이가 없었으나 늦게 등교하는 학생들의 기상시간이 늦어져 1시간 정도 잠을 더 자는 것으로 나타남. 빨리 등교하는 학교의 학생들은 늦게 등교하는 학교 학생들에 비해 지각을 4배 더 많이 했으며, 8학년의 경우 성적도 유의하게 낮았음.

### 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공립중학교 사례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웨이크 카운티(Wake County)의 공립중학교에 재학 중인 146,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등교시간을 1시간 지연한 결과 수학과 읽기 성적이 2~3% 상승하였음. Edwards(2011)는 등교시간을 한 시간만 늦추어도 읽기 점수가 0.03~0.1 표준편차만큼 상승했으며 수학 점수 또한 0.06~0.09 표준편차만큼 상승했다고 보고함. 특히 취약계층 학생들은 부유한 계층에 속한 학생들보다 약

2배 정도 더 학업성취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는 고등학교 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남.

#### 다. 미국 로드아일랜드 고교 사례

- Owen et al.(2010)은 10대 청소년의 권장 수면 시간은 8.5~9.5시간인데 비해 생체 리듬 때문에 밤 11시 이전에는 쉽게 잠들지 못하므로 아침 8시에 기상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함. 그러나 미국 공립 고등학교의 평균 등교시간은 7시 59분으로 청소년의 생물학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로드아일랜드 고교에서는 이러한 권고에 따라 등교시간을 오전 8시에서 8시 30분으로 늦춘 결과 학생들의 수면 패턴과 행동이 변화했다고 보고함. 등교시간을 늦춘 결과 학생들의 수면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되었으며, 다양한 활동에 대한 참여 동기가 제고되었고, 낮 동안의 졸음이나 피곤, 우울감 등이 모두 감소하였다는 것임.

#### 라. 미국 미네소타 주 공립고등학교 사례

- 1990년대 초반 청소년들은 생물학적으로 성인들과는 다른 수면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의학적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에 소재한 고등학교는 오전 7시 15분에서 8시 40분으로, 에디나에 소재한 고등학교는 7시 25분에서 8시 30분으로 등교시간을 늦춤.
- 미네소타 대학교 응용연구 및 교육 개선 센터(The center for Applied Research and Educational Improvement, CAREI)에서는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와 에디나에 소재한 7개 고등학교 학생 12,00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종단연구를 실시하여 등교시간 변경이 학업성취와 행동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Wahlstrom, 2002). 연구결과 등교시간을 변경한 고등학교 학생의 수면시간이 7시간 53분에서 7시간 59분으로 증가하여 등교시간을 변경하지 않은 학교 학생보다 52분 가량을 더 자는 것으로 나타남.
- 수면시간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출석률과 진학률이 올라가고, 지각이 줄었으며, 수업시간에 덜 졸게 되었고, 우울감도 감소함. 또한 아침식사를 하는 횟수가 늘고, 낮 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집중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숙제를 마치는 비율도 증가함.

- 교사와 관리자 면담 결과에서도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며, 복도나 카페테리아에서 보다 차분하게 행동하고, 징계를 받는 횟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학교 상담교사들은 학생들이 성적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덜 받고 부모나 동료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줄었다고 보고함. 학부모들도 자녀와의 갈등이 줄었으며, 아침에 의미 있는 대화와 소통의 시간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함.

#### 마. 영국 사례

- 영국의 일부 학교에서도 등교시간을 10시로 늦추는 정책을 실시함. 2013년 9월 개교한 UCL Academy에서는 청소년의 수면패턴에 관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등교시간을 10시로 정함. 그 결과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보고함(Yahoo! News, Mar. 18, 2013).
- Monkseaton High School에서도 2009년 10월부터 등교시간을 10시로 늦춘 결과 시험 성적이 20~30% 향상되었으며 결석률도 27%까지 줄어들음(BBC News, Mar. 22, 2010).

#### 바. 캐나다 사례

- 캐나다의 일부 학교에서도 청소년의 수면 건강을 위해 등교시간 지연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캐나다의 사립고등학교인 Pacific School of Innovation and Inquiry에서는 학생의 충분한 수면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부의 잠정승인을 얻어 2013년 가을 학기부터 등교시간을 9시 45분으로 늦추었음(Times Colonist, May 11, 2013).
- Lakehead 지역의 공립학교에서도 9년 전부터 고등학교의 등교시간을 9시 30분으로 늦추었는데 이를 통하여 학교생활의 질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교통상황도 더 원활해짐. 등교시간을 늦추는 대신 점심시간을 단축하여 하교시간을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도 않았음(Tbnewswatch, Sept. 4, 2012).
- 2009년 토론토의 Eastern Commerce Collegiate Institute 고등학교에서는 등교시간을 9시에서 10시로 늦추었는데 등교시간 지연 후 결석률이 낮아지고 성적도 향상됨

(The Gazette, Aug. 16, 2011; Thestar.com, May 15, 2013). 4년이 경과한 2013년에 교사들은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었으며 수업태도가 개선되었다고 보고함. 또한 학생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향상되었으며, 등교시간 지연을 실시하지 않은 학교와 비교했을 때 9시간 수면을 취하는 확률이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수학 성적의 경우 평균 4% 향상되었고 영어도 등락이 있었으나 평균점수는 등교시간 지연 전보다 높아짐. 결석률도 17살의 경우 등교시간 지연 전에는 평균 22.7%이던 것이 15.9%로 하락함.

#### 사. 이스라엘 사례

- 이스라엘에서도 등교시간을 한 시간 늦춘 결과 학생들의 집중력이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제출되었음. Lufi et al.(2011)은 이스라엘 북부 Jezreel Valley 공립학교 8학년 학생 47명(남학생 20명, 여학생 27명)을 대상으로 하여 첫째 주 동안 실험군 학생에게 1시간 늦추어 8시 30분까지 등교하도록 하고 둘째 주에는 본래 일정대로 돌아가도록 함. 대조군 학생에게는 2주 동안 원래대로 7시간 30분까지 등교하도록 함.
- 실험이 진행된 첫째 주에 실험군 학생들은 하루 평균 55분을 더 잤으며 수면을 더 취한 학생들은 수학 테스트와 집중력 테스트에서 더 높은 집중력을 보임. 연구진은 등교시간 변경으로 인하여 집중력이 향상되고 실수나 충동적 행동이 감소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지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면서 중학생의 등교시간을 최소 1시간 늦출 것을 제안함.

#### 아. 뉴질랜드 사례

- 2006년 Wellington High School에서는 등교시간을 90분 늦추어 10시 30분까지 등교하도록 함. Borlase et al.(2013)은 이 학교의 등교시간 지연 사례에 대해 연구를 실시하고 1999년과 2008년의 학생 수면 데이터를 비교함.
- 9년 간 침실의 전자기기 수가 증가하는 등 수면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교시간 지연 후에 학생들은 9년 전보다 수면 부족을 덜 경험하였고 덜 졸린다고 보고함.

## 제3장

# 9시 등교에 대한 선호 및 쟁점에 대한 인식

**제1절**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선호의 변화

**제2절** 9시 등교 정책 관련 쟁점에 대한 인식



## 제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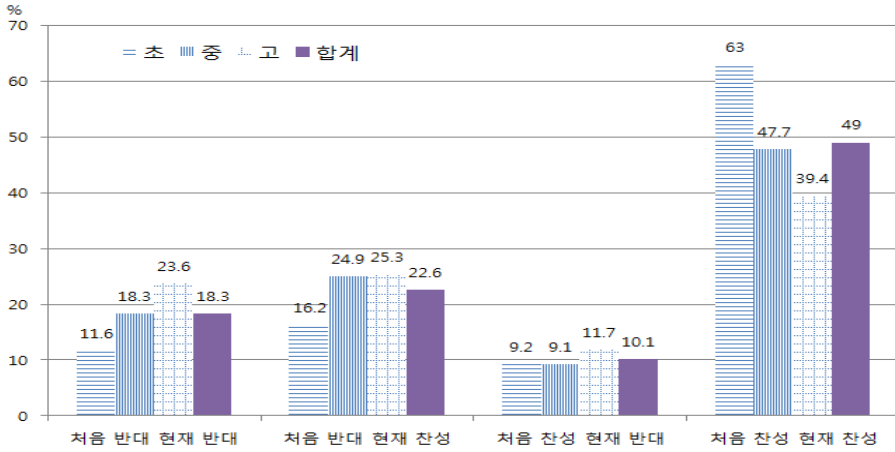
# 9시 등교에 대한 선호 및 쟁점에 대한 인식

## 제1절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선호의 변화

### 1. 학생

#### 가. 학교급 간 비교

- 학생들을 대상으로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설문한 결과 설문조사 시점에서 9시 등교 정책에 찬성하는 학생의 비율이 71.6%였음.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79.2%, 중학생의 72.6%, 고등학생의 64.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초등학생들의 63.0%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찬성이었다고 응답하여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지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9시 등교 정책이 발표되었을 때와 현재 모두 찬성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49.0%인 반면 두 시점에서 모두 반대였다고 응답한 학생은 18.3%에 그쳤으며, 처음에는 반대였다가 현재는 찬성 입장으로 변화한 학생은 22.6%인 반면 처음에는 찬성이었다가 현재는 반대 입장으로 변화한 학생은 10.1%에 그쳤음.
- 특히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처음에는 반대였다가 현재는 찬성하는 학생의 비율이 각각 24.9%와 25.3%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학력 저하를 비롯한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9시 등교 정책이 시행되면서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경험한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그림 3-1)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학생)

## 나. 학교급 내 비교

### 1) 초등학교

#### 가) 학년별 비교

-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인식을 학년별로 비교해 본 결과 설문조사 시점에서 9시 등교 정책에 찬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4학년 80.9%, 5학년 77.7%, 6학년 79.1%로 나타나 모든 학년에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9시 등교 정책에 찬성하고 있었음.
- 처음에는 반대였다가 찬성으로 변화한 학생들의 비율이나 처음에는 찬성이었다가 반대로 변화한 학생들의 비율 또한 학년별로 큰 차이가 없었음.

〈표 3-1〉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초, 학생, 학년별)

					합계(명)	단위: %
	처음 반대 현재 반대	처음 반대 현재 찬성	처음 찬성 현재 반대	처음 찬성 현재 찬성		$\chi^2$
4학년	10.4	15.1	8.8	65.8	100(1200)	12.813*
5학년	13.4	17.7	8.9	60.0	100(1222)	
6학년	10.8	15.8	10.1	63.3	100(1190)	
합계	11.6	16.2	9.2	63.0	100(3612)	

\*\*\* : p(<.001, \*\* : p(<.01, \* : p(<.05



## 나) 성적별 비교

- 학생들이 스스로 보고한 성적을 기준으로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인식을 비교해 본 결과 설문조사 시점에서 9시 등교 정책에 찬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하위권 80.1%, 중위권 80.3%, 상위권 77.6%로 나타나 성적과 관계없이 대다수의 학생들이 9시 등교 정책에 찬성하고 있었음.
- 처음에는 반대였다가 찬성으로 변화한 학생들의 비율이나 처음에는 찬성이었다가 반대로 변화한 학생들의 비율 또한 성적별로 큰 차이가 없었음.

〈표 3-2〉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초, 학생, 성적별)

						단위: %
	처음 반대 현재 반대	처음 반대 현재 찬성	처음 찬성 현재 반대	처음 찬성 현재 찬성	합계(명)	$\chi^2$
하위권	10.8	14.8	9.1	65.3	100(352)	6.037
중위권	10.7	16.0	9.0	64.3	100(1730)	
상위권	12.7	16.7	9.7	60.9	100(1496)	
합계	11.5	16.2	9.3	63.0	100(3578)	

\*\*\* : p&lt;.001, \*\* : p&lt;.01, \* : p&lt;.05

## 다) 맞벌이 여부별 비교

- 부모들이 맞벌이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인식을 비교해 본 결과 설문조사 시점에서 9시 등교 정책에 찬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맞벌이 가정에서 79.9%, 외벌이 가정에서 78.0%로 나타나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대다수의 학생들이 9시 등교 정책에 찬성하고 있었음.
- 처음에는 반대였다가 찬성으로 변화한 학생들의 비율이나 처음에는 찬성이었다가 반대로 변화한 학생들의 비율 또한 맞벌이 여부와 별다른 관계가 없었음.

〈표 3-3〉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초, 학생, 맞벌이 여부)

						단위: %
	처음 반대 현재 반대	처음 반대 현재 찬성	처음 찬성 현재 반대	처음 찬성 현재 찬성	합계(명)	$\chi^2$
맞벌이	11.1	16.4	9.0	63.5	100(2203)	2.179
외벌이	12.5	15.8	9.5	62.2	100(1394)	
합계	11.6	16.2	9.2	63.0	100(3597)	

\*\*\* : p&lt;.001, \*\* : p&lt;.01, \* : p&lt;.05

## 라) 등교 시 보호자 재가 여부별 비교

- 자녀들이 등교할 때 보호자가 집에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초등학교생들의 인식을 비교해 본 결과 설문조사 시점에서 9시 등교 정책에 찬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보호자가 있는 가정에서 80.0%, 보호자가 없는 가정에서 76.6%로 나타나 두 집단 사이에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음.
- 처음에는 반대였다가 찬성으로 변화한 학생들의 비율이나 처음에는 찬성이었다가 반대로 변화한 학생들의 비율 또한 두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표 3-4〉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초, 학생, 보호자 재가 여부)

	처음 반대		처음 찬성		합계(명)	단위: % $\chi^2$
	현재 반대	현재 찬성	현재 반대	현재 찬성		
보호자 재가	11.2	16.2	8.8	63.8	100(2767)	4.855
보호자 부재	12.4	16.1	10.9	60.5	100(806)	
합계	11.5	16.2	9.3	63.1	100(3573)	

\*\*\* : p&lt;.001, \*\* : p&lt;.01, \* : p&lt;.05

## 2) 중학교

## 가) 학년별 비교

-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중학생들의 인식을 학년별로 비교해 본 결과 설문조사 시점에서 9시 등교 정책에 찬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1학년 71.5%, 2학년 73.5%, 3학년 72.9%로 나타나 모든 학년에서 70% 이상의 학생들이 9시 등교 정책에 찬성하고 있었음.
- 특히 3학년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반대였다가 찬성으로 변화한 학생들의 비율이 28.4%로서 다른 학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1,2학년에 비해 학업에 대한 부담과 불안이 높은 3학년 학생들이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로 9시 등교를 반대했으나 9시 등교 실시 이후 그러한 우려가 불식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표 3-5〉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중, 학생, 학년별)

	처음 반대		처음 찬성		합계(명)	단위: % $\chi^2$
	현재 반대	현재 찬성	현재 반대	현재 찬성		
1학년	19.5	21.8	9.0	49.7	100(1549)	20.853**
2학년	17.3	24.6	9.2	48.9	100(1563)	
3학년	18.1	28.4	9.0	44.5	100(1517)	
합계	18.3	24.9	9.1	47.7	100(4629)	

\*\*\* : p(&lt;0.001, \*\* : p(&lt;0.01, \* : p(&lt;0.05)

## 나) 성적별 비교

- 학생들이 스스로 보고한 성적을 기준으로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중학생들의 인식을 비교해 본 결과 설문조사 시점에서 9시 등교 정책에 찬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하위권 74.9%, 중위권 73.9%, 상위권 68.5%로 나타나 성적과 관계없이 대다수의 학생들이 9시 등교 정책에 찬성하고 있었으나 상위권 학생들이 중하위권 학생들에 비해서는 찬성하는 비율이 다소 낮았음.
- 상위권 학생들에게서 찬성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 정책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22.9%로 중하위권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임. 그러나 상위권 학생 중에서 처음에는 반대였다가 현재는 찬성으로 변화한 학생들의 비율이 25%에 이르고 있어 9시 등교와 관련된 상위권 학생들의 불안과 불만이 일정 정도 해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 3-6〉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중, 학생, 성적별)

	처음 반대		처음 찬성		합계(명)	단위: % $\chi^2$
	현재 반대	현재 찬성	현재 반대	현재 찬성		
하위권	15.8	21.6	9.3	53.3	100(1148)	41.884***
중위권	16.9	26.6	9.2	47.3	100(2128)	
상위권	22.9	25.0	8.6	43.5	100(1319)	
합계	18.3	24.9	9.1	47.7	100(4595)	

\*\*\* : p(&lt;0.001, \*\* : p(&lt;0.01, \* : p(&lt;0.05)

## 다) 맞벌이 여부별 비교

- 부모들이 맞벌이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중학생들의 인식을

비교해 본 결과 설문조사 시점에서 9시 등교 정책에 찬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맞벌이 가정에서 72.7%, 외벌이 가정에서 72.3%로 나타나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대다수의 학생들이 9시 등교 정책에 찬성하고 있었음.

- 처음에는 반대였다가 찬성으로 변화한 학생들의 비율이나 처음에는 찬성이었다가 반대로 변화한 학생들의 비율 또한 맞벌이 여부와 별다른 관계가 없었음.

〈표 3-7〉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중, 학생, 맞벌이 여부)

	처음 반대	처음 반대	처음 찬성	처음 찬성	합계(명)	$\chi^2$
	현재 반대	현재 찬성	현재 반대	현재 찬성		
맞벌이	18.3	25.4	9.0	47.3	100(2912)	.971
외벌이	18.4	24.1	9.2	48.2	100(1710)	
합계	18.3	24.9	9.1	47.7	100(4622)	

\*\*\* :  $p < .001$ , \*\* :  $p < .01$ , \* :  $p < .05$

#### 라) 등교 시 보호자 재가 여부별 비교

- 자녀들이 등교할 때 보호자가 집에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중학생들의 인식을 비교해 본 결과 설문조사 시점에서 9시 등교 정책에 찬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보호자가 있는 가정에서 73.0%, 보호자가 없는 가정에서 71.4%로 나타나 두 집단 사이에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음.
- 처음에는 반대였다가 찬성으로 변화한 학생들의 비율이나 처음에는 찬성이었다가 반대로 변화한 학생들의 비율 또한 두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표 3-8〉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중, 학생, 보호자 재가 여부)

	처음 반대	처음 반대	처음 찬성	처음 찬성	합계(명)	$\chi^2$
	현재 반대	현재 찬성	현재 반대	현재 찬성		
보호자 재가	18.1	24.9	8.8	48.1	100(3350)	1.452
보호자 부재	19.0	24.7	9.6	46.7	100(1261)	
합계	18.3	24.9	9.0	47.8	100(4611)	

\*\*\* :  $p < .001$ , \*\* :  $p < .01$ , \* :  $p < .05$

## 3) 고등학교

## 가) 학년별 비교

-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을 학년별로 비교해 본 결과 설문조사 시점에서 9시 등교 정책에 찬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1학년 68.1%, 2학년 63.6%, 3학년 61.2%로 나타나 학년이 낮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음. 이러한 결과는 9시 등교로 인해 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학년으로 갈수록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임.
- 그러나 모든 학년에서 처음에는 반대였다가 찬성으로 변화한 학생들의 비율이 처음에는 찬성이었다가 현재는 반대로 변화한 비율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난 것은 9시 등교가 시행되면서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표 3-9〉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고, 학생, 학년별)

	처음 반대		처음 찬성		합계(명)	단위: %
	현재 반대	현재 찬성	현재 반대	현재 찬성		$\chi^2$
1학년	21.6	25.2	10.3	42.9	100(1734)	20.363**
2학년	24.1	25.4	12.3	38.2	100(1790)	
3학년	25.8	25.3	13.0	35.9	100(1151)	
합계	23.6	25.3	11.7	39.4	100(4675)	

\*\*\* :  $p < .001$ , \*\* :  $p < .01$ , \* :  $p < .05$ 

## 나) 성적별 비교

- 학생들이 스스로 보고한 성적을 기준으로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을 비교해 본 결과 설문조사 시점에서 9시 등교 정책에 찬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하위권 64.7%, 중위권 65.0%, 상위권 63.4%로 나타나 성적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음.
- 상위권 학생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중하위권 학생들에 비해 낮았으나 처음에는 반대였다가 지금은 찬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았음. 이러한 결과 또한 9시 등교가 시행되면서 학력 저하에 대한 상위권 학생들의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표 3-10〉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고, 학생, 성적별)

	처음 반대		처음 찬성		합계(명)	단위: % $\chi^2$
	현재 반대	현재 찬성	현재 반대	현재 찬성		
하위권	22.3	23.4	13.0	41.3	100(1288)	15.888*
중위권	23.4	25.0	11.6	40.0	100(2490)	
상위권	26.3	28.0	10.3	35.4	100(872)	
합계	23.6	25.1	11.8	39.5	100(4650)	

\*\*\* : p(&lt;.001, \*\* : p(&lt;.01, \* : p(&lt;.05

## 다) 맞벌이 여부별 비교

- 부모들이 맞벌이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을 비교해 본 결과 설문조사 시점에서 9시 등교 정책에 찬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맞벌이 가정에서 64.2%, 외벌이 가정에서 65.4%로 나타나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음.
- 처음에는 반대였다가 찬성으로 변화한 학생들의 비율이나 처음에는 찬성이었다가 반대로 변화한 학생들의 비율 또한 맞벌이 여부와 별다른 관계가 없었음.

〈표 3-11〉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고, 학생, 맞벌이 여부)

	처음 반대		처음 찬성		합계(명)	단위: % $\chi^2$
	현재 반대	현재 찬성	현재 반대	현재 찬성		
맞벌이	23.2	24.7	12.6	39.5	100(3078)	7.547
외벌이	24.4	26.5	10.1	38.9	100(1588)	
합계	23.6	25.3	11.8	39.3	100(4666)	

\*\*\* : p(&lt;.001, \*\* : p(&lt;.01, \* : p(&lt;.05

## 라) 등교 시 보호자 재가 여부별 비교

- 자녀들이 등교할 때 보호자가 집에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을 비교해 본 결과 설문조사 시점에서 9시 등교 정책에 찬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보호자가 있는 가정에서 65.3%, 보호자가 없는 가정에서 63.0%로 나타나 두 집단 사이에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음.
- 처음에는 반대였다가 찬성으로 변화한 학생들의 비율이나 처음에는 찬성이었다가 반대로 변화한 학생들의 비율 또한 두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표 3-12〉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고, 학생, 보호자 재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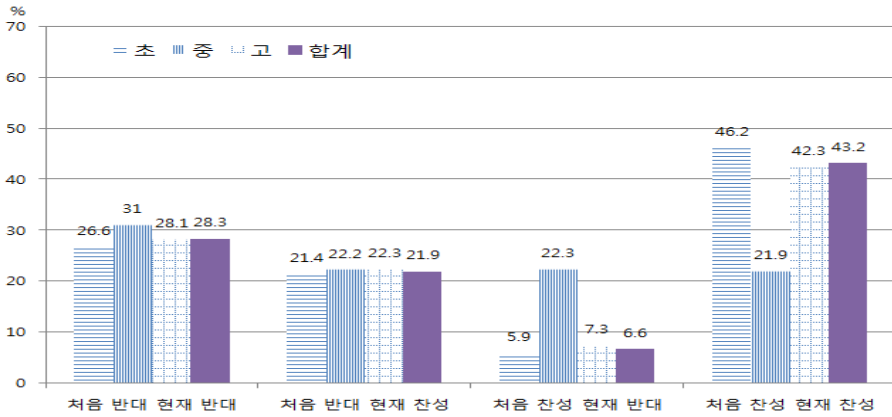
	단위: %				합계(명)	$\chi^2$
	처음 반대 현재 반대	처음 반대 현재 찬성	처음 찬성 현재 반대	처음 찬성 현재 찬성		
보호자 재가	23.0	25.7	11.7	39.6	100(3435)	2.766
보호자 부재	25.2	24.2	11.8	38.8	100(1223)	
합계	23.6	25.3	11.7	39.4	100(4658)	

\*\*\* :  $p < .001$ , \*\* :  $p < .01$ , \* :  $p < .05$

## 2. 학부모

### 가. 학교급 간 비교

- 학부모를 대상으로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설문한 결과 설문조사 시점에서 9시 등교 정책에 찬성하는 비율이 65.1%였음.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학부모의 67.6%, 중학생 학부모의 62.3%, 고등학생 학부모의 65.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9시 등교 정책이 발표되었을 때와 현재 모두 찬성했다고 응답한 학부모가 43.2%인 반면 두 시점에서 모두 반대였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28.3%에 그쳤으며, 처음에는 반대였다가 현재는 찬성 입장으로 변화한 학부모가 21.9%인 반면 처음에는 찬성이었다가 현재는 반대 입장으로 변화한 학부모는 6.6%에 그쳤음.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9시 등교 정책이 시행되면서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경험한 학부모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함.



(그림 3-2)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학부모)

## 나. 학교급 내 비교

### 1) 초등학교

#### 가) 학년별 비교

-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인식을 학년별로 비교해 본 결과 설문 조사 시점에서 9시 등교 정책에 찬성하는 학부모들의 비율이 저학년(1,2학년) 70.1%, 중학년(3,4학년) 69.2%, 고학년(5,6학년) 63.5%로 나타나 저학년과 중학년에서 상대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음. 이러한 결과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9시 등교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비율이 저학년과 중학년에 비해 고학년(30.4%)에서 높았기 때문임.
- 처음에는 반대였다가 찬성으로 변화한 학부모들의 비율이나 처음에는 찬성이었다가 반대로 변화한 학부모들의 비율은 학년별로 큰 차이가 없었음.

(표 3-13)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초, 학부모, 학년별)

	단위: %				합계(명)	$\chi^2$
	처음 반대 현재 반대	처음 반대 현재 찬성	처음 찬성 현재 반대	처음 찬성 현재 찬성		
저학년	24.5	20.9	5.4	49.2	100(2579)	39.481***
중학년	24.6	22.0	6.2	47.2	100(2510)	
고학년	30.4	21.2	6.0	42.3	100(2706)	
합계	26.6	21.4	5.9	46.2	100(7795)	

\*\*\* : p<.001, \*\* : p<.01, \* : p<.05



## 나) 성적별 비교

- 자녀들의 성적을 기준으로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인식을 비교해 본 결과 설문조사 시점에서 9시 등교 정책에 찬성하는 학부모들의 비율이 하위권 68.0%, 중위권 67.8%, 상위권 67.3%로 나타나 성적과 관계없이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9시 등교 정책에 찬성하고 있었음.
- 처음에는 반대였다가 찬성으로 변화한 학부모들의 비율은 상위권 학부모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9시 등교로 인한 학력 하락의 우려가 9시 등교 정책 시행 이후 해소되고 있음을 시사함.

〈표 3-14〉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초, 학부모, 성적별)

	처음 반대		처음 찬성		합계(명)	단위: % $\chi^2$
	현재 반대	현재 찬성	현재 반대	현재 찬성		
하위권	24.2	17.2	7.8	50.8	100(384)	17.556**
중위권	26.1	20.5	6.1	47.3	100(3602)	
상위권	27.4	22.6	5.3	44.7	100(3639)	
합계	26.6	21.3	5.8	46.2	100(7625)	

\*\*\* : p&lt;.001, \*\* : p&lt;.01, \* : p&lt;.05

## 다) 맞벌이 여부별 비교

- 부모들이 맞벌이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인식을 비교해 본 결과 설문조사 시점에서 9시 등교 정책에 찬성하는 학부모들의 비율이 맞벌이 가정에서 63.9%, 외벌이 가정에서 72.0%로 나타나 맞벌이 가정의 찬성 비율이 낮았음.
- 특히 맞벌이 가정의 30.4%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9시 등교 정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과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됨.
- 다만 맞벌이 가정 중에서 처음에는 반대였다가 현재는 찬성으로 변화한 비율은 20.2%인 반면 처음에는 찬성이었다가 현재는 반대로 변화한 경우는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맞벌이 가정의 불안이 경험을 통해 일정 정도 해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 3-15〉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초, 학부모, 맞벌이 여부)

	처음 반대	처음 반대	처음 찬성	처음 찬성	합계(명)	단위: % $\chi^2$
	현재 반대	현재 찬성	현재 반대	현재 찬성		
맞벌이	30.4	20.2	5.7	43.7	100(4289)	68.555***
외벌이	22.0	22.8	6.0	49.2	100(3439)	
합계	26.7	21.4	5.8	46.1	100(7728)	

\*\*\* : p&lt;.001, \*\* : p&lt;.01, \* : p&lt;.05

## 라) 등교 시 보호자 재가 여부별 비교

- 자녀들이 등교할 때 보호자가 집에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인식을 비교해 본 결과 설문조사 시점에서 9시 등교 정책에 찬성하는 학부모들의 비율이 보호자가 있는 가정에서 71.9%, 보호자가 없는 가정에서 49.3%로 나타나 보호자가 없는 가정의 찬성 비율이 현저하게 낮았음.
- 맞벌이 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녀 등교 시 보호자가 없는 가정의 43.5%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9시 등교 정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과 홍보가 요구됨.
- 다만 보호자 부재 가정 중에서 처음에는 반대였다가 현재는 찬성으로 변화한 비율은 18.3%인 반면 처음에는 찬성이었다가 현재는 반대로 변화한 경우는 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갖는 불안이 9시 등교 시행 이후 일정 정도 해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 3-16〉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초, 학부모, 보호자 재가 여부)

	처음 반대	처음 반대	처음 찬성	처음 찬성	합계(명)	단위: % $\chi^2$
	현재 반대	현재 찬성	현재 반대	현재 찬성		
보호자 재가	22.6	22.1	5.5	49.8	100(6200)	304.504***
보호자 부재	43.5	18.3	7.2	31.0	100(1495)	
합계	26.6	21.3	5.9	46.2	100(7695)	

\*\*\* : p&lt;.001, \*\* : p&lt;.01, \* : p&lt;.05

## 2) 중학교

## 가) 학년별 비교

-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중학생 학부모들의 인식을 학년별로 비교해 본 결과 설문조사 시점에서 9시 등교 정책에 찬성하는 학부모들의 비율이 1학년 59.5%, 2학년 63.7%, 3학년 64.1%로 나타나 모든 학년에서 60% 정도의 학부모들이 9시 등교에 찬성하고 있었음.
- 처음에는 반대였다가 찬성으로 변화한 비율이나 처음에는 찬성이었다가 반대로 변화한 학부모들의 비율은 학년별로 큰 차이가 없었음.

〈표 3-17〉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중, 학부모, 학년별)

						단위: %
	처음 반대 현재 반대	처음 반대 현재 찬성	처음 찬성 현재 반대	처음 찬성 현재 찬성	합계(명)	$\chi^2$
1학년	33.1	21.2	7.3	38.3	100(1958)	15.751*
2학년	29.0	22.5	7.4	41.2	100(1957)	
3학년	30.5	22.8	5.5	41.3	100(1723)	
합계	30.9	22.2	6.8	40.2	100(5638)	

\*\*\* : p&lt;.001, \*\* : p&lt;.01, \* : p&lt;.05

## 나) 성적별 비교

- 자녀들의 성적을 기준으로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중학생 학부모들의 인식을 비교해 본 결과 설문조사 시점에서 9시 등교 정책에 찬성하는 학부모들의 비율이 하위권 69.6%, 중위권 62.1%, 상위권 62.4%로 나타나 중상위권 학부모들보다는 하위권 학부모들의 찬성 비율이 높았음. 이러한 결과는 9시 등교 이전에 이른 등교로 인해 생활지도를 비롯한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던 하위권 학생들의 학교 생활만족도가 9시 등교 이후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 그러나 중위권과 상위권 학부모들 중에서 처음에는 반대였다가 현재는 찬성으로 변화한 학부모들이 각각 22.3%와 23.1%로 나타나 중상위권 학부모들이 9시 등교 정책 초기에 가졌던 우려의 상당 부분이 경험을 통해 해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 3-18〉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중, 학부모, 성적별)

	처음 반대		처음 찬성		합계(명)	단위: % $\chi^2$
	현재 반대	현재 찬성	현재 반대	현재 찬성		
하위권	23.4	20.4	7.1	49.2	100(1090)	66.580***
중위권	31.0	22.3	7.0	39.8	100(2618)	
상위권	35.1	23.1	6.4	35.3	100(1841)	
합계	30.9	22.2	6.8	40.2	100(5549)	

\*\*\* : p&lt;.001, \*\* : p&lt;.01, \* : p&lt;.05

## 다) 맞벌이 여부별 비교

- 맞벌이 여부를 기준으로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중학생 학부모들의 인식을 비교해 본 결과 설문조사 시점에서 9시 등교 정책에 찬성하는 학부모들의 비율이 맞벌이 가정에서 62.0%, 외벌이 가정에서 62.9%로 나타나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9시 등교 정책에 찬성하고 있었음.
- 처음에는 반대였다가 찬성으로 변화한 학부모들의 비율이나 처음에는 찬성이었다가 반대로 변화한 학부모들의 비율은 맞벌이 여부와 별다른 관계가 없었음.

〈표 3-19〉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중, 학부모, 맞벌이 여부)

	처음 반대		처음 찬성		합계(명)	단위: % $\chi^2$
	현재 반대	현재 찬성	현재 반대	현재 찬성		
맞벌이	31.6	21.6	6.4	40.4	100(3393)	5.140
외벌이	29.8	23.2	7.4	39.7	100(2214)	
합계	30.9	22.2	6.8	40.1	100(5607)	

\*\*\* : p&lt;.001, \*\* : p&lt;.01, \* : p&lt;.05

## 라) 등교 시 보호자 재가 여부별 비교

- 자녀들이 등교할 때 보호자가 집에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중학생 학부모들의 인식을 비교해 본 결과 설문조사 시점에서 9시 등교 정책에 찬성하는 학부모들의 비율이 보호자가 있는 가정에서 64.4%, 보호자가 없는 가정에서 56.8%로 나타나 보호자가 없는 가정의 찬성 비율이 낮았음.
- 그러나 처음에는 반대였다가 찬성으로 변화한 학부모들의 비율이 보호자가 없는 가정에서도 2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가정에서 가졌던 처음의 우려가

9시 등교 시행 이후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 3-20〉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중, 학부모, 보호자 재가 여부)

	처음 반대	처음 반대	처음 찬성	처음 찬성	합계(명)	단위: % $\chi^2$
	현재 반대	현재 찬성	현재 반대	현재 찬성		
보호자 재가	28.7	22.2	7.0	42.2	100(4070)	40.374***
보호자 부재	36.8	22.3	6.4	34.5	100(1523)	
합계	30.9	22.2	6.8	40.1	100(5593)	

\*\*\* :  $p < .001$ , \*\* :  $p < .01$ , \* :  $p < .05$

### 3) 고등학교

#### 가) 학년별 비교

-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고등학교 학부모들의 인식을 학년별로 비교해 본 결과 설문 조사 시점에서 9시 등교 정책에 찬성하는 학부모들의 비율이 1학년 65.7%, 2학년 64.0%, 3학년 63.8%로 나타나 학년에 관계없이 대다수의 학부모가 9시 등교를 찬성하고 있었음.
- 처음에는 반대였다가 찬성으로 변화한 비율이나 처음에는 찬성이었다가 반대로 변화한 학부모들의 비율 또한 학년별로 큰 차이가 없었음.

〈표 3-21〉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고, 학부모, 학년별)

	처음 반대	처음 반대	처음 찬성	처음 찬성	합계(명)	단위: % $\chi^2$
	현재 반대	현재 찬성	현재 반대	현재 찬성		
1학년	27.2	22.9	7.1	42.8	100(2439)	5.139
2학년	28.1	21.4	7.9	42.6	100(2544)	
3학년	29.4	22.5	6.8	41.3	100(1539)	
합계	28.1	22.2	7.3	42.4	100(6522)	

\*\*\* :  $p < .001$ , \*\* :  $p < .01$ , \* :  $p < .05$

#### 나) 성적별 비교

- 자녀들의 성적을 기준으로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고등학생 학부모들의 인식을 비교해 본 결과 설문조사 시점에서 9시 등교 정책에 찬성하는 학부모들의 비율이 하위권 68.3%, 중위권 64.7%, 상위권 60.7%로 나타나 자녀들의 성적이 낮을수록

찬성 비율이 높았음.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 학부모들에게서도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났던 것으로서 9시 등교 이전에 이른 등교로 인해 생활지도를 비롯한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던 하위권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가 9시 등교 이후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 그러나 중위권과 상위권 학부모들 중에서 처음에는 반대였다가 현재는 찬성으로 변화한 학부모들이 각각 22.6%와 22.2%로 나타나 중상위권 학부모들이 9시 등교 정책 초기에 가졌던 우려의 상당 부분이 경험을 통해 해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 3-22〉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고, 학부모, 성적별)

	처음 반대		처음 찬성		합계(명)	단위: % $\chi^2$
	현재 반대	현재 찬성	현재 반대	현재 찬성		
하위권	22.9	21.4	8.7	46.9	100(1377)	47.935***
중위권	27.9	22.6	7.4	42.1	100(3610)	
상위권	33.4	22.2	5.8	38.5	100(1436)	
합계	28.1	22.2	7.3	42.3	100(6423)	

\*\*\* : p<.001, \*\* : p<.01, \* : p<.05

#### 다) 맞벌이 여부별 비교

- 맞벌이 여부를 기준으로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고등학교 학부모들의 인식을 비교해 본 결과 설문조사 시점에서 9시 등교 정책에 찬성하는 학부모들의 비율이 맞벌이 가정에서 65.7%, 외벌이 가정에서 62.4%로 나타나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9시 등교 정책에 찬성하고 있었음.
- 처음에는 반대였다가 찬성으로 변화한 학부모들의 비율이나 처음에는 찬성이었다가 반대로 변화한 학부모들의 비율은 맞벌이 여부와 별다른 관계가 없었음.

〈표 3-23〉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고, 학부모, 맞벌이 여부)

	처음 반대		처음 찬성		합계(명)	단위: % $\chi^2$
	현재 반대	현재 찬성	현재 반대	현재 찬성		
맞벌이	26.7	21.7	7.6	44.0	100(4260)	19.260***
외벌이	30.8	23.2	6.8	39.2	100(2235)	
합계	28.1	22.2	7.3	42.4	100(6495)	

\*\*\* : p<.001, \*\* : p<.01, \* : p<.05

## 라) 등교 시 보호자 재가 여부별 비교

- 자녀들이 등교할 때 보호자가 집에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고등학교 학부모들의 인식을 비교해 본 결과 설문조사 시점에서 9시 등교 정책에 찬성하는 학부모들의 비율이 보호자가 있는 가정에서 65.4%, 보호자가 없는 가정에서 61.9%로 나타나 보호자가 없는 가정의 찬성 비율이 약간 낮았음.
- 그러나 처음에는 반대였다가 찬성으로 변화한 학부모들의 비율이 보호자가 없는 가정에서도 2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가정에서 가졌던 처음의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 3-24〉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고, 학부모, 보호자 재가 여부)

	처음 반대		처음 찬성		합계(명)	단위: % $\chi^2$
	현재 반대	현재 찬성	현재 반대	현재 찬성		
보호자 재가	27.4	22.0	7.2	43.4	100(4724)	7.658
보호자 부재	29.9	22.6	7.7	39.7	100(1755)	
합계	28.1	22.2	7.3	42.4	100(64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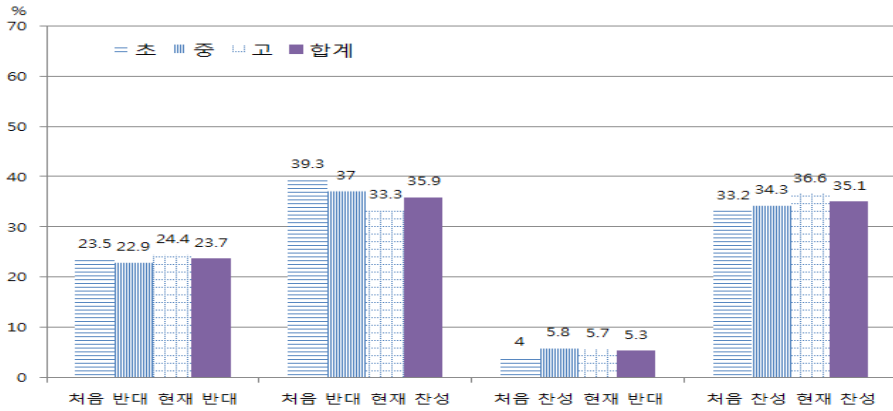
\*\*\* : p<.001, \*\* : p<.01, \* : p<.05

## 3. 교사

## 가. 학교급 간 비교

- 교사를 대상으로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설문한 결과 설문조사 시점에서 9시 등교 정책에 찬성하는 비율이 71.0%였음.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의 72.5%, 중학교 교사의 71.3%, 고등학교 교사의 69.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급과 관계없이 70% 정도의 교사가 9시 등교 정책을 찬성하고 있었음.
- 9시 등교 정책이 발표되었을 때와 현재 모두 찬성했다고 응답한 교사가 35.12%인 반면 두 시점에서 모두 반대였다고 응답한 교사는 23.7%에 그쳤으며, 처음에는 반대였다가 현재는 찬성 입장으로 변화한 교사가 35.9%인 반면 처음에는 찬성이었다가 현재는 반대 입장으로 변화한 교사는 5.3%에 그쳤음. 이러한 결과는 9시 등교 정책이

시행되면서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경험한 교사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함.



(그림 3-3)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교사)

## 나. 학교급 내 비교

### 1) 초등학교

#### 가) 경력별 비교

-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을 경력별로 비교해 본 결과 설문조사 시점에서 9시 등교 정책에 찬성하는 교사들의 비율이 5년 미만 78.5%, 5-9년 73.3%, 10-19년 71.7%, 20년 이상 68.7%로 나타나 경력이 적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음.
- 처음에는 반대였다가 찬성으로 변화한 비율이나 처음에는 찬성이었다가 반대로 변화한 교사들의 비율은 경력별로 큰 차이가 없었음.

<표 3-25>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초, 교사, 경력별)

	처음 반대		처음 찬성		합계(명)	단위: % $\chi^2$
	현재 반대	현재 찬성	현재 반대	현재 찬성		
5년 미만	15.9	37.4	5.6	41.1	100(270)	19,238*
5-9년	23.6	41.8	3.0	31.5	100(165)	
10-19년	24.4	40.0	4.0	31.7	100(505)	
20년 이상	27.8	38.8	3.5	29.9	100(371)	
합계	23.5	39.4	4.0	33.1	100(1311)	

\*\*\* : p<.001, \*\* : p<.01, \* : p<.05



## 나) 직위별 비교

- 직위를 기준으로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을 비교해 본 결과 설문조사 시점에서 9시 등교 정책에 찬성하는 교사들의 비율이 73.5%였으며, 부장, 수석 및 교장, 교감 선생님들의 68.8%가 찬성하고 있었음.
- 처음에는 반대였다가 찬성으로 변화한 비율이나 처음에는 찬성이었다가 반대로 돌아선 비율은 직위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음.

〈표 3-26〉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초, 교사, 직위별)

	단위: %				합계(명)	$\chi^2$
	처음 반대 현재 반대	처음 반대 현재 찬성	처음 찬성 현재 반대	처음 찬성 현재 찬성		
교사	21.9	38.9	4.6	34.6	100(1008)	10.722*
부장, 수석, 교감, 교장	28.8	40.7	2.3	28.1	100(302)	
합계	23.5	39.3	4.0	33.1	100(1310)	

\*\*\* : p&lt;.001, \*\* : p&lt;.01, \* : p&lt;.05

## 2) 중학교

## 가) 경력별 비교

-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중학교 교사들의 인식을 경력별로 비교해 본 결과 설문조사 시점에서 9시 등교 정책에 찬성하는 교사들의 비율이 5년 미만 73.9%, 5-9년 71.8%, 10-19년 73.3%, 20년 이상 66.4%로 나타나 20년 미만 교사들이 20년 이상 교사들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음.
- 처음에는 반대였다가 찬성으로 변화한 비율이 처음에는 찬성이었다가 반대로 돌아선 비율보다 6배 정도 높게 나타난 가운데, 처음에는 반대였다가 찬성으로 변화한 비율은 5년 미만 교사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3-27〉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중, 교사, 경력별)

	처음 반대		처음 찬성		합계(명)	단위: % $\chi^2$
	현재 반대	현재 찬성	현재 반대	현재 찬성		
5년 미만	19.6	42.9	6.6	31.0	100(378)	24.691**
5-9년	23.7	37.1	4.5	34.7	100(291)	
10-19년	20.5	33.1	6.2	40.2	100(517)	
20년 이상	28.1	36.5	5.4	29.9	100(441)	
합계	22.9	37.0	5.8	34.3	100(1627)	

\*\*\* : p&lt;.001, \*\* : p&lt;.01, \* : p&lt;.05

## 나) 직위별 비교

- 직위를 기준으로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중학교 교사들의 인식을 비교해 본 결과 설문조사 시점에서 9시 등교 정책에 찬성하는 교사들의 비율이 72.5%였으며, 부장, 수석 및 교장, 교감 선생님들의 68.2%가 찬성하고 있었음.
- 처음에는 반대였다가 찬성으로 변화한 비율이나 처음에는 찬성이었다가 반대로 돌아선 비율은 직위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음.

〈표 3-28〉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중, 교사, 직위별)

	처음 반대		처음 찬성		합계(명)	단위: % $\chi^2$
	현재 반대	현재 찬성	현재 반대	현재 찬성		
교사	21.3	37.4	6.2	35.1	100(1229)	7.710
부장, 수석, 교감, 교장	27.5	36.0	4.3	32.2	100(397)	
합계	22.8	37.1	5.7	34.4	100(1626)	

\*\*\* : p&lt;.001, \*\* : p&lt;.01, \* : p&lt;.05

## 3) 고등학교

## 가) 경력별 비교

-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을 경력별로 비교해 본 결과 설문조사 시점에서 9시 등교 정책에 찬성하는 교사들의 비율이 5년 미만 70.8%, 5-9년 71.9%, 10-19년 72.8%, 20년 이상 63.2%로 나타나 20년 미만 교사들이 20년 이상 교사들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음.

-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교사들에게서도 처음에는 반대였다가 찬성으로 변화한 비율이 처음에는 찬성이었다가 반대로 돌아선 비율보다 6배 정도 높게 나타난 가운데, 처음에는 반대였다가 찬성으로 변화한 비율은 5년 미만 교사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3-29〉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고, 교사, 경력별)

	처음 반대		처음 찬성		합계(명)	단위: % $\chi^2$
	현재 반대	현재 찬성	현재 반대	현재 찬성		
5년 미만	21.2	38.9	8.1	31.9	100(571)	45.499***
5-9년	23.3	34.9	4.8	37.0	100(516)	
10-19년	22.0	30.4	5.2	42.4	100(776)	
20년 이상	31.6	30.2	5.1	33.0	100(569)	
합계	24.3	33.3	5.8	36.6	100(2432)	

\*\*\* : p&lt;.001, \*\* : p&lt;.01, \* : p&lt;.05

## 나) 직위별 비교

- 직위를 기준으로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을 비교해 본 결과 설문조사 시점에서 9시 등교 정책에 찬성하는 교사들의 비율이 70.9%였으며, 부장, 수석 및 교장, 교감 선생님들의 65.4%가 찬성하고 있었음.
- 처음에는 반대였다가 찬성으로 변화한 비율이나 처음에는 찬성이었다가 반대로 돌아선 비율은 직위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음.

〈표 3-30〉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고, 교사, 직위별)

	처음 반대		처음 찬성		합계(명)	단위: % $\chi^2$
	현재 반대	현재 찬성	현재 반대	현재 찬성		
교사	23.4	33.6	5.7	37.3	100(2004)	5.788
부장, 수석, 교감, 교장	28.7	31.5	5.8	33.9	100(428)	
합계	24.3	33.3	5.8	36.7	100(2432)	

\*\*\* : p&lt;.001, \*\* : p&lt;.01, \* : p&lt;.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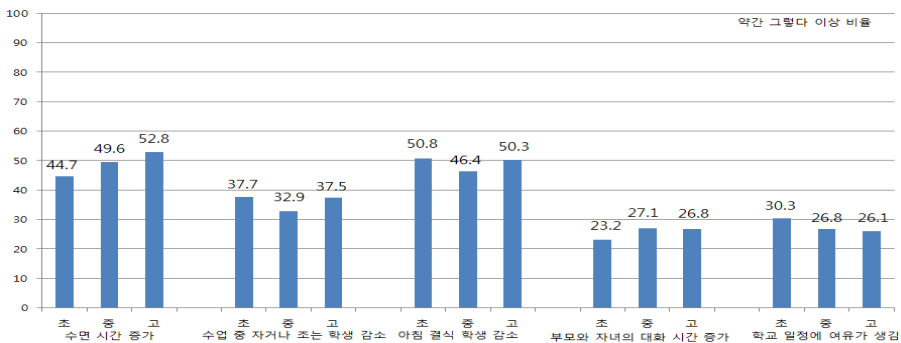
## 제2절 9시 등교 정책 관련 쟁점에 대한 인식

### 1. 학부모

#### 가. 학교급 간 비교

##### 1) 긍정적 기대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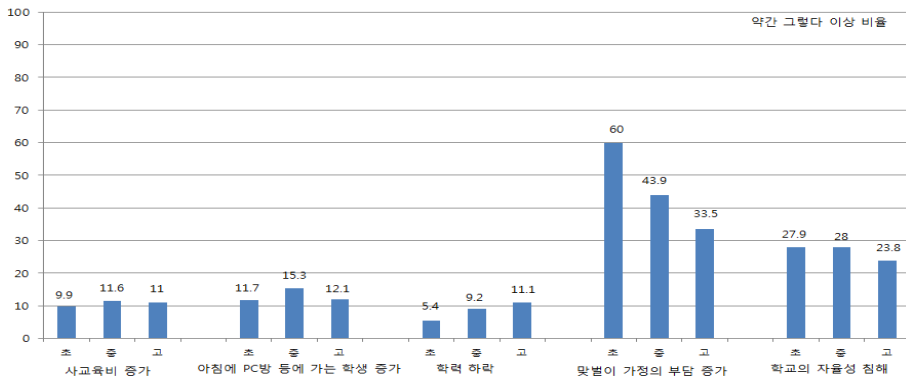
- 학부모를 대상으로 9시 등교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수면 시간이 증가할 것인지를 비롯한 다섯 개 항목을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조사하여 약간 그렇다(=4)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을 비교하였음.
- 학교급을 막론하고 아침 결식 학생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과 수면 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난 반면 부모와 자녀의 대화 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과 학교의 다른 일정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가 낮게 나타남.
- 수면 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높게 나타난 반면 부모와 자녀의 대화 시간 증가나 학교의 다른 일정이 여유롭게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는 학교급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음.
- 수업 중 자거나 조는 학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학부모의 37.7%, 중학교 학부모의 32.9%, 고등학교 학부모의 37.5%가 약간 그렇다 이상의 응답을 하였음.



(그림 3-4) 긍정적 기대에 대한 인식(학부모)

## 2) 부정적 우려에 대한 인식

- 학부모를 대상으로 9시 등교로 우려되는 점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다를 비롯한 다섯 개 항목을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조사하여 약간 그렇다(=4) 이상 응답한 비율을 비교하였음.
- 학교급을 막론하고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과 학교의 자율성이 침해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난 반면 사교육비 증가, 아침에 PC방 등에 가는 학생 증가, 학력 하락에 대해서는 10% 정도의 학부모들만이 약간 그렇다 이상의 응답을 하고 있었음.
- 초등학교 학부모 중에서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약간 그렇다 이상의 응답을 한 경우가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3-5) 부정적 우려에 대한 인식(학부모)

## 나. 학교급 내 비교

## 1) 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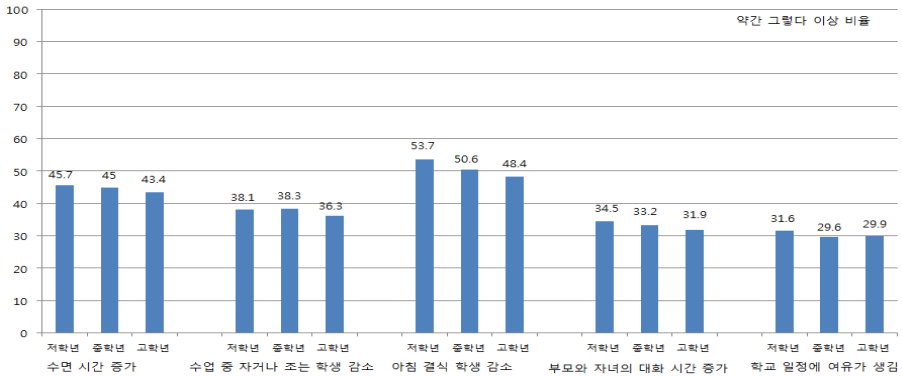
## 가) 학년별 비교

## 1) 긍정적 기대에 대한 인식

- 9시 등교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인식을 학년별로 살펴본 결과 모든 학년에서 아침 결식 학생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과 수면 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난 반면 부모와 자녀의 대화 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과 학교의 다른 일정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가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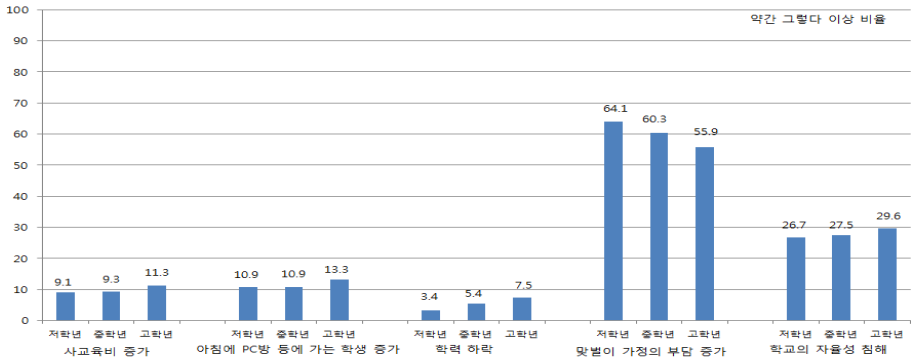
- 아침 결식 학생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학년이 낮을수록 기대가 높게 나타난 반면 여타의 항목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음.



(그림 3-6) 긍정적 기대에 대한 인식(초, 학부모, 학년별)

## 2) 부정적 우려에 대한 인식

- 학부모를 대상으로 9시 등교로 우려되는 점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학년별로 살펴본 결과 모든 학년에서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과 학교의 자율성이 침해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난 반면 사교육비 증가, 아침에 PC방 등에 가는 학생 증가, 학력 하락에 대해서는 10% 정도의 학부모들만이 약간 그렇다 이상의 응답을 하고 있었음.
- 특히 학력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학년 3.4%, 중학년 5.4%, 고학년 7.5%의 학부모들만이 약간 그렇다 이상의 응답을 하여 이와 관련된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학부모들의 우려는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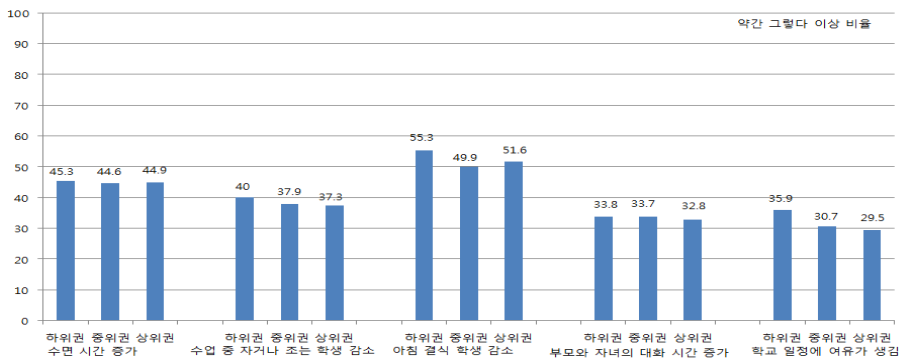


(그림 3-7) 부정적 우려에 대한 인식(초, 학부모, 학년별)

나) 성적별 비교

1) 긍정적 기대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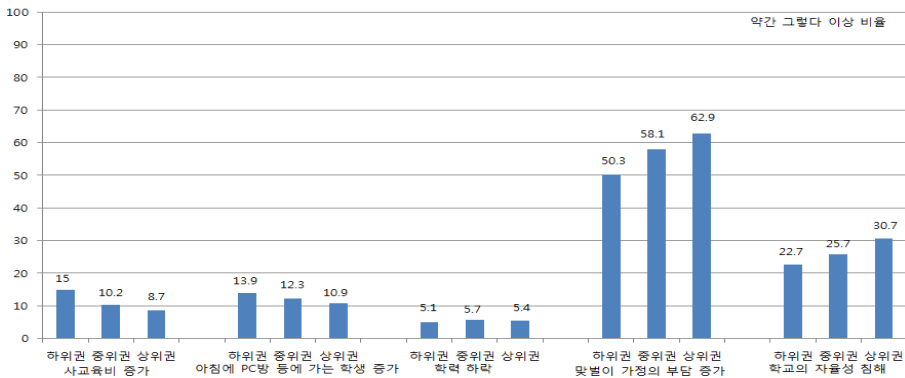
- 9시 등교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인식을 성적별로 살펴본 결과 모든 집단에서 아침 결식 학생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과 수면 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난 반면 부모와 자녀의 대화 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과 학교의 다른 일정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가 낮게 나타남.
- 아침 결식 학생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자녀의 성적이 하위권에 속하는 학부모들의 55.3%가 약간 그렇다 이상의 응답을 하였음. 반면 수업 중 자거나 조는 학생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과 학교의 다른 일정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자녀들의 성적이 낮을수록 기대가 높았음.



(그림 3-8) 긍정적 기대에 대한 인식(초, 학부모, 성적별)

## 2) 부정적 우려에 대한 인식

-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9시 등교로 우려되는 점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자녀들의 성적별로 살펴본 결과 모든 집단에서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과 학교의 자율성이 침해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난 반면 사교육비 증가, 아침에 PC방 등에 가는 학생 증가, 학력 하락에 대해서는 10% 정도의 학부모들만이 약간 그렇다 이상의 응답을 하고 있었음.
-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과 학교의 자율성이 침해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자녀들의 성적이 높을수록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비율이 높았던 반면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라거나 아침에 PC방 등에 가는 학생들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자녀들의 성적이 낮을수록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비율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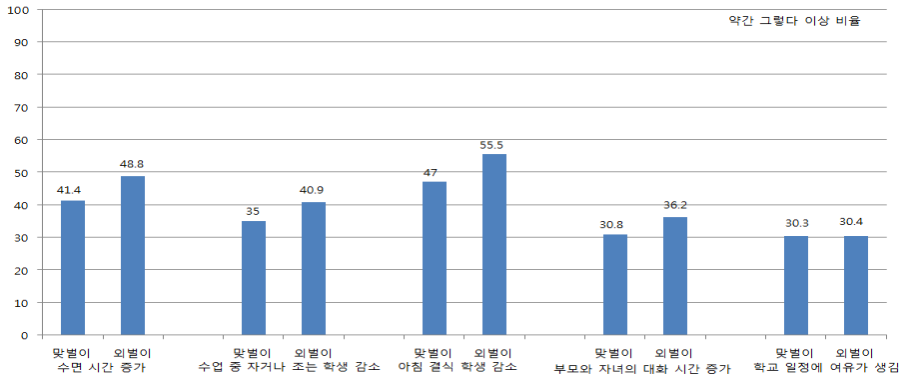
(그림 3-9) 부정적 우려에 대한 인식(초, 학부모, 성적별)

## 다) 맞벌이 여부별 비교

## 1) 긍정적 기대에 대한 인식

- 9시 등교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인식을 맞벌이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아침 결식 학생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과 수면 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기대가 높았음.
- 학교의 다른 일정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외벌이 가정의 기대가 맞벌이 가정보다 의미 있게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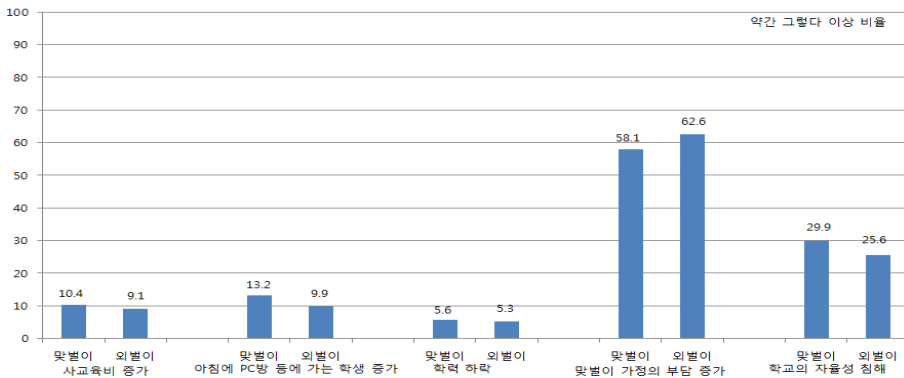




(그림 3-10) 긍정적 기대에 대한 인식(초, 학부모, 맞벌이 여부)

## 2) 부정적 우려에 대한 인식

-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9시 등교로 우려되는 점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맞벌이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과 학교의 자율성이 침해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난 반면 사교육비 증가, 아침에 PC방 등에 가는 학생 증가, 학력 하락에 대해서는 10% 정도의 학부모들만이 약간 그렇다 이상의 응답을 하고 있었음.
- 대부분의 항목에서 두 집단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지만,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증가할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외벌이 가정의 우려가 더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맞벌이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한 외벌이 가정의 상상 속 우려가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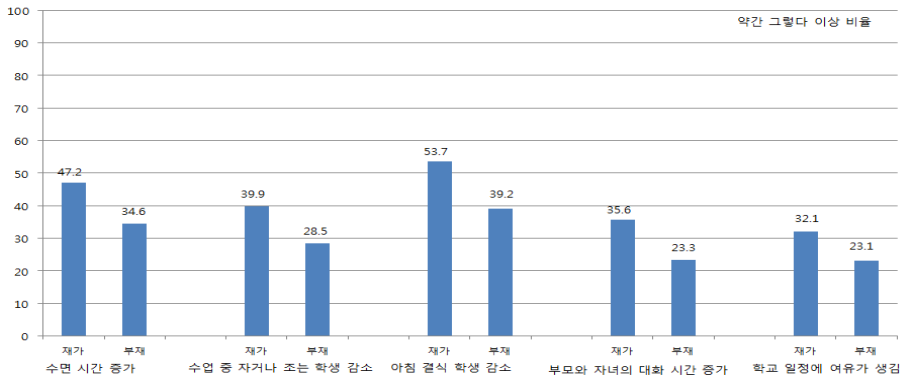


(그림 3-11) 부정적 우려에 대한 인식(초, 학부모, 맞벌이 여부)

라) 등교 시 보호자 재가 여부별 비교

1) 긍정적 기대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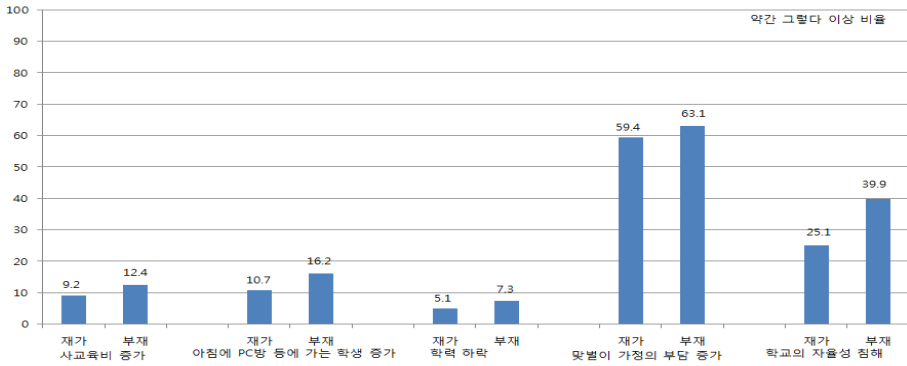
- 9시 등교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인식을 등교 시 보호자가 집에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아침 결식 학생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과 수면 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기대가 높았음.
- 수면 시간 증가를 비롯한 모든 항목에서 자녀 등교 시 보호자가 있는 가정의 기대가 없는 가정보다 의미 있게 높았음.



(그림 3-12) 긍정적 기대에 대한 인식(초, 학부모, 보호자 재가 여부)

2) 부정적 우려에 대한 인식

-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9시 등교로 우려되는 점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등교 시 보호자 재가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과 학교의 자율성이 침해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난 반면 사교육비 증가, 아침에 PC방 등에 가는 학생 증가, 학력 하락에 대해서는 10% 정도의 학부모들만이 약간 그렇다 이상의 응답을 하고 있었음. 특히 학력 하락에 대한 우려는 두 집단 모두에서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부모들만이 약간 그렇다 이상의 우려를 하고 있었음.
- 모든 항목에서 등교 시 보호자가 집에 없는 집단의 우려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두 집단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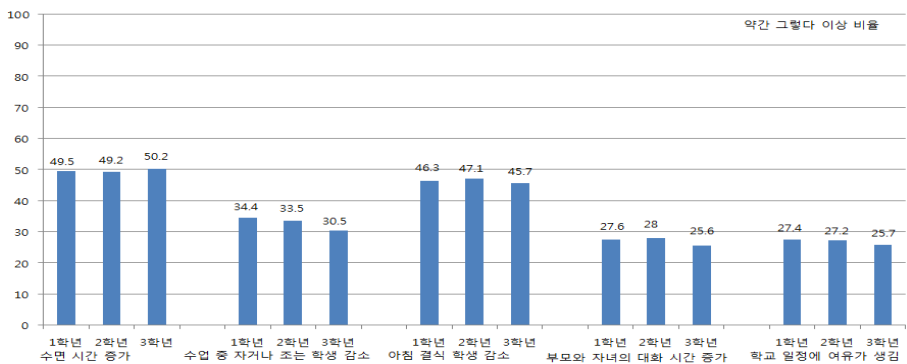
(그림 3-13) 부정적 우려에 대한 인식(초, 학부모, 보호자 재가 여부)

## 2) 중학교

### 가) 학년별 비교

#### 1) 긍정적 기대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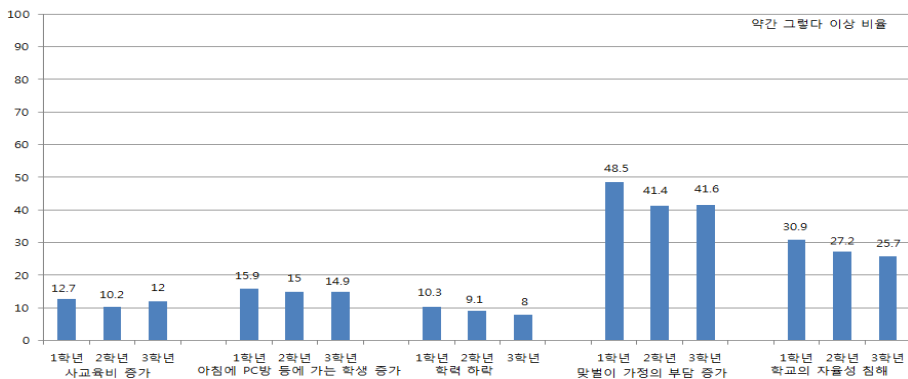
- 9시 등교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중학교 학부모들의 인식을 학년별로 살펴본 결과 모든 학년에서 수면 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과 아침 결식 학생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난 반면 부모와 자녀의 대화 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과 학교의 다른 일정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가 낮게 나타남.
- 수업 중 자거나 조는 학생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1학년 학부모들이 3학년 학부모보다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여타의 항목에서는 학년별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음.



(그림 3-14) 긍정적 기대에 대한 인식(중, 학부모, 학년별)

## 2) 부정적 우려에 대한 인식

- 중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9시 등교로 우려되는 점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학년별로 살펴본 결과 모든 학년에서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과 학교의 자율성이 침해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난 반면 사교육비 증가, 학력 하락에 대해서는 10% 정도의 학부모들만이 약간 그렇다 이상의 응답을 하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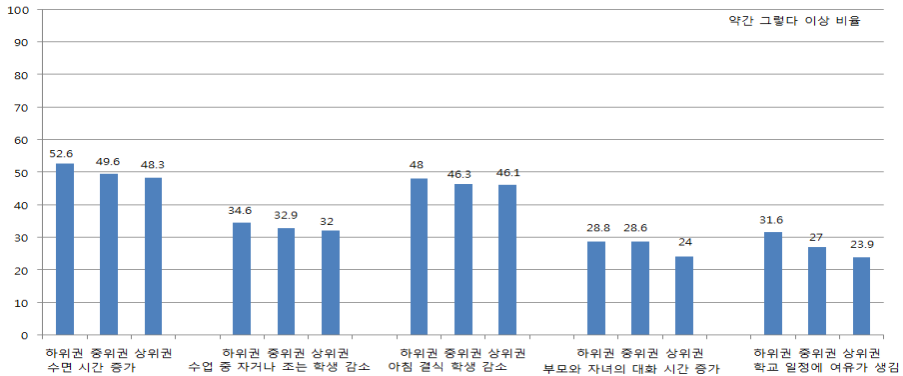


(그림 3-15) 부정적 우려에 대한 인식(중, 학부모, 학년별)

## 나) 성적별 비교

## 1) 긍정적 기대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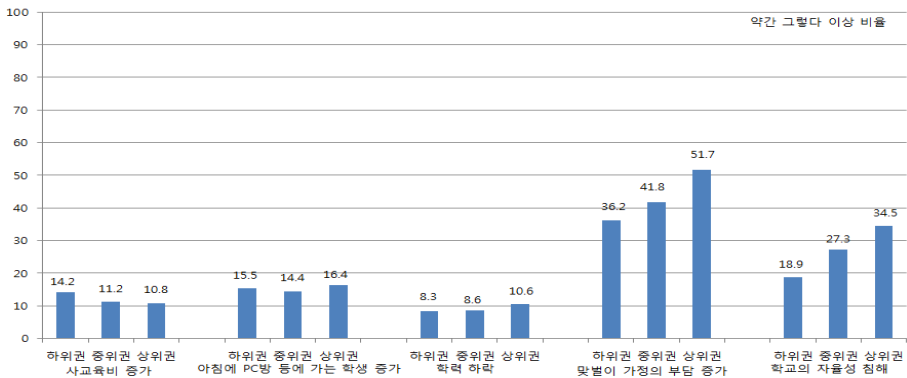
- 9시 등교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중학교 학부모들의 인식을 성적별로 살펴본 결과 모든 집단에서 수면 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과 아침 결석 학생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난 반면 부모와 자녀의 대화 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과 학교의 다른 일정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가 낮게 나타남.
- 전체적으로 자녀의 성적이 하위권에 속하는 학부모들의 기대가 중위권이나 상위권에 속하는 학부모들의 기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의 다른 일정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음.



(그림 3-16) 긍정적 기대에 대한 인식(중, 학부모, 성적별)

## 2) 부정적 우려에 대한 인식

- 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9시 등교로 우려되는 점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자녀들의 성적별로 살펴본 결과 모든 집단에서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과 학교의 자율성이 침해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난 반면 사교육비 증가, 아침에 PC방 등에 가는 학생 증가, 학력 하락에 대해서는 10% 정도의 학부모들만이 약간 그렇다 이상의 응답을 하고 있었음.
-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과 학교의 자율성이 침해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자녀들의 성적이 높을수록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비율이 높았던 반면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하위권 학부모들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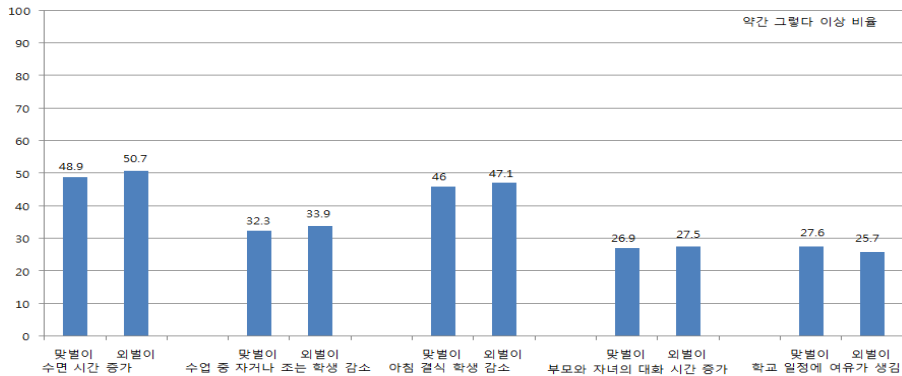


(그림 3-17) 부정적 우려에 대한 인식(중, 학부모, 성적별)

## 다) 맞벌이 여부별 비교

### 1) 긍정적 기대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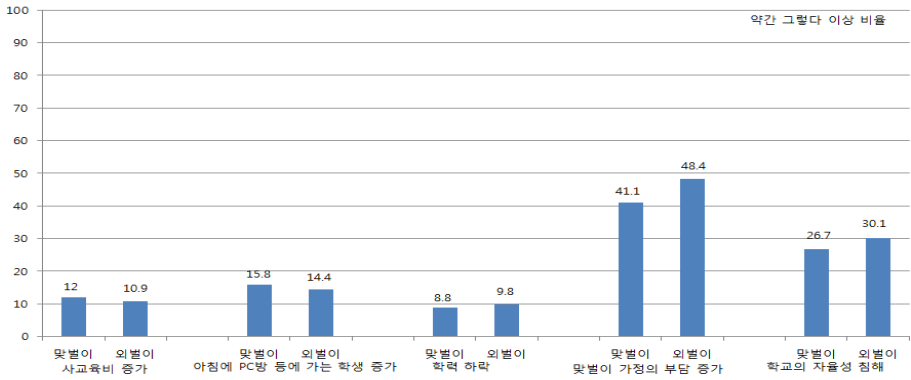
- 9시 등교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중학교 학부모들의 인식을 맞벌이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수업 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과 아침 결식 학생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기대가 높았음.
- 모든 항목에서 두 집단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음.



(그림 3-18) 긍정적 기대에 대한 인식(중, 학부모, 맞벌이 여부)

### 2) 부정적 우려에 대한 인식

- 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9시 등교로 우려되는 점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맞벌이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과 학교의 자율성이 침해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난 반면 사교육비 증가, 아침에 PC방 등에 가는 학생 증가, 학력 하락에 대해서는 10% 정도의 학부모들만이 약간 그렇다 이상의 응답을 하고 있었음.
- 대부분의 항목에서 두 집단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지만,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증가할 것에 대해서는 외벌이 가정의 우려가 더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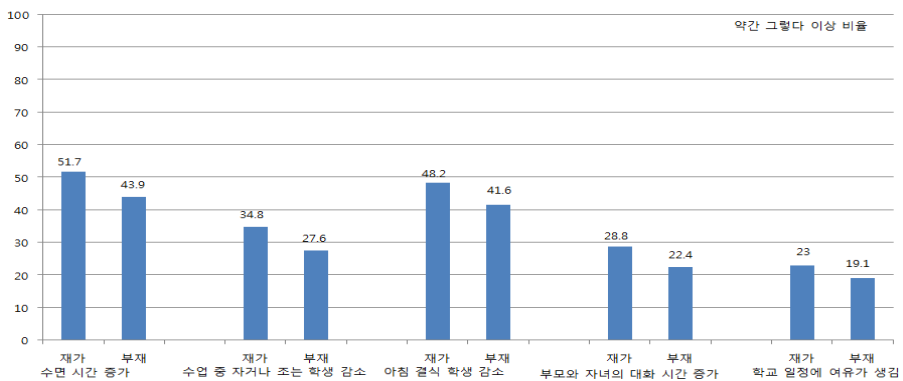


(그림 3-19) 부정적 우려에 대한 인식(중, 학부모, 맞벌이 여부)

라) 등교 시 보호자 재가 여부별 비교

1) 긍정적 기대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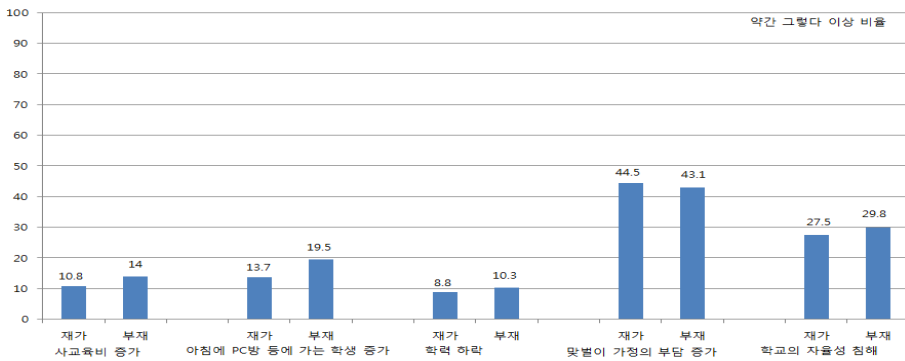
- 9시 등교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중학교 학부모들의 인식을 등교 시 보호자가 집에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수면 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과 아침 결식 학생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기대가 높았음.
- 수면 시간 증가를 비롯한 모든 항목에서 자녀 등교 시 보호자가 있는 가정의 기대가 없는 가정보다 의미 있게 높았음.



(그림 3-20) 긍정적 기대에 대한 인식(중, 학부모, 보호자 재가 여부)

## 2) 부정적 우려에 대한 인식

- 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9시 등교로 우려되는 점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등교 시 보호자 재가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과 학교의 자율성이 침해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난 반면 사교육비 증가, 아침에 PC방 등에 가는 학생 증가, 학력 하락에 대해서는 10% 정도의 학부모들만이 약간 그렇다 이상의 응답을 하고 있었음. 특히 학력 하락에 대한 우려는 두 집단 모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음.
-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등교 시 보호자가 집에 없는 집단의 우려가 높게 나타났으며,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과 아침에 pc방 등에 가는 학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두 집단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음.



(그림 3-21) 부정적 우려에 대한 인식(중, 학부모, 보호자 재가 여부)

## 3) 고등학교

### 가) 학년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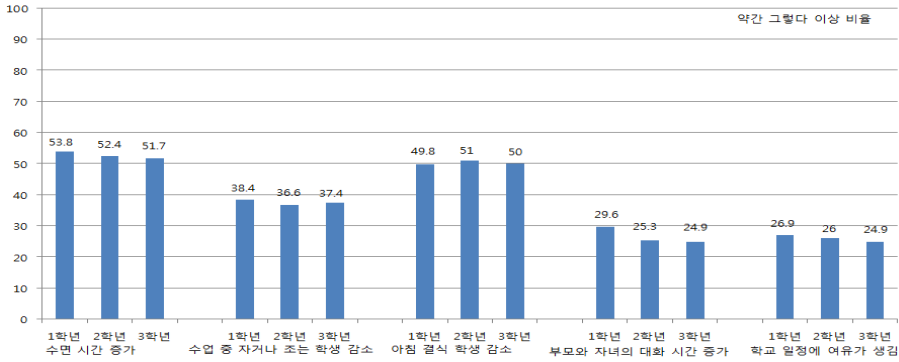
#### 1) 긍정적 기대에 대한 인식

- 9시 등교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고등학교 학부모들의 인식을 학년별로 살펴본 결과 모든 학년에서 수면 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과 아침 결식 학생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난 반면 부모와 자녀의 대화 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과 학교의 다른 일정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가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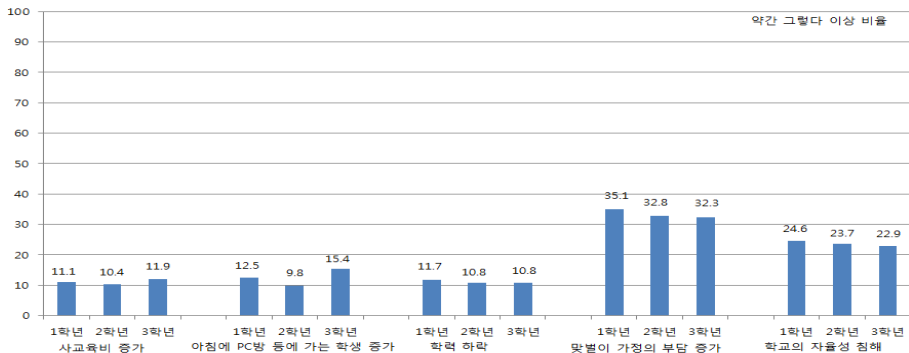
- 모든 항목에서 학년별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음.



(그림 3-22) 긍정적 기대에 대한 인식(고, 학부모, 학년별)

## 2) 부정적 우려에 대한 인식

- 고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9시 등교로 우려되는 점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학년별로 살펴본 결과 모든 학년에서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과 학교의 자율성이 침해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난 반면 사교육비 증가, 학력 하락에 대해서는 10% 정도의 학부모들만이 약간 그렇다 이상의 응답을 하고 있었음.
- 아침에 PC방 등에 가는 학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3학년 학부모들의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1학년 학부모들의 동의 정도가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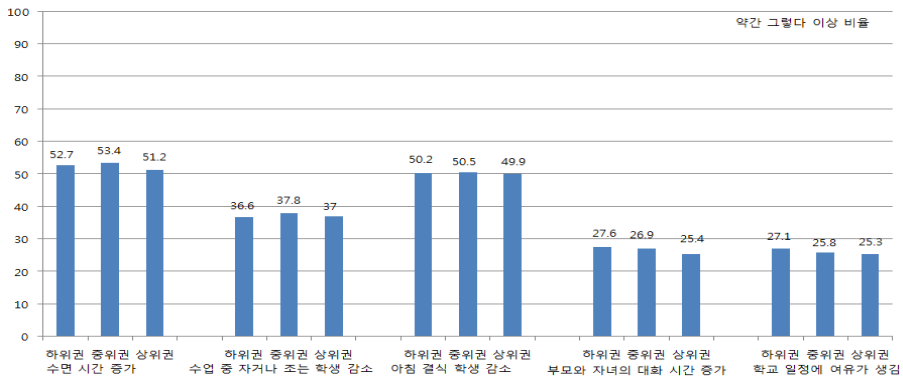


(그림 3-23) 부정적 우려에 대한 인식(고, 학부모, 학년별)

나) 성적별 비교

1) 긍정적 기대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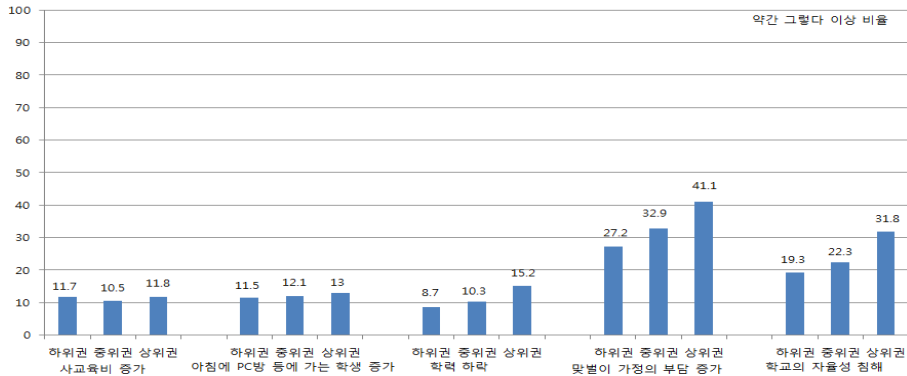
- 9시 등교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고등학교 학부모들의 인식을 자녀들의 성적별로 살펴본 결과 모든 집단에서 수면 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과 아침 결식 학생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난 반면 부모와 자녀의 대화 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과 학교의 다른 일정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가 낮게 나타남.
- 모든 항목에서 자녀의 성적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음.



(그림 3-24) 긍정적 기대에 대한 인식(고, 학부모, 성적별)

2) 부정적 우려에 대한 인식

- 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9시 등교로 우려되는 점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자녀들의 성적별로 살펴본 결과 모든 집단에서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과 학교의 자율성이 침해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난 반면 사교육비 증가, 아침에 PC방 등에 가는 학생 증가, 학력 하락에 대해서는 10% 정도의 학부모들만이 약간 그렇다 이상의 응답을 하고 있었음.
- 학력이 하락할 것이라는 점과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 학교의 자율성이 침해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자녀들의 성적이 높을수록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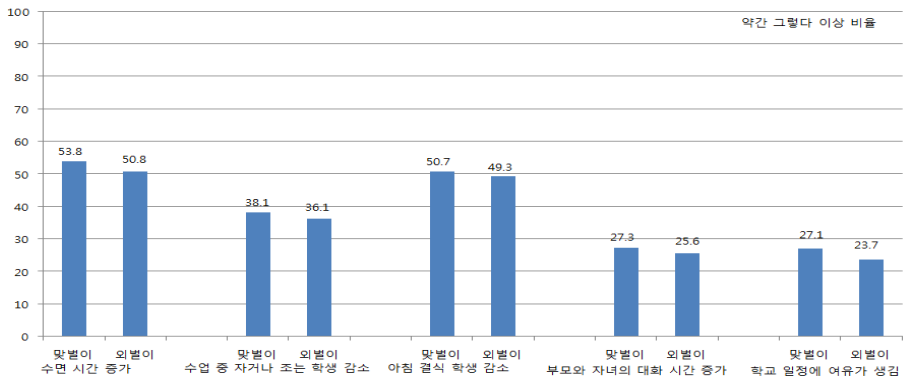


(그림 3-25) 부정적 우려에 대한 인식(고, 학부모, 성적별)

다) 맞별이 여부별 비교

1) 긍정적 기대에 대한 인식

- 9시 등교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고등학교 학부모들의 인식을 맞별이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수면 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과 아침 결식 학생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기대가 높았음.
- 모든 항목에서 맞별이 가정의 기대가 높게 나타났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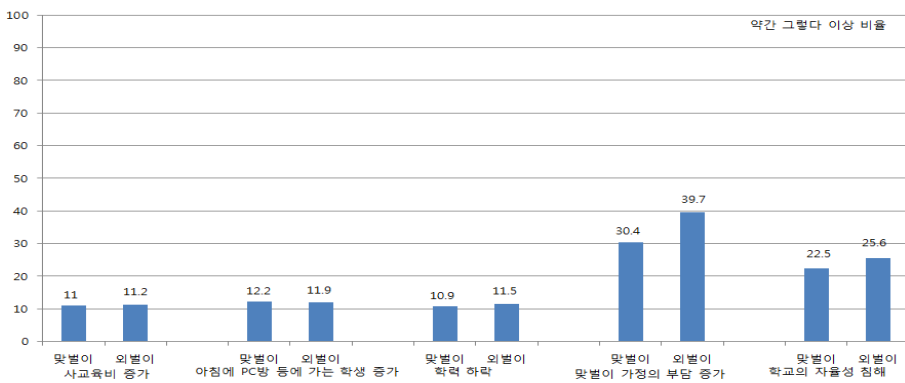
(그림 3-26) 긍정적 기대에 대한 인식(고, 학부모, 맞별이 여부)

2) 부정적 우려에 대한 인식

- 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9시 등교로 우려되는 점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맞벌이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과 학교의 자율성이 침해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난 반면 여타의 항목에 대해서는 10% 정도의 학부모들만이 약간 그렇다 이상의 응답을 하고 있었음.

- 대부분의 항목에서 두 집단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지만,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증가할 것에 대해서는 외벌이 가정의 우려가 더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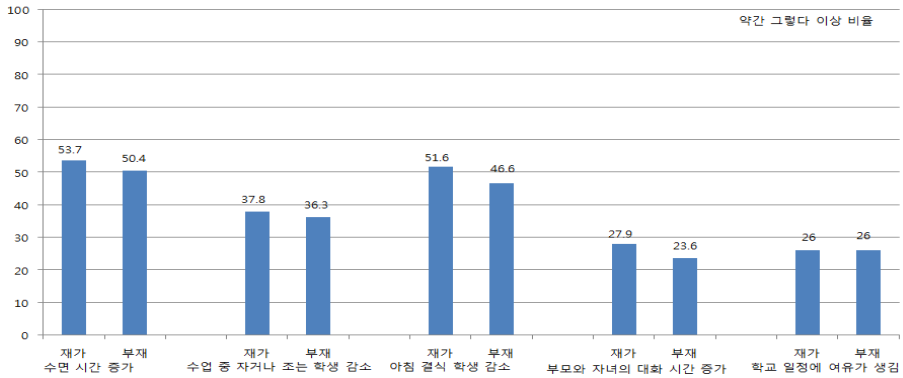


(그림 3-27) 부정적 우려에 대한 인식(고, 학부모, 맞벌이 여부)

## 라) 등교 시 보호자 재가 여부별 비교

### 1) 긍정적 기대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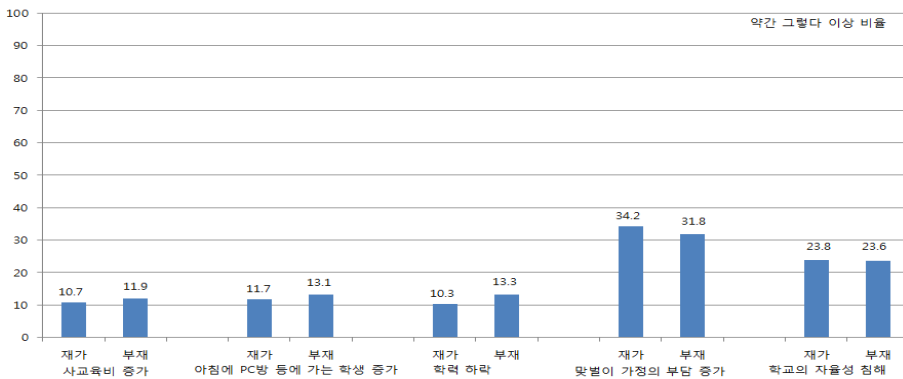
- 9시 등교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고등학교 학부모들의 인식을 등교 시 보호자가 집에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수면 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과 아침 결식 학생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기대가 높았음.
- 대부분의 항목에서 보호자가 있는 가정의 기대가 없는 가정보다 높았으며, 아침 결식 학생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음.



(그림 3-28) 긍정적 기대에 대한 인식(고, 학부모, 보호자 재가 여부)

## 2) 부정적 우려에 대한 인식

- 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9시 등교로 우려되는 점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등교 시 보호자 재가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과 학교의 자율성이 침해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난 반면 여타의 항목에서는 10% 정도의 학부모들만이 약간 그렇다 이상의 응답을 하고 있었음.
- 학력이 하락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부재한 가정의 우려가 높게 나타난 반면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있는 가정의 우려가 더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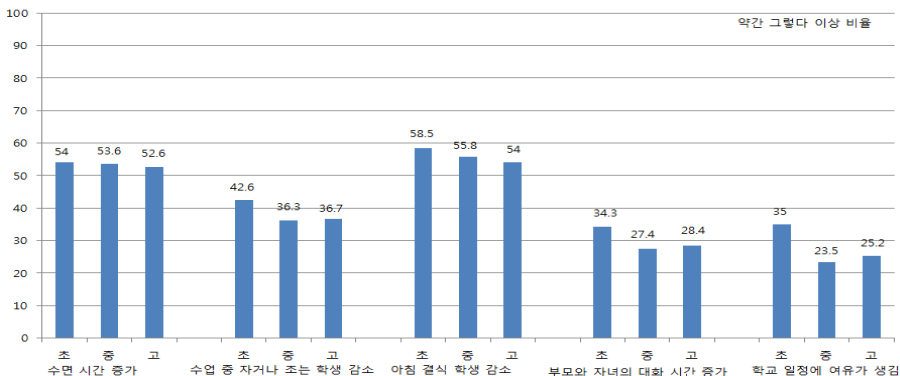


(그림 3-29) 부정적 우려에 대한 인식(고, 학부모, 보호자 재가 여부)

## 2. 교사

### 가. 긍정적 기대에 대한 인식

- 교사를 대상으로 9시 등교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학교급별로 살펴본 결과 학교급을 막론하고 아침 결식 학생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과 수면 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난 반면 부모와 자녀의 대화 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과 학교의 다른 일정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가 낮게 나타남.
- 대체로 초등학교 교사들이 중·고등학교 교사들에 비해 긍정적인 인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수면 시간 증가를 제외한 여타의 항목에서는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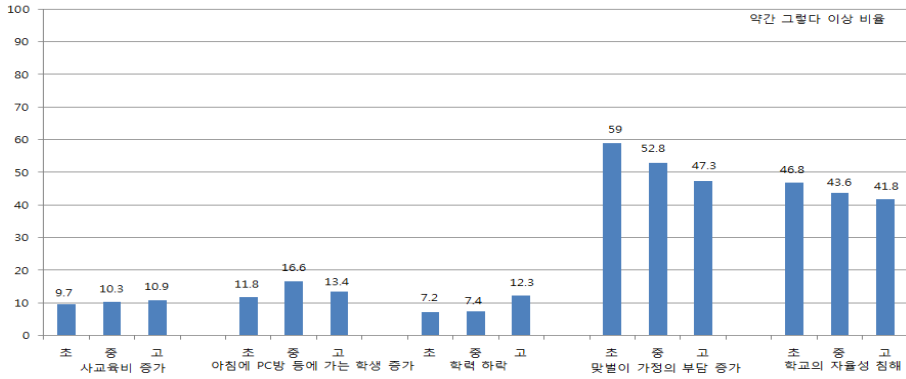


(그림 3-30) 긍정적 기대에 대한 인식(교사)

### 나. 부정적 우려에 대한 인식

- 교사를 대상으로 9시 등교로 우려되는 점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학교급별로 살펴본 결과 학교급을 막론하고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과 학교의 자율성이 침해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난 반면 여타의 항목에 대해서는 10% 정도의 교사들만이 약간 그렇다 이상의 응답을 하고 있었음.
-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과 학교의 자율성이 침해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학교급이 낮을수록 우려하는 교사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아침에 PC방 등에 가는 학생들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중학교 교사들이, 학력이 하락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우려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그림 3-31) 부정적 우려에 대한 인식(교사)





## 제4장

# 9시 등교 정책의 효과 분석

- 제1절 수면시간의 변화
- 제2절 학교생활의 변화
- 제3절 가정생활의 변화
- 제4절 공부시간의 변화
- 제5절 건강 상태의 변화
- 제6절 수업분위기 및 학교에 대한 태도의 변화



## 제4장

# 9시 등교 정책의 효과 분석

## 제1절 수면시간의 변화

### 1. 학교급별 비교

#### 가. 잠드는 시간

- 9시 등교에 따른 수면 시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9시 등교 이전과 이후 잠드는 시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학교급별로 비교해 보았음.
- 초등학생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10.64시(약 10시 38분)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10.69시(약 10시 41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10.52시(약 10시 31분)에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9시 등교 이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약 3분 정도 늦게 잠자리에 들지만,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약 7분 정도 일찍 잠자리에 들고 있었음.
- 중학생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11.53시(약 11시 32분)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11.67시(약 11시 40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11.43시(약 11시 26분)에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학생의 경우에는 9시 등교 이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약 8분 정도 늦게 잠자리에 들지만,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약 6분 정도 일찍 잠자리에 들고 있었음.
- 고등학생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12.41시(약 12시 25분)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12.56시(약 12시 34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12.58시(약 12시 35분)에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9시 등교 이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약 9분 정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약 10분 정도 늦게 잠자리에 들고 있었음.

〈표 4-1〉 잠드는 시간(학교급별)

집단	9시 등교 이전			9시 등교 이후						T (이전-이후)
				아침프로그램 참여하지 않는 날			아침프로그램 참여하는 날			
	N	M	SD	N	M	SD	N	M	SD	
초등학교	3628	10.64	.912	2844	10.69	.943	1252	10.52	.994	-4,144*** 2,792**
중학교	4626	11.53	1.023	3959	11.67	1.068	763	11.43	1.112	-12,821*** -1,477
고등학교	4668	12.41	1.005	3995	12.56	1.035	1123	12.58	1.002	-13,916*** -4,729***
합계	12922	11.60	1.214	10798	11.74	1.260	3138	11.48	1.361	-18,588*** -,1819

\*\*\* :  $p < .001$ , \*\* :  $p < .01$ , \* :  $p < .05$

## 나. 일어나는 시간

-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의 경우 초등학생은 9시 등교 이전에는 7.39시(약 7시 23분)였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7.60시(약 7시 36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7.49시(약 7시 29분)였음. 따라서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9시 등교 이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약 13분 정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약 6분 정도 늦게 일어나고 있었음.
- 중학생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7.12시(약 7시 7분)에 일어났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7.54시(약 7시 32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7.26시(약 7시 16분)에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중학생의 경우에는 9시 등교 이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약 25분 정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약 9분 정도 늦게 일어나고 있었음.
- 고등학생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6.68시(약 6시 41분)에 일어났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7.36시(약 7시 22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6.90시(약 6시 54분)에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9시 등교 이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약 41분 정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약 13분 정도 늦게 일어나고 있었음.

〈표 4-2〉 일어나는 시간(학교급별)

집단	9시 등교 이후									T (이전-이후)
	9시 등교 이전			아침프로그램 참여하지 않는 날			아침프로그램 참여하는 날			
	N	M	SD	N	M	SD	N	M	SD	
초등학교	3622	7.39	.516	2803	7.60	.522	1223	7.49	.545	-30.417*** -12.960***
중학교	4630	7.12	.533	3963	7.54	.540	771	7.26	.562	-64.860*** -13.279***
고등학교	4678	6.68	.522	4022	7.36	.604	1126	6.90	.572	-91.636*** -18.086***
합계	12930	7.04	.598	10788	7.49	.570	3120	7.22	.615	-104.428*** -25.571***

\*\*\* : p(<.001, \*\* : p(<.01, \* : p(<.05

#### 다. 총수면시간

- 총수면시간(일어나는 시간과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의 차이)의 경우 초등학생은 9시 등교 이전에는 8.76시간(약 8시간 46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8.89시간(약 8시간 53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8.92시간(약 8시간 55분)이었음. 따라서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9시 등교 이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약 7분 정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약 9분 정도 수면시간이 증가했음.
- 중학생의 수면시간은 9시 등교 이전에는 7.59시간(약 7시간 35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7.87시간(약 7시간 52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7.82시간(약 7시간 49분)이었음. 따라서 중학생의 경우에는 9시 등교 이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약 17분 정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약 14분 정도 수면시간이 증가했음.
- 고등학생의 수면시간은 9시 등교 이전에는 6.27시간(약 6시간 16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6.79시간(약 6시간 47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6.31시간(약 6시간 19분)이었음. 따라서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9시 등교 이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약 31분 정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약 3분 정도 수면시간이 증가했음.

〈표 4-3〉 총수면시간(학교급별)

집단	9시 등교 이후									T (이전-이후)
	9시 등교 이전			아침프로그램 참여하지 않는 날			아침프로그램 참여하는 날			
	N	M	SD	N	M	SD	N	M	SD	
초등학교	3612	8.76	.931	2788	8.89	.974	1210	8.92	1.044	-12.380*** -8.233***
중학교	4603	7.59	1.049	3982	7.87	1.069	750	7.82	1.139	-26.820*** -6.693***
고등학교	4640	6.27	1.061	3962	6.79	1.090	1102	6.31	1.066	-40.543*** -7.091***
합계	12855	7.44	1.427	10682	7.74	1.339	3062	7.72	1.563	-47.605*** -12.703***

\*\*\* :  $p < .001$ , \*\* :  $p < .01$ , \* :  $p < .05$

## 2. 학교급 내 비교

### 가. 초등학생

#### 1) 잠드는 시간

- 잠자리에 드는 시간의 경우, 학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4학년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10.38시(약 10시 23분)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10.38시(약 10시 23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10.27시(약 10시 16분)에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음. 5학년의 경우에는 9시 등교 이전에는 10.65시(약 10시 39분)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10.68시(약 10시 41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10.54시(약 10시 32분)에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음. 6학년의

- 경우에는 9시 등교 이전에는 10.88시(약 10시 53분)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10.97시(약 10시 58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10.79시(약 10시 47분)에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성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위권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10.84시(약 10시 50분)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10.72시(약 10시 43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10.60시(약 10시 36분)에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음. 중위권의 경우에는 9시 등교 이전에는 10.61시(약 10시 37분)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10.68시(약 10시 41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10.51시(약 10시 31분)에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음. 상위권의 경우에는 9시 등교 이전에는 10.62시(약 10시 37분)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10.69시(약 10시 41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10.52시(약 10시 31분)에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음.
  - 맞벌이 여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맞벌이 가정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10.64시(약 10시 38분)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10.70시(약 10시 42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10.54시(약 10시 32분)에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음. 외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9시 등교 이전에는 10.63시(약 10시 38분)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10.67시(약 10시 40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10.50시(약 10시 30분)에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음.
  - 등교 시 보호자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호자가 있는 가정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10.63시(약 10시 38분)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10.71시(약 10시 43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10.54시(약 10시 32분)에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음. 보호자가 없는 가정의 경우에는 9시 등교 이전에는 10.68시(약 10시 41분)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10.64시(약 10시 38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10.45시(약 10시 27분)에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4-4〉 잠드는 시간(초등학생)

항목	집단	9시 등교 이후									T (이전- 이후)
		9시 등교 이전			아침프로그램 참여하지 않는 날			아침프로그램 참여하는 날			
		N	M	SD	N	M	SD	N	M	SD	
학년별	4학년	1213	10.38	.817	882	10.38	.855	402	10.27	.855	-515 2,324*
	5학년	1226	10.65	.916	988	10.68	.919	494	10.54	1.048	-2,701** 1,422
	6학년	1187	10.88	.933	973	10.97	.958	355	10.79	.995	-3,843*** .974
성적별	하위권	355	10.84	1.172	247	10.72	1.188	100	10.60	1.163	1.909 2,123*
	중위권	1739	10.61	.879	1363	10.68	.929	594	10.51	1.032	-3,425** 2,684**
	상위권	1495	10.62	.872	1209	10.69	.891	546	10.52	.923	-4,295*** .361
맞벌이 여부별	맞벌이	2214	10.64	.913	1709	10.70	.952	801	10.54	.989	-3,695*** 1,919
	외벌이	1393	10.63	.912	1121	10.67	.928	446	10.50	.999	-2,112* 1,976*
등교시 보호자 재가 여부별	재가	2770	10.63	.899	2194	10.71	.919	983	10.54	.979	-5,075*** 1,210
	부재	809	10.68	.954	614	10.64	1.021	253	10.45	1.057	.400 3,226**

\*\*\* :  $p < .001$ , \*\* :  $p < .01$ , \* :  $p < .05$ 

## 2) 일어나는 시간

- 일어나는 시간의 경우, 학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4학년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7.43시(약 7시 26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7.61시(약 7시 37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7.53시(약 7시 32분)로 나타났음. 5학년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7.38시(약 7시 23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7.59시(약 7시 35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7.48시(약 7시 29분)로 나타났음. 6학년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7.37시(약 7시 22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7.61시(약 7시 37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7.47시(약 7시 28분)로 나타났음.



- 성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위권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7.41시(약 7시 25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7.58시(약 7시 35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7.50시(약 7시 30분)로 나타났음. 중위권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7.40시(약 7시 28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7.60시(약 7시 36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7.49시(약 7시 29분)로 나타났음. 상위권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7.39시(약 7시 23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7.60시(약 7시 36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7.49시(약 7시 29분)로 나타났음.
- 맞벌이 여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맞벌이 가정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7.37시(약 7시 22분)에 일어났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7.57시(약 7시 34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7.48시(약 7시 29분)에 일어나고 있었음. 외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9시 등교 이전에는 7.43시(약 7시 26분)에 일어났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7.65시(약 7시 39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7.50시(약 7시 30분)에 일어나고 있었음.
- 등교 시 보호자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호자가 있는 가정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7.41시(약 7시 25분)에 일어났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7.63시(약 7시 38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7.51시(약 7시 31분)에 일어나고 있었음. 보호자가 없는 가정의 경우에는 9시 등교 이전에는 7.34시(약 7시 20분)에 일어났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7.49시(약 7시 29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7.44시(약 7시 26분)에 일어나고 있었음.

〈표 4-5〉 일어나는 시간(초등학생)

항목	집단	9시 등교 이후									T (이전- 이후)
		9시 등교 이전			아침프로그램 참여하지 않는 날			아침프로그램 참여하는 날			
		N	M	SD	N	M	SD	N	M	SD	
학년별	4학년	1212	7.43	.490	871	7.61	.532	393	7.53	.555	-14.444*** -7.613***
	5학년	1224	7.38	.526	965	7.59	.503	477	7.48	.551	-17.805*** -7.648***
	6학년	1184	7.37	.529	966	7.61	.532	352	7.47	.525	-20.440*** -7.292***

항목	집단	9시 등교 이후									T (이전- 이후)
		9시 등교 이전			아침프로그램 참여하지 않는 날			아침프로그램 참여하는 날			
		N	M	SD	N	M	SD	N	M	SD	
성적별	하위권	349	7.41	.598	232	7.58	.616	93	7.50	.591	-8.163*** -3.476**
	중위권	1745	7.40	.522	1353	7.60	.523	583	7.49	.546	-20.578*** -8.682***
	상위권	1489	7.39	.484	1195	7.60	.496	536	7.49	.533	-21.008*** -8.793
맞벌이 여부별	맞벌이	2209	7.37	.504	1691	7.57	.513	782	7.48	.535	-22.693*** -11.153***
	외벌이	1392	7.43	.533	1098	7.65	.534	436	7.50	.564	-20.212*** -6.638***
등교시 보호자 재가 여부별	재가	2764	7.41	.512	2165	7.63	.513	966	7.51	.531	-28.292*** -12.091***
	부재	809	7.34	.522	604	7.49	.533	241	7.44	.601	-11.566*** -4.725***

\*\*\* : p<.001, \*\* : p<.01, \* : p<.05

### 3) 총수면시간

- 총수면시간의 경우, 학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4학년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9.05시간(약 9시간 3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9.21시간(약 9시간 13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9.24시간(약 9시간 14분)으로 나타났음. 5학년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8.74시간(약 8시간 44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과 참여하는 날 모두 8.88시간(약 8시간 53분)으로 나타났음. 6학년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8.49시간(약 8시간 29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8.63시간(약 8시간 38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8.64시간(약 8시간 38분)으로 나타났음.
- 성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위권의 경우 총수면시간이 9시 등교 이전에는 8.57시간(약 8시간 34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8.78시간(약 8시간 47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8.77시간(약 8시간 46분)으로 나타났음. 중위권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8.79시간(약 8시간 47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8.91시간(약 8시간 55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8.94시간(약 8시간 56분)으로 나타났음.

상위권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8.77시간(약 8시간 46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8.90시간(약 8시간 54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8.94시간(약 8시간 56분)으로 나타났음.

- 맞벌이 여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총수면시간이 맞벌이 가정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8.73시간(약 8시간 44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8.85시간(약 8시간 51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8.90시간(약 8시간 54분)이었음. 외벌이 가정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8.81시간(약 8시간 49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8.96시간(약 8시간 58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8.97시간(약 8시간 58분)이었음.
- 등교 시 보호자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호자가 있는 가정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8.79시간(약 8시간 47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8.92시간(약 8시간 55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8.93시간(약 8시간 56분)이었음. 보호자가 없는 가정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8.66시간(약 8시간 40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8.83시간(약 8시간 50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8.90시간(약 8시간 54분)이었음.

〈표 4-6〉 총수면시간(초등학생)

항목	집단	9시 등교 이후									T (이전- 이후)
		9시 등교 이전			아침프로그램 참여하지 않는 날			아침프로그램 참여하는 날			
		N	M	SD	N	M	SD	N	M	SD	
학년별	4학년	1209	9.05	.860	864	9.21	.895	387	9.24	.962	-7.588*** -5.380***
	5학년	1221	8.74	.914	963	8.88	.938	475	8.88	1.056	-6.453*** -4.617***
	6학년	1180	8.49	.934	960	8.63	.997	347	8.64	1.025	-7.393*** -4.233***
성적별	하위권	349	8.57	1.195	231	8.78	1.249	91	8.77	1.360	-4.099*** -2.468*
	중위권	1736	8.79	.906	1342	8.91	.958	575	8.94	1.081	-8.446*** -5.998***
	상위권	1488	8.77	.883	1192	8.90	.928	533	8.94	.939	-7.934*** -5.111***

항목	집단	9시 등교 이후									T (이전- 이후)
		9시 등교 이전			아침프로그램 참여하지 않는 날			아침프로그램 참여하는 날			
		N	M	SD	N	M	SD	N	M	SD	
맞벌이 여부별	맞벌이	2205	8.73	.931	1683	8.85	.991	775	8.90	1.055	-9.092***
	외벌이	1386	8.81	.932	1091	8.96	.942	430	8.97	1.020	-6.798***
등교시 보호자 재가 여부별	재가	1756	8.79	.912	2155	8.92	.937	957	8.93	1.016	-8.319***
	부재	807	8.66	.980	599	8.83	1.088	237	8.90	1.166	-4.522***
											-11.016***
											-7.027***
											-5.653***
											-4.137***

\*\*\* : p<.001, \*\* : p<.01, \* : p<.05

## 나. 중학생

### 1) 잠드는 시간

- 중학생들의 잠드는 시간을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11.24시(약 11시 14분)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11.38시(약 11시 23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11.11시(약 11시 7분)에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음. 2학년의 경우에는 9시 등교 이전에는 11.53시(약 11시 32분)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11.70시(약 11시 42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11.44시(약 11시 26분)에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음. 3학년의 경우에는 9시 등교 이전에는 11.83시(약 11시 50분)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11.94시(약 11시 56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11.81시(약 11시 49분)에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성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위권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11.42시(약 11시 25분)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11.52시(약 11시 31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11.24시(약 11시 14분)에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음. 중위권의 경우에는 9시 등교 이전에는 11.51시(약 11시 31분)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11.66시(약 11시 40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11.40시(약 11시 24분)에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음. 상위권의 경우에는 9시 등교 이전

에는 11.66시(약 11시 40분)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11.81시(약 11시 49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11.60시(약 11시 36분)에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맞벌이 여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맞벌이 가정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11.50시(약 11시 30분)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11.63시(약 11시 38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11.42시(약 11시 25분)에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9시 등교 이전에는 11.58시(약 11시 35분)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11.75시(약 11시 45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11.45시(약 11시 27분)에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 등교 시 보호자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호자가 있는 가정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11.53시(약 11시 32분)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11.67시(약 11시 40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11.39시(약 11시 23분)에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가 없는 가정의 경우에는 9시 등교 이전에는 11.54시(약 11시 32분)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11.67시(약 11시 40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11.56시(약 11시 34분)에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잠드는 시간(중학생)

항목	집단	9시 등교 이후									T (이전-이후)
		9시 등교 이전			아침프로그램 참여하지 않는 날			아침프로그램 참여하는 날			
		N	M	SD	N	M	SD	N	M	SD	
학년별	1학년	1558	11.24	.927	1325	11.38	1.012	273	11.11	1.038	-7.407*** -.547
	2학년	1559	11.53	1.012	1326	11.70	1.057	268	11.44	1.115	-8.932*** -.463
	3학년	1504	11.83	1.045	1306	11.94	1.062	222	11.81	1.075	-6.013*** -1.771
성적별	하위권	1104	11.42	1.014	906	11.52	1.103	173	11.24	1.170	-3.891*** 1.002
	중위권	2123	11.51	.985	1821	11.66	1.013	331	11.40	1.060	-9.727*** -.561
	상위권	1315	11.66	1.076	1193	11.81	1.104	254	11.60	1.122	-8.078*** -2.786**

항목	집단	9시 등교 이후									T (이전-이후)
		9시 등교 이전			아침프로그램 참여하지 않는 날			아침프로그램 참여하는 날			
		N	M	SD	N	M	SD	N	M	SD	
맞벌이여 부별	맞벌이	2899	11.50	1.007	2450	11.63	1.046	469	11.42	1.090	-.9093*** -1.917
	외벌이	1710	11.58	1.048	1497	11.75	1.100	293	11.45	1.150	-.9273*** .066
등교시 보호자 재가 여부별	재가	3335	11.53	1.032	2889	11.67	1.077	570	11.39	1.121	-11.018*** -.635
	부재	1261	11.54	1.000	1053	11.67	1.044	188	11.56	1.084	-6.381*** -1.568

\*\*\* : p<.001, \*\* : p<.01, \* : p<.05

## 2) 일어나는 시간

- 일어나는 시간의 경우, 학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학년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7.13시(약 7시 8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7.52시(약 7시 31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7.29시(약 7시 17분)로 나타났음. 2학년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7.10시(약 7시 6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7.52시(약 7시 31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7.21시(약 7시 13분)로 나타났음. 3학년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7.11시(약 7시 7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7.58시(약 7시 35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7.29시(약 7시 17분)로 나타났음.
- 성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위권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7.14시(약 7시 8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7.54시(약 7시 33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7.27시(약 7시 16분)로 나타났음. 중위권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7.09시(약 7시 5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7.53시(약 7시 32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7.29시(약 7시 17분)로 나타났음. 상위권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7.13시(약 7시 8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7.55시(약 7시 33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7.22시(약 7시 13분)로 나타났음.
- 맞벌이 여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맞벌이 가정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7.09시(약 7시 5분)에 일어났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7.50시(약 7시 30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7.21시(약 7시 13분)에 일어나고 있었음. 외벌의 가정의 경우에는 9시 등교 이전에는 7.16시(약 7시 10분)에 일어났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7.60시(약 7시 36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7.33시(약 7시 20분)에 일어나고 있었음.

- 등교 시 보호자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호자가 있는 가정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7.11시(약 7시 7분)에 일어났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7.55시(약 7시 33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7.23시(약 7시 14분)에 일어나고 있었음. 보호자가 없는 가정의 경우에는 9시 등교 이전에는 7.12시(약 7시 7분)에 일어났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7.50시(약 7시 30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7.33시(약 7시 20분)에 일어나고 있었음.

〈표 4-8〉 일어나는 시간(중학생)

항목	집단	9시 등교 이후									T (이전-이후)
		9시 등교 이전			아침프로그램 참여하지 않는 날			아침프로그램 참여하는 날			
		N	M	SD	N	M	SD	N	M	SD	
학년별	1학년	1554	7.13	.503	1326	7.52	.519	272	7.29	.548	-33.892*** -7.519***
	2학년	1559	7.10	.551	1320	7.52	.562	267	7.21	.576	-36.627*** -7.474***
	3학년	1512	7.11	.544	1315	7.58	.536	232	7.29	.561	-42.376*** -8.015***
성적별	하위권	1146	7.14	.587	902	7.54	.574	175	7.27	.621	-27.656*** -5.988***
	중위권	2117	7.09	.520	1821	7.53	.526	332	7.29	.546	-45.343*** -9.248***
	상위권	1320	7.13	.501	1201	7.55	.535	259	7.22	.544	-37.005*** -7.435***
맞벌이여부별	맞벌이	2899	7.09	.529	2451	7.50	.543	476	7.21	.564	-48.881*** -9.838***
	외벌이	1714	7.16	.537	1500	7.60	.531	294	7.33	.553	-42.847*** -8.888***
등교시 보호자 재가 여부별	재가	3341	7.11	.535	2893	7.55	.537	579	7.23	.553	-57.802*** -11.304***
	부재	1261	7.12	.526	1053	7.50	.546	187	7.33	.580	-29.712*** -7.292***

\*\*\* : p&lt;.001, \*\* : p&lt;.01, \* : p&lt;.05

## 3) 총수면시간

- 총수면시간의 경우, 학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학년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7.89시간(약 7시간 53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8.13시간(약 8시간 8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8.20시간(약 8시간 12분)으로 나타났음. 2학년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7.58시간(약 8시간 44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7.83시간(약 7시간 50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7.73시간(약 7시간 44분)이었음. 3학년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7.27시간(약 7시간 16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7.63시간(약 7시간 38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7.47시간(약 7시간 28분)으로 나타났음.
- 성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위권의 경우 총수면시간이 9시 등교 이전에는 7.71시간(약 7시간 43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8.01시간(약 8시간 1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7.99시간(약 7시간 59분)이었음. 중위권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7.58시간(약 7시간 35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과 참여하는 날 모두 7.87시간(약 7시간 52분)이었음. 상위권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7.47시간(약 7시간 28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7.74시간(약 7시간 44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7.63시간(약 7시간 38분)으로 나타났음.
- 맞벌이 여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총수면시간이 맞벌이 가정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7.59시간(약 7시간 35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7.87시간(약 7시간 52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7.78시간(약 7시간 47분)이었음. 외벌이 가정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7.57시간(약 7시간 34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7.85시간(약 7시간 51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7.89시간(약 7시간 53분)이었음.
- 등교 시 보호자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호자가 있는 가정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7.58시간(약 7시간 35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7.88시간(약 7시간 53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



여하는 날은 7.83시간(약 7시간 50분)이었음. 보호자가 없는 가정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7.58시간(약 7시간 35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7.83시간(약 7시간 50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7.78시간(약 7시간 47분)이었음.

〈표 4-9〉 총수면시간(중학생)

항목	집단	9시 등교 이후									T (이전-이후)
		9시 등교 이전			아침프로그램 참여하지 않는 날			아침프로그램 참여하는 날			
		N	M	SD	N	M	SD	N	M	SD	
학년별	1학년	1551	7.89	.946	1319	8.13	1.022	269	8.20	1.054	-13.773*** -3.799***
	2학년	1547	7.58	1.048	1311	7.83	1.083	260	7.73	1.152	-15.141*** -3.750***
	3학년	1500	7.27	1.063	1300	7.63	1.042	221	7.47	1.090	-17.486*** -4.178***
성적별	하위권	1136	7.71	1.037	894	8.01	1.109	169	7.99	1.123	-12.774*** -4.381***
	중위권	2109	7.58	1.020	1811	7.87	1.028	326	7.87	1.091	-19.039*** -4.708***
	상위권	1311	7.47	1.092	1188	7.74	1.082	250	7.63	1.195	-13.629*** -2.660**
맞벌이여부별	맞벌이	2822	7.59	1.028	2430	7.87	1.050	460	7.78	1.060	-20.713*** -4.879***
	외벌이	1704	7.57	1.085	1490	7.85	1.100	289	7.89	1.255	-16.930*** -4.720***
등교시 보호자 재가 여부별	재가	3320	7.58	1.050	2869	7.88	1.071	560	7.83	1.145	-23.792*** -6.063***
	부재	1255	7.58	1.048	1046	7.83	1.063	185	7.78	1.126	-12.566*** -3.060**

\*\*\* : p<.001, \*\* : p<.01, \* : p<.05

## 다. 고등학생

### 1) 잠드는 시간

- 고등학생들의 잠자는 시간을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12.26시(약 12시 16분)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12.42시(약 12시 25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12.47시(약 12시 28분)에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음. 2학년의 경우에는 9시 등교

이전에는 12.45시(약 12시 27분)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12.68시(약 12시 41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12.70시(약 12시 42분)에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음. 3학년의 경우에는 9시 등교 이전에는 12.57시(약 12시 34분)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12.57시(약 12시 34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12.58시(약 12시 35분)에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성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위권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12.29시(약 12시 17분)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12.45시(약 12시 27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12.40시(약 12시 24분)에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음. 중위권의 경우에는 9시 등교 이전에는 12.43시(약 12시 26분)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12.58시(약 12시 35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12.62시(약 12시 37분)에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음. 상위권의 경우에는 9시 등교 이전에는 12.52시(약 12시 31분)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12.64시(약 12시 38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12.61시(약 12시 37분)에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음.
- 맞벌이 여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맞벌이 가정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12.41시(약 12시 25분)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12.54시(약 12시 32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12.58시(약 12시 35분)에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음. 외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9시 등교 이전에는 12.40시(약 12시 24분)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12.58시(약 12시 35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12.57시(약 12시 34분)에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음.
- 등교 시 보호자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호자가 있는 가정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12.41시(약 12시 25분)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12.56시(약 12시 34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12.58시(약 12시 35분)에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음. 보호자가 없는 가정의 경우에는 9시 등교 이전에는 12.40시(약 12시 24분)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12.55시(약

12시 33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12.59시(약 12시 35분)에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4-10〉 잠드는 시간(고등학생)

항목	집단	9시 등교 이후									T (이전-이후)
		9시 등교 이전			아침프로그램 참여하지 않는 날			아침프로그램 참여하는 날			
		N	M	SD	N	M	SD	N	M	SD	
학년별	1학년	1729	12.26	.951	1501	12.42	.986	456	12.47	.945	-9.288*** -3.671***
	2학년	1776	12.45	.990	1530	12.68	1.005	418	12.70	1.017	-14.081*** -4.482***
	3학년	1124	12.57	1.058	933	12.57	1.116	244	12.58	1.056	-.307 .217
성적별	하위권	1264	12.29	1.114	1058	12.45	1.136	212	12.40	1.052	-6.208*** -2.267*
	중위권	2467	12.43	.947	2138	12.58	.980	606	12.62	.959	-11.296*** -3.835***
	상위권	865	12.52	.958	746	12.64	1.004	290	12.61	1.050	-5.912*** -1.896
맞벌이여부별	맞벌이	3050	12.41	1.006	2603	12.54	1.033	720	12.58	.997	-10.270*** -4.067***
	외벌이	1563	12.40	.991	1350	12.58	1.029	391	12.57	1.013	-9.740*** -2.519*
등교시 보호자 재가 여부별	재가	3395	12.41	.996	2904	12.56	1.026	849	12.58	1.002	-11.985*** -2.937**
	부재	1209	12.40	1.015	1039	12.55	1.045	257	12.59	.989	-7.141*** -4.253***

\*\*\* : p<.001, \*\* : p<.01, \* : p<.05

## 2) 일어나는 시간

- 일어나는 시간의 경우, 학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학년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6.67시(약 6시 40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7.34시(약 7시 20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6.85시(약 6시 51분)로 나타났음. 2학년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6.70시(약 6시 42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7.37시(약 7시 22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7.86시(약 6시 52분)로 나타났음. 3학년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6.68시(약 6시 41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7.36시(약 7시 22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7.05시(약 7시 3분)로 나타났음.

- 성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위권은 9시 등교 이전에는 6.71시(약 6시 43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7.40시(약 7시 24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6.92시(약 6시 55분)로 나타났음. 중위권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6.67시(약 6시 40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7.36시(약 7시 22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6.91시(약 6시 55분)로 나타났음. 상위권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6.68시(약 6시 41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7.29시(약 7시 17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6.85시(약 6시 51분)로 나타났음.
- 맞벌이 여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맞벌이 가정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6.69시(약 6시 41분)에 일어났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7.36시(약 7시 22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6.90시(약 6시 54분)에 일어나고 있었음. 외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9시 등교 이전에는 6.68시(약 6시 41분)에 일어났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7.36시(약 7시 22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6.89시(약 6시 53분)에 일어나고 있었음.
- 등교 시 보호자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호자가 있는 가정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6.67시(약 6시 40분)에 일어났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7.35시(약 7시 21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6.88시(약 6시 53분)에 일어나고 있었음. 보호자가 없는 가정의 경우에는 9시 등교 이전에는 6.72시(약 6시 43분)에 일어났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7.37시(약 7시 22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6.97시(약 6시 58분)에 일어나고 있었음.

〈표 4-11〉 일어나는 시간(고등학생)

항목	집단	9시 등교 이후									T (이전-이후)
		9시 등교 이전			아침프로그램 참여하지 않는 날			아침프로그램 참여하는 날			
		N	M	SD	N	M	SD	N	M	SD	
학년별	1학년	1731	6.67	.505	1507	7.34	.585	459	6.85	.512	-55.689*** -10.737***
	2학년	1782	6.70	.527	1542	7.37	.605	418	6.86	.560	-57.854*** -8.014***
	3학년	1126	6.68	.537	942	7.36	.635	244	7.05	.662	-43.718***

항목	집단	9시 등교 이후									T (이전-이후)
		9시 등교 이전			아침프로그램 참여하지 않는 날			아침프로그램 참여하는 날			
		N	M	SD	N	M	SD	N	M	SD	
											-13,392***
성적별	하위권	1276	6.71	.584	1067	7.40	.619	213	6.92	.625	-50,163***
	중위권	2465	6.67	.492	2150	7.36	.592	606	6.91	.570	-8,727***
	상위권	865	6.68	.503	753	7.29	.614	292	6.85	.526	-67,496***
맞벌이여 부별	맞벌이	3061	6.69	.527	2625	7.36	.609	730	6.90	.575	-13,342***
	외벌이	1562	6.68	.511	1355	7.36	.596	384	6.89	.564	-35,828***
등교시 보호자 재가 여부별	재가	3402	6.67	.514	2920	7.35	.601	844	6.88	.561	-8,128***
	부재	1212	6.72	.539	1052	7.37	.615	264	6.97	.600	-75,101***
											-14,312***
											-51,962***
											-10,792***
											-78,964***
											-14,590***
											-45,889***
											-10,389***

\*\*\* : p<.001, \*\* : p<.01, \* : p<.05

### 3) 총수면시간

- 총수면시간의 경우, 학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학년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6.41시간(약 6시간 25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6.92시간(약 6시간 55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6.37시간(약 6시간 22분)으로 나타났음. 2학년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6.25시간(약 6시간 15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6.69시간(약 6시간 41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6.17시간(약 6시간 10분)으로 나타났음. 3학년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6.09시간(약 6시간 5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6.78시간(약 6시간 47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6.45시간(약 6시간 27분)으로 나타났음.
- 성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위권의 경우 총수면시간이 9시 등교 이전에는 6.41시간(약 6시간 25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6.93시간(약 6시간 56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6.54시간(약 6시간 32분)이었음. 중위권의 총수면시간은 9시 등교 이전에는 6.25시간(약 6시간 15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6.78시간(약 6시간

47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6.29시간(약 6시간 17분)이었음. 상위권의 총수면시간은 9시 등교 이전에는 6.15시간(약 6시간 9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6.66시간(약 6시간 40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6.20시간(약 6시간 12분)이었음.

- 맞벌이 여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총수면시간이 맞벌이 가정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6.27시간(약 6시간 16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6.81시간(약 6시간 49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6.32시간(약 6시간 19분)이었음. 외벌이 가정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6.28시간(약 6시간 17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6.78시간(약 6시간 47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6.31시간(약 6시간 19분)이었음.
- 등교 시 보호자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호자가 있는 가정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6.26시간(약 7시간 35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6.79시간(약 7시간 53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6.30시간(약 7시간 50분)이었음. 보호자가 없는 가정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6.31시간(약 6시간 19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6.80시간(약 6시간 48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6.36시간(약 6시간 22분)이었음.

〈표 4-12〉 총수면시간(고등학생)

항목	집단	9시 등교 이후									T (이전-이후)
		9시 등교 이전			아침프로그램 참여하지 않는 날			아침프로그램 참여하는 날			
		N	M	SD	N	M	SD	N	M	SD	
학년별	1학년	1719	6.41	1.035	1490	6.92	1.057	452	6.37	.989	-24,490*** -3,803***
	2학년	1768	6.25	1.041	1519	6.69	1.051	411	6.17	1.080	-22,315*** -.720
	3학년	1114	6.09	1.087	922	6.78	1.170	234	6.45	1.150	-23,996*** -8,844***
성적별	하위권	1256	6.41	1.189	1045	6.93	1.157	207	6.54	1.086	-20,324*** -4,253***
	중위권	2452	6.25	1.002	2125	6.78	1.055	597	6.29	1.075	-30,677*** -4,943***
	상위권	860	6.15	.988	740	6.66	1.054	283	6.20	1.013	-16,743*** -2,572*

항목	집단	9시 등교 이후									T (이전-이후)
		9시 등교 이전			아침프로그램 참여하지 않는 날			아침프로그램 참여하는 날			
		N	M	SD	N	M	SD	N	M	SD	
맞벌이여 부별	맞벌이	3038	6.27	1.069	2585	6.81	1.092	710	6.32	1.067	-33.712*** -5.489***
	외벌이	1547	6.28	1.035	1335	6.78	1.076	380	6.31	1.059	-22.404*** -4.321***
등교시 보호자 재가 여부별	재가	3373	6.26	1.045	2879	6.79	1.090	832	6.30	1.067	-34.904*** -6.637***
	부재	1203	6.31	1.086	1033	6.80	1.073	253	6.36	1.034	-20.613*** -2.531*

\*\*\* : p<.001, \*\* : p<.01, \* : p<.05

## 제2절 학교생활의 변화

### 1. 학교급별 비교

#### 가. 지각

- 지각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그런 적 없다고 응답한 초등학생들이 56.2%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67.6%로 증가했음. 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지각한다고 응답한 초등학생들이 9시 등교 이전에는 9.9%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7.7%로 감소했음.
- 중학생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지각을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57.8%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66.3%로 증가했음. 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지각한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9시 등교 이전에는 11.1%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7.4%로 감소했음.
- 고등학생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지각을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52.8%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63.3%로 증가했음. 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지각한다고 응답한 고등학생은 9시 등교 이전에는 14.2%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10.5%로 감소했음.

### 나. 오전 수업 중 즐거나 잠을 잡

- 초등학생의 75.4%가 9시 등교 이전에는 오전 수업 중에 즐거나 잔 적이 없다고 응답했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80.5%로 증가했음. 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즐거나 잔다고 응답한 초등학생들이 9시 등교 이전에는 6.2%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4.4%로 감소했음.
- 중학생의 경우에도 9시 등교 이전에는 오전 수업 중 즐거나 잔 적이 없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30.2%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37.1%로 증가했음. 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즐거나 잔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9시 등교 이전에는 37%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26.8%로 감소했음.
-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15.2%의 학생들이 9시 등교 이전에 오전 수업 중 즐거나 잔 적이 없다고 응답했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22.4%로 증가했음. 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즐거나 잔다고 응답한 고등학생은 9시 등교 이전에는 60.8%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45.9%로 감소했음.

### 다. 숙제나 준비물을 못 챙김

- 초등학생의 15.7%가 9시 등교 이전에는 숙제나 준비물을 못 챙긴 적이 없다고 응답했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25.3%로 증가했음. 반면 숙제나 준비물을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못 챙긴 초등학생들이 9시 등교 이전에는 16.9%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13.8%로 감소했음.
- 중학생의 경우에도 9시 등교 이전에는 숙제나 준비물을 못 챙긴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25.6%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34.2%로 증가했음. 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숙제나 준비물을 못 챙긴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9시 등교 이전에는 17.8%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12.4%로 감소했음.
-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36.5%의 학생들이 9시 등교 이전에 숙제나 준비물을 못 챙긴 적이 없다고 응답했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44.4%로 증가했음. 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숙제나 준비물을 못 챙긴다고 응답한 고등학생은 9시 등교 이전에는 16.9%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11.9%로 감소했음.



(표 4-13) 학교생활의 변화(학교급별)

단위: %

항목	9시 등교 이전						9시 등교 이후						$\chi^2$	
	그런 적 없다	한 학기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 에 한두 번	거의 매일	합계 (명)	그런 적 없다	한 학기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 에 한두 번	거의 매일	합계 (명)		
지각	초등학교	56.2	23.7	10.2	7.0	2.9	100 (3641)	67.6	17.0	7.6	5.3	2.4	100 (3539)	이전: 65.186*** 이후: 75.472***
	중학교	57.8	21.4	9.7	8.4	2.7	100 (4674)	66.3	17.8	8.5	5.5	1.9	100 (4593)	
	고등학교	52.8	21.4	11.6	10.1	4.1	100 (4721)	63.3	15.3	10.8	7.8	2.7	100 (4680)	
	합계	55.5	22.0	10.6	8.6	3.3	100 (13036)	65.5	16.7	9.1	6.3	2.3	100 (12812)	
오전 수업 중 즐거나 잠	초등학교	75.4	12.5	5.8	4.4	1.8	100 (3627)	80.5	10.0	5.1	3.1	1.3	100 (3517)	이전: 4066.229*** 이후: 3326.714***
	중학교	30.2	15.5	17.3	24.8	12.2	100 (4659)	37.1	17.4	18.8	18.7	8.1	100 (4582)	
	고등학교	15.2	9.5	14.4	35.5	25.3	100 (4710)	22.4	11.5	20.3	30.9	15.0	100 (4675)	
	합계	37.4	12.5	13.1	23.0	14.1	100 (12996)	43.7	13.2	15.6	18.9	8.7	100 (12774)	
숙제나 준비물 못챙김	초등학교	15.7	38.8	28.6	13.0	3.9	100 (3618)	25.3	38.5	22.5	10.5	3.3	100 (3511)	이전: 532.560*** 이후: 383.672***
	중학교	25.6	19.9	26.7	13.9	3.9	100 (4659)	34.2	30.8	22.6	9.7	2.7	100 (4580)	
	고등학교	36.5	22.8	23.8	12.7	4.2	100 (4703)	44.4	22.9	20.8	8.9	3.0	100 (4662)	
	합계	26.8	29.8	26.2	13.2	4.0	100 (12980)	35.5	30.0	21.9	9.6	3.0	100 (12753)	

\*\*\* : p&lt;.001, \*\* : p&lt;.01, \* : p&lt;.05

## 2. 학교급 내 비교

### 가. 초등학생

#### 1) 지각

- 초등학생들의 지각 비율을 학년별로 살펴보면, 4학년 학생 중에서 9시 등교 이전에는 지각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8.8%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72.1%로 증가했음. 5학년과 6학년의 경우에도 9시 등교 이전에는 지각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6.6%, 53.2%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68.9%, 62.1%로 증가했음. 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지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시 등교 이전 4,5학년에서 각각 10.2%, 9%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6.2%, 6.5%로 감소했음. 6학년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지각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9시 등교 이전 10.6%, 9시 등교 이후 10.7%로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나 한 달에 한두 번 지각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9시 등교 이전 13%에서 9시 등교 이후 9.7%로 감소했음.

- 성적별로 초등학생들의 지각 비율을 살펴보면, 하위권 학생 중에서 9시 등교 이전에는 지각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1.4%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58.7%로 증가했음. 중위권과 상위권의 경우에도 9시 등교 이전에는 지각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6.5%, 61.1%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66.3%, 71.8%로 증가했음. 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지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시 등교 이전 하위권과 중위권에서 각각 16.3%, 10.1%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13.5%, 8.4%로 감소했음. 상위권의 경우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지각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9시 등교 이전 7.9%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5.7%로 감소했음.
- 맞벌이 여부를 기준으로 초등학생들의 지각 비율을 살펴보면, 맞벌이 가정 학생 중에서 9시 등교 이전에는 지각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5.7%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67.3%로 증가했음. 외벌이 가정 학생 중에서도 9시 등교 이전에는 지각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7.2%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68.1%로 증가했음. 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지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시 등교 이전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에서 각각 10.1%, 9.7%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8.2%, 7.1%로 감소했음.
- 등교 시 보호자가 집에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초등학생들의 지각 비율을 살펴보면, 보호자가 집에 있는 학생 중에서 9시 등교 이전에는 지각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6.4%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68.4%로 증가했음. 보호자가 집에 없는 학생 중에서도 9시 등교 이전에는 지각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6.1%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65.6%로 증가했음. 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지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시 등교 이전 보호자가 집에 있는 가정에서는 10.2%였다가 9시 등교 이후에는 7.5%로 감소했음. 그러나 보호자가 없는 가정에서는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지각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9시 등교 이전에 8.7%, 9시 등교 이후에 8.6%로 별다른 차이가 없었음.

〈표 4-14〉 지각(초등학생)

단위: %

항목	9시 등교 이전						9시 등교 이후						$\chi^2$	
	그런 적 없다	한 학기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 에 한두 번	거의 매일	합계 (명)	그런 적 없다	한 학기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 에 한두 번	거의 매일	합계 (명)		
학년	4학년	58.8	21.4	9.7	6.7	3.5	100 (1215)	72.1	15.5	6.3	4.3	1.9	100 (1167)	이전: 29.478*** 이후: 39.896***
	5학년	56.6	26.3	8.0	6.8	2.2	100 (1234)	68.9	17.7	6.9	4.3	2.2	100 (1201)	
	6학년	53.2	23.2	13.0	7.6	3.0	100 (1190)	62.1	17.6	9.7	7.4	3.3	100 (1169)	
성적	하위권	41.4	30.7	11.5	10.1	6.2	100 (355)	58.7	17.0	10.9	8.2	5.3	100 (341)	이전: 66.862*** 이후: 45.412***
	중위권	55.5	22.8	11.5	7.8	2.3	100 (1747)	66.3	17.3	8.0	5.9	2.5	100 (1691)	
	상위권	61.1	22.9	8.1	5.4	2.5	100 (1498)	71.8	16.5	6.0	4.1	1.6	100 (1469)	
맞벌이 여부	맞벌이	55.7	23.8	10.4	7.1	3.0	100 (2220)	67.3	16.6	7.9	5.3	2.9	100 (2153)	이전: 1.159
	외벌이	57.2	23.3	9.7	7.0	2.7	100 (1401)	68.1	17.6	7.2	5.4	1.7	100 (1365)	이후: 6.092
보호자 재가	재가	56.4	22.9	10.4	7.5	2.7	100 (2782)	68.4	16.6	7.5	5.4	2.1	100 (2710)	이전: 8.091
	부재	56.1	25.5	9.8	5.2	3.5	100 (809)	65.6	18.1	7.8	5.1	3.5	100 (781)	이후: 6.002

\*\*\* : p&lt;.001, \*\* : p&lt;.01, \* : p&lt;.05

## 2) 오전 수업 중 졸거나 잠을 잠

- 오전 수업 중 졸거나 잠을 잔 초등학생들의 비율을 학년별로 살펴보면, 4학년 학생 중에서 9시 등교 이전에 그런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87.9%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92.0%로 증가했음. 5학년과 6학년의 경우에도 9시 등교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5.3%, 62.5%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80.5%, 69.1%로 증가했음. 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졸거나 잠을 잔다고 응답한 비율은 9시 등교 이전 4,5,6 학년에서 각각 2%, 6.3%, 10.6%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1%, 5%, 7.2%로 감소했음.
- 성적별로 오전 수업 중 졸거나 잠을 잔 초등학생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하위권 학생 중에서 9시 등교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5.8%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72.9%로 증가했음. 중위권과 상위권의 경우에도 9시 등교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4.4%, 78.7%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79.2%, 83.7%로 증가했음. 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즐기거나 잠을 잔다고 응답한 비율은 9시 등교 이전 하위권과 중위권에서 각각 12.7%, 5.9%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10.6%, 4%로 감소했음. 상위권의 경우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즐기거나 잔다고 응답한 비율이 9시 등교 이전 5.1%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3.3%로 감소했음.

- 맞벌이 여부를 기준으로 오전 수업 중 즐기거나 잠을 자는 초등학생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맞벌이 가정 학생 중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72.5%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77.9%로 증가했음. 외벌이 가정 학생 중에서도 9시 등교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79.8%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84.7%로 증가했음. 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9시 등교 이전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에서 각각 7.7%, 4.1%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5.4%, 3%로 감소했음.
- 등교 시 보호자가 집에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오전 수업 중 즐기거나 잠을 자는 초등학생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보호자가 집에 있는 학생 중에서 9시 등교 이전에 그런 적이 없다는 학생이 76.5%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81.7%로 증가했음. 보호자가 집에 없는 학생 중에서도 9시 등교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71.6%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76.2%로 증가했음. 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9시 등교 이전 보호자가 집에 있는 가정에서는 5.9%였다가 9시 등교 이후에는 4.1%로 감소했음. 보호자가 없는 가정에서도 그 비율이 9시 등교 이전에는 7.1%였다가 9시 등교 이후에는 5.5%로 감소했음.

〈표 4-15〉 오전 수업 중 즐기거나 잠을 잔(초등학생)

단위: %

항목	9시 등교 이전						9시 등교 이후						$\chi^2$
	그런 적이 없다	한 학기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합계 (명)	그런 적이 없다	한 학기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합계 (명)	
4학년	87.9	8.1	2.0	1.3	.7	100 (1121)	92.0	6.0	1.1	.7	.3	100 (1158)	이전: 234.240***
5학년	75.3	13.2	5.1	4.2	2.1	100 (1232)	80.5	10.3	4.3	3.1	1.9	100 (1199)	
6학년	62.5	16.3	10.6	7.9	2.7	100 (1158)	69.1	13.9	9.8	5.6	1.6	100 (1158)	이후: 222.531***

항목	9시 등교 이전						9시 등교 이후						$\chi^2$	
	그런 적 없다	한 학기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 에 한두 번	거의 매일	합계 (명)	그런 적 없다	한 학기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 에 한두 번	거의 매일	합계 (명)		
성적	하위권	65.8	15.0	6.5	6.5	6.2	100 (354)	72.9	11.2	5.3	6.8	3.8	100 (339)	이전: 63,561***
	중위권	74.4	13.9	5.9	4.6	1.3	100 (1738)	79.2	11.3	5.4	3.0	1.0	100 (1677)	
	상위권	78.7	10.5	5.7	3.7	1.4	100 (1494)	83.7	8.3	4.6	2.3	1.0	100 (1463)	
맞벌이 여부	맞벌이	72.5	12.8	7.0	5.7	2.0	100 (2206)	77.9	10.8	5.9	3.9	1.5	100 (2137)	이전: 39,754***
	외벌이	79.8	12.1	4.1	2.5	1.6	100 (1400)	84.7	8.7	3.7	2.0	1.0	100 (1359)	이후: 28,029***
보호자 재가	재가	76.5	12.0	5.5	4.0	1.9	100 (2775)	81.7	9.4	4.8	2.9	1.2	100 (2694)	이전: 12,118*
	부재	71.6	14.5	6.9	5.7	1.4	100 (802)	76.2	12.2	6.1	4.0	1.5	100 (776)	이후: 12,094*

\*\*\* :  $p < .001$ , \*\* :  $p < .01$ , \* :  $p < .05$

### 3) 숙제를 못하거나 준비물을 못 챙김

- 숙제를 못하거나 준비물을 못 챙긴 초등학생들의 비율을 학년별로 살펴보면, 4학년 학생 중에서 9시 등교 이전에 그런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5%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25.5%로 증가했음. 5학년과 6학년의 경우에도 9시 등교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6.8%, 15.4%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25.6%, 24.7%로 증가했음. 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그런다고 응답한 비율은 9시 등교 이전 4,5,6 학년에서 각각 15.7%, 17.3%, 17.7%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13.7%, 14.5%, 13.1%로 감소했음.
- 성적별로 숙제를 못 하거나 준비물을 못 챙기는 초등학생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하위권 학생 중에서 9시 등교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9.7%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15%로 증가했음. 중위권과 상위권의 경우에도 9시 등교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3.5%, 19.8%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22.1%, 31.3%로 증가했음. 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그런다고 응답한 비율은 9시 등교 이전 하위권과 중위권, 상위권에서 각각 38.5%, 17.2%, 11.2%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31.3%, 14.3%, 9%로 감소했음.
- 맞벌이 여부를 기준으로 숙제를 못하거나 준비물을 못 챙기는 초등학생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맞벌이 가정 학생 중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4.6%

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24.2%로 증가했음. 외별이 가정 학생 중에서도 9시 등교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7.5%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27.1%로 증가했음. 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그런다고 응답한 비율은 9시 등교 이전 맞벌이 가정과 외별이 가정에서 각각 18.8%, 13.8%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14.7%, 11.8%로 감소했음.

- 등교 시 보호자가 집에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숙제를 못하거나 준비물을 못 챙기는 초등학생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보호자가 집에 있는 학생 중에서 9시 등교 이전에 그런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5.6%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26.2%로 증가했음. 보호자가 집에 없는 학생 중에서도 9시 등교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6.1%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22.1%로 증가했음. 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그런다고 응답한 비율은 9시 등교 이전 보호자가 집에 있는 가정에서는 15.6%였다가 9시 등교 이후에는 12.6%로 감소했음. 보호자가 없는 가정에서도 그 비율이 9시 등교 이전에는 20.4%였다가 9시 등교 이후에는 17%로 감소했음.

〈표 4-16〉 숙제를 못하거나 준비물을 못 챙김(초등학생)

단위: %

항목	9시 등교 이전						9시 등교 이후						$\chi^2$	
	그런 적이 없다	한 학기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합계 (명)	그런 적이 없다	한 학기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합계 (명)		
학년	4학년	15.0	44.0	25.2	11.5	4.2	100 (1208)	25.5	41.2	19.6	10.3	3.4	100 (1161)	이전: 29.630*** 이후: 19.719***
	5학년	16.8	37.6	28.3	13.5	3.8	100 (1229)	25.6	38.4	21.4	10.7	3.8	100 (1194)	
	6학년	15.4	34.7	32.2	14.1	3.6	100 (1179)	24.7	35.7	26.5	10.3	2.8	100 (1154)	
성적	하위권	9.7	25.9	25.9	22.5	16.0	100 (351)	15.0	30.7	23.0	18.9	12.4	100 (339)	이전: 259.385*** 이후: 199.134***
	중위권	13.5	37.4	31.9	14.2	3.0	100 (1731)	22.1	38.2	25.4	11.4	2.9	100 (1672)	
	상위권	19.8	43.5	25.4	9.2	2.0	100 (1495)	31.3	40.8	18.9	7.3	1.7	100 (1462)	
맞벌이 여부	맞벌이	14.6	37.9	28.7	14.4	4.4	100 (2199)	24.2	36.9	23.9	11.3	3.6	100 (2130)	이전: 18.737** 이후: 14.440**
	외벌이	17.5	40.3	28.4	10.7	3.1	100 (1398)	27.1	40.8	20.4	8.9	2.9	100 (1360)	
보호자 재가	재가	15.6	40.3	28.5	12.2	3.4	100 (2768)	26.2	39.1	22.1	9.7	2.9	100 (2688)	이전: 15.093** 이후: 14.440**
	부재	16.1	34.4	29.1	15.3	5.1	100 (800)	22.1	37.3	23.6	12.6	4.4	100 (775)	

\*\*\* : p<.001, \*\* : p<.01, \* : p<.05

## 나. 중학생

### 1) 지각

- 중학생들의 지각 비율을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 학생 중에서 9시 등교 이전에는 지각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0.8%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70.3%로 증가했음. 2학년과 3학년의 경우에도 9시 등교 이전에는 지각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7.8%, 54.7%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65.7%, 62.8%로 증가했음. 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지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시 등교 이전 1,2학년에 각각 7.3%, 11.4%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5%, 7.4%로 감소했음. 3학년의 경우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지각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9시 등교 이전 14.7%였다가 9시 등교 이후 9.7%로 감소했음.
- 성적으로 중학생들의 지각 비율을 살펴보면, 하위권 학생 중에서 9시 등교 이전에는 지각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6.9%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56.1%로 증가했음. 중위권과 상위권의 경우에도 9시 등교 이전에는 지각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8.8%, 65.7%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67.9%, 73%로 증가했음. 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지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시 등교 이전 하위권과 중위권에서 각각 15.8%, 10.3%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11.6%, 6.2%로 감소했음. 상위권의 경우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지각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9시 등교 이전 8.2%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5.7%로 감소했음.
- 맞벌이 여부를 기준으로 중학생들의 지각 비율을 살펴보면, 맞벌이 가정 학생 중에서 9시 등교 이전에는 지각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6.3%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64.8%로 증가했음. 외벌이 가정 학생 중에서도 9시 등교 이전에는 지각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0.4%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69%로 증가했음. 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지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시 등교 이전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에서 각각 12.2%, 9.1%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8.2%, 6%로 감소했음.
- 등교 시 보호자가 집에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중학생들의 지각 비율을 살펴보면,

보호자가 집에 있는 학생 중에서 9시 등교 이전에는 지각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9.3%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68%로 증가했음. 보호자가 집에 없는 학생 중에서도 9시 등교 이전에는 지각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3.9%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61.7%로 증가했음. 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지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시 등교 이전 보호자가 집에 있는 가정에서는 10.7%였다가 9시 등교 이후에는 6.7%로 감소했음. 보호자가 없는 가정에서도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지각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9시 등교 이전에는 12.1%였다가 9시 등교 이후에는 9.1%로 감소했음.

〈표 4-17〉 지각(중학생)

단위: %

항목	9시 등교 이전						9시 등교 이후						$\chi^2$	
	그런 적 없다	한 학기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합계 (명)	그런 적 없다	한 학기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합계 (명)		
학년	1학년	60.8	24.4	7.7	5.6	1.7	100 (1567)	70.3	17.8	6.9	4.0	1.0	100 (1540)	이전: 75.748***
	2학년	57.8	20.1	10.7	9.5	1.9	100 (1575)	65.7	18.4	8.4	5.8	1.6	100 (1552)	
	3학년	54.7	19.8	10.9	10.2	4.5	100 (1527)	62.8	17.2	10.2	6.8	2.9	100 (1496)	
성적	하위권	46.9	25.9	11.3	11.7	4.1	100 (1159)	56.1	21.2	11.2	8.5	3.1	100 (1139)	이전: 101.854***
	중위권	58.8	20.7	10.2	8.0	2.3	100 (2136)	67.9	17.7	8.2	4.8	1.4	100 (2100)	
	상위권	65.7	18.8	7.4	6.2	2.0	100 (1330)	73.0	14.7	6.5	4.2	1.5	100 (1306)	
맞벌이 여부	맞벌이	56.3	21.1	10.4	9.3	2.9	100 (2922)	64.8	17.7	9.3	6.0	2.2	100 (2873)	이전: 15.680**
	외벌이	60.4	21.9	8.7	6.9	2.2	100 (1733)	69.0	17.9	7.1	4.8	1.2	100 (1701)	
보호자 재가	재가	59.3	20.9	9.1	8.1	2.6	100 (3371)	68.0	16.9	8.3	5.1	1.6	100 (3313)	이전: 12.516*
	부재	53.9	22.5	11.5	9.3	2.8	100 (1272)	61.7	20.2	9.0	6.7	2.4	100 (1250)	

\*\*\* :  $p < 0.001$ , \*\* :  $p < 0.01$ , \* :  $p < 0.05$

## 2) 오전 수업 중 졸거나 잠을 잠

- 오전 수업 중 졸거나 잠을 잔 중학생들의 비율을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 학생 중에서 9시 등교 이전에 그런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8.8%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47.1%로 증가했음. 2학년과 3학년의 경우에도 9시 등교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8.1%, 23.6%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34.8%, 29.2%로 증가했음. 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졸거나 잠을 잔다고 응답한 비율은 9시 등교 이전 1,2,3 학년에서 각각 25.3%, 39.9%, 46.1%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16.8%, 29.2%, 34.4%로 감소했음.

- 성적별로 오전 수업 중 졸거나 잠을 잔 중학생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하위권 학생 중에서 9시 등교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8.8%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26.6%로 증가했음. 중위권과 상위권의 경우에도 9시 등교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9.2%, 41.3%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36.2%, 47.7%로 증가했음. 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졸거나 잠을 잔다고 응답한 비율은 9시 등교 이전 하위권과 중위권에서 각각 52.6%, 35.6%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38.5%, 25.4%로 감소했음. 상위권의 경우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졸거나 잔다고 응답한 비율이 9시 등교 이전 25.9%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18.6%로 감소했음.
- 맞벌이 여부를 기준으로 오전 수업 중 졸거나 잠을 자는 중학생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맞벌이 가정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8.6%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35%로 증가했음. 외벌이 가정 학생 중에서도 9시 등교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2.9%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40.7%로 증가했음. 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9시 등교 이전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에서 각각 39.9%, 32.1%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29%, 23%로 감소했음.
- 등교 시 보호자가 집에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오전 수업 중 졸거나 잠을 자는 중학생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보호자가 집에 있는 학생 중에서 9시 등교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0.5%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37.9%로 증가했음. 보호자가 집에 없는 학생 중에서도 9시 등교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9.3%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34.8%로 증가했음. 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9시 등교 이전 보호자가 집에 있는 가정에서는 35.6%였다가 9시 등교 이후에는 25.8%로 감소했음. 보호자가 없는 가정에서도 그 비율이 9시 등교 이전에는 40.7%였다가 9시 등교 이후에는 29.7%로 감소했음.

(표 4-18) 오전 수업 중 즐거나 잠을 잠(중학생)

단위: %

항목	9시 등교 이전						9시 등교 이후						$\chi^2$	
	그런 적 없다	한 학기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합계 (명)	그런 적 없다	한 학기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합계 (명)		
학년	1학년	38.8	19.0	17.0	17.8	7.5	100 (1560)	47.1	19.7	16.4	11.7	5.1	100 (1534)	이전: 190.187*** 이후: 179.489***
	2학년	28.1	13.8	18.3	27.9	12.0	100 (1572)	34.8	16.0	20.0	21.3	7.9	100 (1546)	
	3학년	23.6	13.7	16.6	28.8	17.3	100 (1522)	29.2	16.4	20.0	23.2	11.2	100 (1497)	
성적	하위권	18.8	13.0	15.6	30.7	21.9	100 (1151)	26.6	15.0	19.8	23.7	14.8	100 (1137)	이전: 278.378*** 이후: 209.485***
	중위권	29.2	16.1	19.0	25.8	9.8	100 (2132)	36.2	18.2	20.2	19.2	6.2	100 (2094)	
	상위권	41.3	16.9	15.9	18.1	7.8	100 (1328)	47.7	18.1	15.7	13.5	5.1	100 (1303)	
맞벌이 여부	맞벌이	28.6	14.6	16.9	26.6	13.3	100 (2910)	35.0	16.7	19.3	20.2	8.8	100 (2865)	이전: 30.159*** 이후: 27.508***
	외벌이	32.9	17.1	17.9	21.7	10.4	100 (1730)	40.7	18.6	17.8	16.3	6.7	100 (1698)	
보호자 재가	재가	30.5	15.8	18.0	23.6	12.0	100 (3360)	37.9	17.9	18.5	17.9	7.9	100 (3305)	이전: 12.606* 이후: 10.358*
	부재	29.3	14.7	15.2	27.8	12.9	100 (1268)	34.8	16.0	19.5	21.2	8.5	100 (1247)	

\*\*\* : p&lt;.001, \*\* : p&lt;.01, \* : p&lt;.05

## 3) 숙제를 못하거나 준비물을 못 챙김

- 숙제를 못하거나 준비물을 못 챙긴 중학생들의 비율을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 학생 중에서 9시 등교 이전에 그런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3.3%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32.8%로 증가했음. 2학년과 3학년의 경우에도 9시 등교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3.1%, 30.5%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31.5%, 38.6%로 증가했음. 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그런다고 응답한 비율은 9시 등교 이전 1,2,3 학년에서 각각 15.6%, 20.7%, 17.2%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11.5%, 13.9%, 11.7%로 감소했음.
- 성적별로 숙제를 못 하거나 준비물을 못 챙기는 중학생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하위권 학생 중에서 9시 등교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7.6%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24.1%로 증가했음. 중위권과 상위권의 경우에도 9시 등교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5.2%, 33.4%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34.9%, 42.2%로 증가했음. 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그런다고 응답한 비율은 9시 등교 이전 하위권과 중위권, 상위권에서 각각 31.1%, 14.8%, 10.7%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22.6%, 9.8%, 7.5%로 감소했음.

- 맞벌이 여부를 기준으로 숙제를 못하거나 준비물을 못 챙기는 중학생의 비율을 살펴보면, 맞벌이 가정 중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4%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32.5%로 증가했음. 외벌이 가정 학생 중에서도 9시 등교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8.3%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37.3%로 증가했음. 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그런다고 응답한 비율은 9시 등교 이전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에서 각각 20%, 13.9%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14.2%, 9.2%로 감소했음.
- 등교 시 보호자가 집에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숙제를 못하거나 준비물을 못 챙기는 중학생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보호자가 집에 있는 학생 중에서 9시 등교 이전에 그런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6.3%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34.9%로 증가했음. 보호자가 집에 없는 학생 중에서도 9시 등교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3.6%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32.3%로 증가했음. 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그런다고 응답한 비율은 9시 등교 이전 보호자가 집에 있는 가정에서는 16.6%였다가 9시 등교 이후에는 11.6%로 감소했음. 보호자가 없는 가정에서도 그 비율이 9시 등교 이전에는 21.1%였다가 9시 등교 이후에는 14.6%로 감소했음.

〈표 4-19〉 숙제를 못하거나 준비물을 못 챙김(중학생)

항목	9시 등교 이전						9시 등교 이후						단위: % $\chi^2$	
	그런 적이 없다	한 학기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합계 (명)	그런 적이 없다	한 학기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합계 (명)		
학년	1학년	23.3	34.3	26.9	12.5	3.1	100 (1560)	32.8	34.5	21.3	9.1	2.4	100 (1534)	이전: 69.613*** 이후: 48.673***
	2학년	23.1	28.7	27.5	17.3	3.4	100 (1571)	31.5	29.8	24.8	11.8	2.1	100 (1545)	
	3학년	30.5	26.5	25.9	11.9	5.3	100 (1523)	38.6	27.9	21.8	8.0	3.7	100 (1496)	
성적	하위권	17.6	21.7	29.5	22.2	8.9	100 (1152)	24.1	25.9	27.4	16.2	6.4	100 (1132)	이전: 300.531***

항목	9시 등교 이전						9시 등교 이후						$\chi^2$	
	그런 적 없다	한 학기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합계 (명)	그런 적 없다	한 학기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합계 (명)		
중위권	25.2	32.0	28.1	12.7	2.1	100 (2131)	34.9	32.0	23.2	8.4	1.4	100 (2096)	이후: 244.108***	
상위권	33.4	33.7	22.2	8.2	2.5	100 (1328)	42.2	32.7	17.6	5.8	1.7	100 (1304)		
맞벌이 여부	맞벌이	24.0	29.3	26.6	15.7	4.3	100 (2910)	32.5	30.2	23.1	11.0	3.2	100 (2865)	이전: 31.154***
	외벌이	28.3	30.7	27.1	10.8	3.1	100 (1730)	37.3	31.7	21.8	7.3	1.9	100 (1696)	이후: 31.245***
보호자 재가	재가	26.3	30.5	26.7	13.0	3.6	100 (3360)	34.9	31.4	22.2	9.0	2.6	100 (3303)	이전: 14.467**
	부재	23.6	28.3	27.1	16.4	4.7	100 (1268)	32.3	29.1	23.9	11.5	3.1	100 (1247)	이후: 11.715*

\*\*\* :  $p < .001$ , \*\* :  $p < .01$ , \* :  $p < .05$

## 다. 고등학생

### 1) 지각

- 고등생들의 지각 비율을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 학생 중에서 9시 등교 이전에는 지각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3.9%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64.8%로 증가했음. 2학년과 3학년의 경우에도 9시 등교 이전에는 지각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3.3%, 50.6%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64.5%, 59.2%로 증가했음. 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지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시 등교 이전 1,2학년에서 각각 13.2%, 12.9%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9%, 9.1%로 감소했음. 3학년의 경우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지각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9시 등교 이전 17.4%였다가 9시 등교 이후 15%로 감소했음.
- 성적별로 고등학생들의 지각 비율을 살펴보면, 하위권 학생 중에서 9시 등교 이전에는 지각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1.4%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50.5%로 증가했음. 중위권과 상위권의 경우에도 9시 등교 이전에는 지각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5.1%, 63.2%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66.4%, 73.4%로 증가했음. 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지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시 등교 이전 하위권과 중위권에서 각각 21%, 11.9%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16.6%, 8.7%로 감소했음. 상위권의 경우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지각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9시 등교 이전 10.8%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6.7%로 감소했음.

- 맞벌이 여부를 기준으로 중학생들의 지각 비율을 살펴보면, 맞벌이 가정 학생 중에서 9시 등교 이전에는 지각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2.2%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62.7%로 증가했음. 외벌이 가정 학생 중에서도 9시 등교 이전에는 지각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4.2%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64.5%로 증가했음. 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지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시 등교 이전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에서 각각 14.6%, 13.2%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10.9%, 9.8%로 감소했음.
- 등교 시 보호자가 집에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고등학생들의 지각 비율을 살펴보면, 보호자가 집에 있는 학생 중에서 9시 등교 이전에는 지각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3.8%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65%로 증가했음. 보호자가 집에 없는 학생 중에서도 9시 등교 이전에는 지각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0.2%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58.8%로 증가했음. 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지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시 등교 이전 보호자가 집에 있는 가정에서는 13.6%였다가 9시 등교 이후에는 9.9%로 감소했음. 보호자가 없는 가정에서도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지각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9시 등교 이전에는 15.3%였다가 9시 등교 이후에는 12.2%로 감소했음.

〈표 4-20〉 지각(고등학생)

단위: %

항목	9시 등교 이전						9시 등교 이후						$\chi^2$	
	그런 적 없다	한 학기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합계 (명)	그런 적 없다	한 학기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합계 (명)		
학년	1학년	53.9	21.8	11.0	9.8	3.4	100 (1750)	64.8	15.5	10.7	6.9	2.1	100 (1737)	이전: 18.860*
	2학년	53.3	22.2	11.6	9.1	3.8	100 (1796)	64.5	16.4	10.0	7.4	1.7	100 (1789)	
	3학년	50.6	19.4	12.6	12.0	5.4	100 (1138)	59.2	13.5	12.2	10.2	4.8	100 (1119)	이후: 48.809***
성적	하위권	41.4	23.1	14.5	13.9	7.1	100 (1288)	50.5	17.2	15.7	12.1	4.5	100 (1274)	이전: 147.073**
	중위권	55.1	21.7	11.3	9.2	2.7	100 (2489)	66.4	15.1	9.8	7.0	1.7	100 (2471)	
	상위권	63.2	17.8	8.2	7.0	3.8	100 (874)	73.4	13.6	6.3	4.3	2.4	100 (868)	이후: 172.852***

항목		9시 등교 이전					9시 등교 이후					$\chi^2$		
		그런 적 없다	한 학기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합계 (명)	그런 적 없다	한 학기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합계 (명)
맞벌이 여부	맞벌이	52.2	21.2	12.0	10.0	4.6	100 (3079)	62.7	15.3	11.1	8.1	2.8	100 (3049)	이전: 7.637
	외벌이	54.2	21.6	11.0	10.1	3.1	100 (1589)	64.5	15.4	10.3	7.5	2.3	100 (1580)	이후: 2.745
보호자 재가	재가	53.8	2.4	11.1	9.8	3.8	100 (3433)	65.0	15.0	10.1	7.8	2.1	100 (3405)	이전: 7.737
	부재	50.2	21.3	13.1	10.6	4.7	100 (1226)	58.8	16.4	12.6	8.1	4.1	100 (1215)	이후: 25.642***

\*\*\* :  $p < .001$ , \*\* :  $p < .01$ , \* :  $p < .05$

## 2) 오전 수업 중 졸거나 잠을 잤

- 오전 수업 중 졸거나 잠을 잔 고등학생들의 비율을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 학생 중에서 9시 등교 이전에 그런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6%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22.1%로 증가했음. 2학년과 3학년의 경우에도 9시 등교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4.4%, 15.1%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20.7%, 25.4%로 증가했음. 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졸거나 잠을 잔다고 응답한 비율은 9시 등교 이전 1,2,3 학년에서 각각 57.5%, 60.9%, 65.7%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42.5%, 47.1%, 48.8%로 감소했음.
- 성적으로 오전 수업 중 졸거나 잠을 잔 중학생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하위권 학생 중에서 9시 등교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8.6%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14%로 증가했음. 중위권과 상위권의 경우에도 9시 등교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5.5%, 24%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22.8%, 33.4%로 증가했음. 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졸거나 잠을 잔다고 응답한 비율은 9시 등교 이전 하위권과 중위권에서 각각 75%, 58.1%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59.1%, 43.2%로 감소했음. 상위권의 경우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졸거나 잔다고 응답한 비율이 9시 등교 이전 47.5%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33.9%로 감소했음.
- 맞벌이 여부를 기준으로 오전 수업 중 졸거나 잠을 자는 고등학생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맞벌이 가정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4.9%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22.2%로 증가했음. 외벌이 가정 학생 중에서도 9시 등교 이전

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5.7%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22.6%로 증가했음. 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9시 등교 이전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에서 각각 61.4%, 59.4%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46.6%, 44.3%로 감소했음.

- 등교 시 보호자가 집에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오전 수업 중 졸거나 잠을 자는 고등학생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보호자가 집에 있는 학생 중에서 9시 등교 이전에 그런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4.6%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21.8%로 증가했음. 보호자가 집에 없는 학생 중에서도 9시 등교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6.8%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24.1%로 증가했음. 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9시 등교 이전 보호자가 집에 있는 가정에서는 61%였다가 9시 등교 이후에는 46.2%로 감소했음. 보호자가 없는 가정에서도 그 비율이 9시 등교 이전에는 60.3%였다가 9시 등교 이후에는 44.8%로 감소했음.

〈표 4-21〉 오전 수업 중 졸거나 잠을 잠(고등학생)

항목	9시 등교 이전										9시 등교 이후				단위: % $\chi^2$
	그런 적이 없다	한 학기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합계 (명)	그런 적이 없다	한 학기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합계 (명)			
학년	1학년	16.0	10.7	15.8	35.4	22.1	100 (1745)	22.1	13.9	21.5	30.5	12.0	100 (1732)	이전: 52.564***	
	2학년	14.4	10.4	14.3	37.0	23.9	100 (1791)	20.7	10.8	21.4	32.2	14.9	100 (1786)		
	3학년	15.1	6.6	12.6	33.6	32.1	100 (1137)	25.4	9.0	16.8	29.4	19.4	100 (1122)		이후: 58.598***
성적	하위권	8.6	5.9	10.5	36.4	38.6	100 (1284)	14.0	8.8	18.1	35.2	23.9	100 (1274)	이전: 269.402***	
	중위권	15.5	10.4	16.0	37.6	20.5	100 (2482)	22.8	12.8	21.3	32.0	11.2	100 (2465)		
	상위권	24.0	12.6	15.9	28.4	19.1	100 (874)	33.4	12.1	20.6	21.7	12.2	100 (869)		이후: 232.715***
맞벌이 여부	맞벌이	14.9	9.7	14.0	35.1	26.3	100 (3071)	22.2	11.3	19.9	31.0	15.6	100 (3046)	이전: 6.941	
	외벌이	15.7	9.5	15.4	36.4	23.0	100 (1586)	22.6	12.0	21.2	30.7	13.6	100 (1578)	이후: 4.486	
보호자 재가	재가	14.6	9.5	14.9	36.2	24.8	100 (3422)	21.8	11.6	20.5	31.8	14.4	100 (3397)	이전: 7.772	
	부재	16.8	9.9	13.0	33.9	26.4	100 (1268)	24.1	11.2	20.0	28.5	16.3	100 (1218)	이후: 7.797	

\*\*\* :  $p < .001$ , \*\* :  $p < .01$ , \* :  $p < .05$

### 3) 숙제를 못하거나 준비물을 못 챙김

- 숙제를 못하거나 준비물을 못 챙긴 고등학생들의 비율을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 학생 중에서 9시 등교 이전에 그런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8%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36.2%로 증가했음. 2학년과 3학년의 경우에도 9시 등교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5.8%, 50.5%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41.8%, 61%로 증가했음. 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그런다고 응답한 비율은 9시 등교 이전 1,2,3 학년에서 각각 18%, 17.3%, 14.2%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11.7%, 12.7%, 10.7%로 감소했음.
- 성적별로 숙제를 못 하거나 준비물을 못 챙기는 고등학생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하위권 학생 중에서 9시 등교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5.3%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32.4%로 증가했음. 중위권과 상위권의 경우에도 9시 등교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9%, 45.2%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47.6%, 52.8%로 증가했음. 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그런다고 응답한 비율은 9시 등교 이전 하위권과 중위권, 상위권에서 각각 29.2%, 12.8%, 10.4%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21.5%, 8.4%, 7.9%로 감소했음.
- 맞벌이 여부를 기준으로 숙제를 못하거나 준비물을 못 챙기는 고등학생의 비율을 살펴보면, 맞벌이 가정 중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5.2%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42.9%로 증가했음. 외벌이 가정 학생 중에서도 9시 등교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8.7%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47%로 증가했음. 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그런다고 응답한 비율은 9시 등교 이전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에서 각각 17.8%, 14.9%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12.7%, 10.3%로 감소했음.
- 등교 시 보호자가 집에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숙제를 못하거나 준비물을 못 챙기는 고등학생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보호자가 집에 있는 학생 중에서 9시 등교 이전에 그런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6.6%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45.1%로 증가했음. 보호자가 집에 없는 학생 중에서도 9시 등교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5.9%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42.4%로



증가했음. 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9시 등교 이전 보호자가 집에 있는 가정에서는 16.2%였다가 9시 등교 이후에는 10.9%로 감소했음. 보호자가 없는 가정에서도 그 비율이 9시 등교 이전에는 16.4%였다가 9시 등교 이후에는 14.3%로 감소했음.

〈표 4-22〉 숙제를 못하거나 준비물을 못 챙김(고등학생)

단위: %

항목	9시 등교 이전						9시 등교 이후						$\chi^2$	
	그런 적 없다	한 학기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합계 (명)	그런 적 없다	한 학기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합계 (명)		
학년	1학년	28.0	25.5	28.5	14.0	4.0	100 (1743)	36.2	27.6	24.5	9.3	2.4	100 (1728)	이전: 164.530*** 이후: 200.732***
	2학년	35.8	22.8	24.1	13.2	4.1	100 (1789)	41.8	23.8	21.7	9.8	2.9	100 (1781)	
	3학년	50.5	19.0	16.2	9.5	4.7	100 (1134)	61.0	14.4	13.9	6.9	3.8	100 (1119)	
성적	하위권	25.3	20.0	25.5	19.5	9.7	100 (1284)	32.4	21.8	24.3	14.7	6.8	100 (1273)	이전: 276.712*** 이후: 248.424***
	중위권	39.0	23.7	24.5	10.8	2.0	100 (2480)	47.6	22.8	21.3	7.4	1.0	100 (2460)	
	상위권	45.2	24.8	19.5	7.8	2.6	100 (870)	52.8	24.8	14.6	5.0	2.9	100 (864)	
맞벌이 여부	맞벌이	35.2	23.0	23.9	13.4	4.4	100 (3065)	42.9	23.5	20.8	9.7	3.0	100 (3037)	이전: 8.915 이후: 11.930*
	외벌이	38.7	22.6	23.7	11.2	3.7	100 (1585)	47.0	21.8	20.9	7.4	2.9	100 (1575)	
보호자 재가	재가	36.6	23.4	23.8	12.2	4.0	100 (3417)	45.1	22.8	21.1	8.3	2.6	100 (3388)	이전: 3.552 이후: 12.280*
	부재	35.9	21.8	23.9	13.7	2.7	100 (1224)	42.4	23.2	20.1	10.4	3.9	100 (1216)	

\*\*\* : p<.001, \*\* : p<.01, \* : p<.05

## 제3절 가정생활의 변화

### 1. 학교급별 비교

#### 가. 아침식사

- 초등학생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일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10.5%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7%로 감소했음. 반면 매일 아침식사를 한다고 응답한 초등학생들의 비율이 9시 등교 이전에는 64%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72.9%로 증가했음.

- 중학생의 경우에도 9시 등교 이전에는 일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18.5%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12.1%로 감소했음. 반면 매일 아침식사를 하는 비율이 9시 등교 이전에는 56.9%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65.1%로 증가했음.
- 고등학생의 경우 일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9시 등교 이전에는 26.3%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16.9%로 감소했음. 반면 매일 아침식사를 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9시 등교 이전에는 50.7%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58.5%로 증가했음.

〈표 4-23〉 아침식사 횟수(학교급별)

항목	9시 등교 이전					9시 등교 이후					$\chi^2$
	전혀 하지 않음	1-2일	3-4일	매일	합계 (명)	전혀 하지 않음	1-2일	3-4일	매일	합계 (명)	
초등학교	10.5	11.7	13.9	64.0	100 (3636)	7.0	8.2	11.9	72.9	100 (3607)	이전: 357.064 ***
중학교	18.5	12.2	12.4	56.9	100 (4673)	12.1	9.6	13.2	65.1	100 (4661)	
고등학교	26.3	12.6	10.4	50.7	100 (4710)	16.9	10.9	13.7	58.5	100 (4700)	이후: 247.769 ***
합계	19.1	12.2	12.1	56.6	100 (13019)	12.4	9.7	13.0	64.9	100 (12968)	

\*\*\* :  $p < .001$ , \*\* :  $p < .01$ , \* :  $p < .05$

#### 나.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

- 초등학생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하루 동안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이 전혀 없거나 30분 이하인 학생의 비율이 38.8%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33.3%로 감소했음. 반면 1시간 이상 대화한다고 응답한 초등학생들의 비율이 9시 등교 이전에는 61.1%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66.7%로 증가했음.
- 중학생의 경우에도 9시 등교 이전에는 하루 동안 어머니와 30분 이하로 대화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44.1%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39.7%로 감소했음. 반면 1시간 이상 대화한다는 학생들은 9시 등교 이전에는 55.8%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60.3%로 증가했음.

- 고등학생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하루 동안 어머니와 30분 이하로 대화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53.9%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48.8%로 감소했음. 반면 1시간 이상 대화한다는 학생들은 9시 등교 이전에는 46%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51.2%로 증가했음.

〈표 4-24〉 하루 동안 어머니와 대화 시간(학교급별)

단위: %

항목	9시 등교 이전					9시 등교 이후					$\chi^2$
	전혀 하지 않음	30분 정도	1시간 정도	2시간 이상	합계 (명)	전혀 하지 않음	30분 정도	1시간 정도	2시간 이상	합계 (명)	
초등학교	6.4	32.4	25.5	35.6	100 (3617)	5.3	28.0	27.4	39.3	100 (3591)	이전: 32.233**
중학교	8.2	35.9	28.1	27.7	100 (4666)	7.3	32.4	31.0	29.3	100 (4662)	
고등학교	9.1	44.8	28.8	17.2	100 (4705)	7.2	41.6	32.0	19.2	100 (4697)	이후: 40.955**
합계	8.0	38.2	27.7	26.1	100 (12988)	6.7	34.5	30.3	28.4	100 (12950)	

\*\*\* :  $p < .001$ , \*\* :  $p < .01$ , \* :  $p < .05$

#### 다.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

- 초등학생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하루 동안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이 전혀 없거나 30분 이하인 학생의 비율이 58.1%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53%로 감소했음. 반면 1시간 이상 대화한다고 응답한 초등학생들의 비율이 9시 등교 이전에는 41.9%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46.9%로 증가했음.
- 중학생의 경우에도 9시 등교 이전에는 하루 동안 아버지와 30분 이하로 대화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65.6%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61.7%로 감소했음. 반면 1시간 이상 대화한다는 학생들은 9시 등교 이전에는 34.3%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38.2%로 증가했음.
- 고등학생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하루 동안 아버지와 30분 이하로 대화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74.7%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70.9%로 감소했음. 반면

1시간 이상 대화한다는 학생들은 9시 등교 이전에는 25.2%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29.1%로 증가했음.

〈표 4-25〉 하루 동안 아버지와 대화 시간(학교급별)

단위: %

항목	9시 등교 이전					9시 등교 이후					$\chi^2$
	전혀 하지 않음	30분 정도	1시간 정도	2시간 이상	합계 (명)	전혀 하지 않음	30분 정도	1시간 정도	2시간 이상	합계 (명)	
초등학교	16.2	41.9	23.7	18.2	100 (3615)	14.3	38.7	26.2	20.7	100 (3598)	이전: 308.880***
중학교	17.9	47.7	21.8	12.5	100 (4654)	16.3	45.4	24.6	13.6	100 (4650)	
고등학교	21.2	53.5	17.4	7.8	100 (4696)	19.5	51.4	20.2	8.9	100 (4687)	이후: 344.564***
합계	18.6	48.2	20.8	12.4	100 (12965)	16.9	45.7	23.5	13.9	100 (12935)	

\*\*\* :  $p < .001$ , \*\* :  $p < .01$ , \* :  $p < .05$

## 2. 학교급 내 비교

### 가. 초등학생

#### 1) 아침식사

- 일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한 횟수를 학년별로 살펴본 결과 4, 5, 6학년에서 9시 등교 이전에 일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각각 8%, 8.7%, 14.7%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5.1%, 6.1%, 9.6%로 감소했음. 반면 매일 아침식사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시 등교 이전에 4, 5, 6학년에서 각각 68.5%, 64.3%, 59%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77.8%, 74.5%, 66.3%로 증가했음.
- 일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한 횟수를 성적별로 살펴본 결과 9시 등교 이전에 일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에서 각각 23.7%, 9.8%, 8%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15.3%, 6.6%, 5.2%로 감소했음. 반면 매일 아침식사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시 등교 이전에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에서 각각 47.2%, 61.6%, 70.9%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57.7%, 69.7%, 80.3%로 증가했음.

- 일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한 횟수를 맞벌이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9시 등교 이전에 일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에서 각각 11.0%, 8.4%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7.9%, 5.5%로 감소했음. 반면 매일 아침식사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시 등교 이전에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에서 각각 61.9%, 67.1%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70.1%, 77%로 증가했음.
- 일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한 횟수를 등교 시 보호자 재가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9시 등교 이전에 일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보호자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에서 각각 9.5%, 13.7%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6.2%, 9.6%로 감소했음. 반면 매일 아침식사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시 등교 이전에 보호자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에서 각각 65.5%, 58.5%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74.7%, 67.3%로 증가했음.

〈표 4-26〉 아침식사 횟수(초등학생)

단위: %

항목	9시 등교 이전					9시 등교 이후					$\chi^2$	
	전혀 하지 않음	1-2일	3-4일	매일	합계 (명)	전혀 하지 않음	1-2일	3-4일	매일	합계 (명)		
학년	4학년	8.0	9.9	13.6	68.5	100 (1210)	5.1	6.7	10.4	77.8	100 (1192)	이전: 45.485*** 이후: 47.174***
	5학년	8.7	12.4	14.6	64.3	100 (1233)	6.1	7.5	11.8	74.5	100 (1224)	
	6학년	14.7	12.8	13.4	59.0	100 (1191)	9.6	10.5	13.6	66.3	100 (1189)	
성적	하위권	23.7	15.0	14.1	47.2	100 (354)	15.3	15.3	11.6	57.7	100 (352)	이전: 119.959*** 이후: 124.943***
	중위권	9.8	13.4	15.3	61.6	100 (1750)	6.6	9.3	14.5	69.7	100 (1737)	
	상위권	8.0	9.0	12.1	70.9	100 (1493)	5.2	5.4	9.1	80.3	100 (1481)	
맞벌이여부	맞벌이	11.8	11.9	14.3	61.9	100 (2217)	7.9	8.7	13.3	70.1	100 (2196)	이전: 14.290** 이후: 21.544***
	외벌이	8.4	11.5	12.9	67.1	100 (1399)	5.5	7.5	10.0	77.0	100 (1391)	
보호자 재가	재가	9.5	11.2	13.8	65.5	100 (2777)	6.2	7.3	11.8	74.7	100 (2755)	이전: 17.846*** 이후: 23.703***
	부재	13.7	13.1	14.7	58.5	100 (810)	9.6	10.7	12.4	67.3	100 (804)	

\*\*\* : p<.001, \*\* : p<.01, \* : p<.05

## 2)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

- 하루 동안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을 학년별로 살펴본 결과 9시 등교 이전에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이 전혀 없거나 30분 이하인 학생의 비율이 4, 5, 6학년에서 각각 39.1%, 36.5%, 40.8%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32.8%, 32%, 35.2%로 감소했음. 반면 1시간 이상 대화한다고 응답한 초등학생들의 비율이 9시 등교 이전에는 4, 5, 6학년에서 각각 62.8%, 60.6%, 69.6%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67.1%, 68%, 64.9%로 증가했음.
- 하루 동안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을 성적별로 살펴본 결과 9시 등교 이전에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이 전혀 없거나 30분 이하인 학생의 비율이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에서 각각 52.8%, 42%, 31.8%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47.7%, 36.7%, 25.9%로 감소했음. 반면 1시간 이상 대화한다고 응답한 초등학생들의 비율이 9시 등교 이전에는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에서 각각 75.9%, 67.9%, 57.6%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52.3%, 63.2%, 74%로 증가했음.
- 하루 동안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을 맞벌이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9시 등교 이전에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이 전혀 없거나 30분 이하인 학생의 비율이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에서 각각 41.2%, 34.6%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36%, 28.9%로 감소했음. 반면 1시간 이상 대화한다고 응답한 초등학생들의 비율이 9시 등교 이전에는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에서 각각 67.3%, 59.4%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64.1%, 71.1%로 증가했음.
- 하루 동안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을 등교 시 보호자 재가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9시 등교 이전에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이 전혀 없거나 30분 이하인 학생의 비율이 보호자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에서 각각 36.8%, 46.2%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31.5%, 39.4%로 감소했음. 반면 1시간 이상 대화한다고 응답한 초등학생들의 비율이 9시 등교 이전에는 보호자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에서 각각 63.2%, 53.9%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68.5%, 60.5%로 증가했음.

(표 4-27) 하루 동안 어머니와 대화 시간(초등학생)

단위: %

항목	9시 등교 이전					9시 등교 이후					$\chi^2$	
	전혀 없음	30분 정도	1시간 정도	2시간 이상	합계 (명)	전혀 없음	30분 정도	1시간 정도	2시간 이상	합계 (명)		
학년	4학년	6.8	32.3	23.7	37.1	100 (1201)	5.2	27.6	25.9	41.2	100 (1184)	이전: 25.592***
	5학년	5.6	30.9	24.1	39.3	100 (1226)	5.0	27.0	25.2	42.8	100 (1220)	
	6학년	6.9	33.9	28.8	30.4	100 (1188)	5.7	29.5	31.1	33.8	100 (1185)	이후: 24.561***
성적	하위권	15.7	37.1	23.1	24.0	100 (350)	13.8	33.9	23.0	29.3	100 (348)	이전: 117.627***
	중위권	5.9	36.1	25.9	32.1	100 (1741)	5.0	31.7	27.9	35.3	100 (1727)	
	상위권	4.6	27.2	25.8	42.4	100 (1489)	3.4	22.5	27.9	46.1	100 (1479)	이후: 122.636***
맞벌이 여부	맞벌이	7.2	34.0	26.1	32.7	100 (2207)	5.9	30.1	28.0	36.1	100 (2186)	이전: 26.788***
	외벌이	5.0	29.6	24.8	40.5	100 (1390)	4.3	24.6	26.6	44.5	100 (1385)	이후: 28.887***
보호자 재가	재가	5.8	31.0	26.2	37.0	100 (2765)	4.8	26.7	27.6	40.9	100 (2745)	이전: 25.488***
	부재	8.7	37.5	23.0	30.9	100 (806)	6.7	32.7	26.3	34.2	100 (801)	이후: 19.755***

\*\*\* : p&lt;.001, \*\* : p&lt;.01, \* : p&lt;.05

### 3)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

- 하루 동안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을 학년별로 살펴본 결과 9시 등교 이전에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이 전혀 없거나 30분 이하인 학생의 비율이 4, 5, 6학년에서 각각 57.2%, 54.9%, 62.3%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52%, 49.9%, 57.6%로 감소했음. 반면 1시간 이상 대화한다고 응답한 초등학생들의 비율이 9시 등교 이전에는 4, 5, 6학년에서 각각 42.8%, 45.1%, 37.7%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48.1%, 50.1%, 42.4%로 증가했음.
- 하루 동안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을 성적별로 살펴본 결과 9시 등교 이전에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이 전혀 없거나 30분 이하인 학생의 비율이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에서 각각 67.9%, 59.9%, 54.1%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62.8%, 55.2%, 48.6%로 감소했음. 반면 1시간 이상 대화한다고 응답한 초등학생들의 비율이 9시 등교 이전에는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에서 각각 32.1%, 51.2%, 45.9%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37.3%, 44.8%, 51.4%로 증가했음.

- 하루 동안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을 맞벌이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9시 등교 이전에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이 전혀 없거나 30분 이하인 학생의 비율이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에서 각각 58.2%, 58%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53.5%, 52.5%로 감소했음. 반면 1시간 이상 대화한다고 응답한 초등학생들의 비율이 9시 등교 이전에는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에서 각각 41.8%, 42%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46.4%, 47.6%로 증가했음.
- 하루 동안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을 등교 시 보호자 재가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9시 등교 이전에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이 전혀 없거나 30분 이하인 학생의 비율이 보호자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에서 각각 57%, 61.9%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51.9%, 56.9%로 감소했음. 반면 1시간 이상 대화한다고 응답한 초등학생들의 비율이 9시 등교 이전에는 보호자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에서 각각 43%, 38%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48.1%, 43.2%로 증가했음.

〈표 4-28〉 하루 동안 아버지와 대화 시간(초등학생)

단위: %

항목	9시 등교 이전					9시 등교 이후					$\chi^2$	
	전혀 하지 않음	30분 정도	1시 간 정도	2시 간 이상	합계 (명)	전혀 하지 않음	30분 정도	1시 간 정도	2시 간 이상	합계 (명)		
학년	4학년	15.9	41.3	23.3	19.5	100 (1205)	14.4	37.6	26.5	21.6	100 (1190)	이전: 19.841**
	5학년	13.9	41.0	25.8	19.3	100 (1227)	12.2	37.7	27.6	22.5	100 (1223)	
	6학년	18.8	43.5	21.9	15.8	100 (1182)	16.5	41.1	24.4	18.0	100 (1183)	이후: 19.115***
성적	하위권	29.3	38.6	15.9	16.2	100 (352)	27.8	35.0	21.5	15.8	100 (349)	이전: 65.586***
	중위권	15.8	44.1	34.1	17.1	100 (1743)	13.3	41.9	25.2	19.6	100 (1737)	
	상위권	13.3	40.8	26.0	19.9	100 (1483)	12.2	36.4	28.6	22.8	100 (1476)	이후: 73.198***
맞벌이 여부	맞벌이	17.1	41.1	23.8	18.0	100 (2204)	15.7	37.8	26.0	20.4	100 (2193)	이전: 4.870
	외벌이	14.5	43.5	23.5	18.5	100 (1391)	12.1	40.4	26.4	21.2	100 (1385)	이후: 9.472*
보호자 재가	재가	14.7	42.3	24.6	18.4	100 (2762)	12.9	39.0	26.9	21.2	100 (2748)	이전: 20.946***
	부재	21.2	40.7	20.7	17.3	100 (805)	19.2	37.7	24.1	19.1	100 (802)	이후: 20.884***

\*\*\* : p&lt;.001, \*\* : p&lt;.01, \* : p&lt;.05



## 나. 중학생

### 1) 아침식사

- 일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한 횟수를 학년별로 살펴본 결과 1, 2, 3학년에서 9시 등교 이전에 일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각각 14.7%, 18.3%, 22.6%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9.6%, 11.2%, 15.4%로 감소했음. 반면 매일 아침식사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시 등교 이전에 1, 2, 3학년에서 각각 59.6%, 56.4%, 54.5%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68.4%, 66.1%, 60.8%로 증가했음.
- 일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한 횟수를 성적별로 살펴본 결과 9시 등교 이전에 일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에서 각각 25.9%, 18%, 12.8%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17.4%, 11.4%, 8.3%로 감소했음. 반면 매일 아침식사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시 등교 이전에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에서 각각 47.8%, 56.4%, 66%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56.6%, 65.2%, 73.1%로 증가했음.
- 일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한 횟수를 맞벌이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9시 등교 이전에 일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에서 각각 20.7%, 14.7%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13.6%, 9.4%로 감소했음. 반면 매일 아침식사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시 등교 이전에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에서 각각 54%, 61.9%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61.7%, 71.2%로 증가했음.
- 일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한 횟수를 등교 시 보호자 재가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9시 등교 이전에 일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보호자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에서 각각 17.1%, 22.2%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11.2%, 14%로 감소했음. 반면 매일 아침식사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시 등교 이전에 보호자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에서 각각 58.1%, 53.6%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67.4%, 59.4%로 증가했음.

〈표 4-29〉 아침식사 횟수(중학생)

단위: %

항목	9시 등교 이전					9시 등교 이후					$\chi^2$	
	전혀 하지 않음	1-2 일	3-4 일	매일	합계 (명)	전혀 하지 않음	1-2 일	3-4 일	매일	합계 (명)		
학년	1학년	14.7	12.4	13.3	59.6	100 (1567)	9.6	8.3	13.7	68.4	100 (1562)	이전: 33.809***
	2학년	18.3	12.3	13.0	56.4	100 (1575)	11.2	10.2	12.5	66.1	100 (1573)	
	3학년	22.6	12.1	10.9	54.5	100 (1526)	15.4	10.3	13.5	60.8	100 (1521)	이후: 34.851***
성적	하위권	25.9	14.1	12.3	47.8	100 (1159)	17.4	12.1	13.9	56.6	100 (1157)	이전: 106.508***
	중위권	18.0	12.8	12.8	56.4	100 (2137)	11.4	9.3	14.1	65.2	100 (2135)	
	상위권	12.8	9.6	11.5	66.0	100 (1328)	8.3	7.6	11.1	73.1	100 (1321)	이후: 88.698***
맞벌이 여부	맞벌이	20.7	12.9	12.4	54.0	100 (2923)	13.6	10.7	14.1	61.7	100 (2915)	이전: 36.676***
	외벌이	14.7	11.0	12.5	61.9	100 (1731)	9.4	7.6	11.8	71.2	100 (1727)	이후: 45.852***
보호자 재가	재가	17.1	11.9	12.8	58.1	100 (3369)	11.2	8.6	12.8	67.4	100 (3367)	이전: 19.561***
	부재	22.2	13.0	11.2	53.6	100 (1273)	14.0	12.3	14.3	59.4	100 (1264)	이후: 29.227***

\*\*\* : p&lt;.001, \*\* : p&lt;.01, \* : p&lt;.05

## 2)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

- 하루 동안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을 학년별로 살펴본 결과 9시 등교 이전에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이 전혀 없거나 30분 이하인 학생의 비율이 1, 2, 3학년에서 각각 43.8%, 43.6%, 45.1%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39.9%, 38.8%, 40.4%로 감소했음. 반면 1시간 이상 대화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9시 등교 이전에는 1, 2, 3학년에서 각각 52.2%, 56.5%, 54.8%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60.1%, 61.2%, 59.5%로 증가했음.
- 하루 동안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을 성적별로 살펴본 결과 9시 등교 이전에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이 전혀 없거나 30분 이하인 학생의 비율이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에서 각각 54.2%, 42.6%, 38%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48.8%, 37.6%, 35.2%로 감소했음. 반면 1시간 이상 대화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9시 등교 이전에는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에서 각각 45.8%, 57.4%, 62%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51.2%, 62.4%, 64.8%로 증가했음.

- 하루 동안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을 맞벌이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9시 등교 이전에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이 전혀 없거나 30분 이하인 학생의 비율이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에서 각각 46.7%, 39.6%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41.3%, 36.9%로 감소했음. 반면 1시간 이상 대화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9시 등교 이전에는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에서 각각 53.3%, 60.4%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58.8%, 63.1%로 증가했음.
- 하루 동안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을 등교 시 보호자 재가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9시 등교 이전에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이 전혀 없거나 30분 이하인 학생의 비율이 보호자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에서 각각 42.3%, 48.9%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38%, 43.8%로 감소했음. 반면 1시간 이상 대화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9시 등교 이전에는 보호자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에서 각각 57.7%, 51.1%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62%, 56.2%로 증가했음.

〈표 4-30〉 하루 동안 어머니와 대화 시간(중학생)

단위: %

항목	9시 등교 이전					9시 등교 이후					$\chi^2$	
	전혀 하지 않음	30분 정도	1시간 정도	2시간 이상	합계 (명)	전혀 하지 않음	30분 정도	1시간 정도	2시간 이상	합계 (명)		
학년	1학년	8.0	35.8	27.5	28.7	100 (1566)	7.0	32.9	29.5	30.6	100 (1564)	이전: 2.727 이후: 4.331
	2학년	8.5	35.1	28.6	27.9	100 (1572)	7.1	31.7	32.0	29.2	100 (1570)	
	3학년	8.1	37.0	28.3	26.5	100 (1523)	7.7	32.7	31.3	28.2	100 (1523)	
성적	하위권	14.7	39.5	22.2	23.6	100 (1159)	13.3	35.5	25.3	25.9	100 (1158)	이전: 112.071*** 이후: 108.905***
	중위권	6.7	35.9	28.7	28.7	100 (2135)	5.5	32.1	32.1	30.3	100 (2134)	
	상위권	4.8	33.2	32.2	29.8	100 (1324)	4.5	30.7	34.0	30.8	100 (1321)	
맞벌이 여부	맞벌이	9.2	37.5	27.7	25.6	100 (2920)	8.2	33.1	31.6	27.2	100 (2917)	이전: 31.249*** 이후: 25.578***
	외벌이	6.3	33.3	29.0	31.4	100 (1728)	5.6	31.3	30.0	33.1	100 (1726)	
보호자 재가	재가	7.2	35.1	29.1	28.6	100 (3366)	6.3	31.7	31.9	30.1	100 (3363)	이전: 23.073*** 이후: 21.438***
	부재	10.6	38.3	25.5	25.6	100 (1270)	9.6	34.2	28.5	27.7	100 (1266)	

\*\*\* : p&lt;.001, \*\* : p&lt;.01, \* : p&lt;.05

## 3)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

- 하루 동안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을 학년별로 살펴본 결과 9시 등교 이전에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이 전혀 없거나 30분 이하인 학생의 비율이 1, 2, 3학년에서 각각 64.9%, 64.9%, 67.3%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61.6%, 60.7%, 63.1%로 감소했음. 반면 1시간 이상 대화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9시 등교 이전에는 1, 2, 3학년에서 각각 35.2%, 35.2%, 32.7%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38.4%, 39.2%, 37%로 증가했음.
- 하루 동안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을 성적별로 살펴본 결과 9시 등교 이전에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이 전혀 없거나 30분 이하인 학생의 비율이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에서 각각 69.9%, 64.9%, 63.2%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66%, 61.3%, 59.1%로 감소했음. 반면 1시간 이상 대화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9시 등교 이전에는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에서 각각 30.1%, 35.1%, 36.8%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34%, 38.7%, 40.9%로 증가했음.
- 하루 동안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을 맞벌이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9시 등교 이전에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이 전혀 없거나 30분 이하인 학생의 비율이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에서 각각 66.4%, 64.3%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62.3%, 60.9%로 감소했음. 반면 1시간 이상 대화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9시 등교 이전에는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에서 각각 33.6%, 35.7%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37.8%, 39.1%로 증가했음.
- 하루 동안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을 등교 시 보호자 재가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9시 등교 이전에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이 전혀 없거나 30분 이하인 학생의 비율이 보호자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에서 각각 64.6%, 68.1%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61%, 63.6%로 감소했음. 반면 1시간 이상 대화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9시 등교 이전에는 보호자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에서 각각 35.4%, 31.8%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39%, 36.4%로 증가했음.

〈표 4-31〉 하루 동안 아버지와 대화 시간(중학생)

단위: %

항목	9시 등교 이전					9시 등교 이후					$\chi^2$	
	전혀 하지 않음	30분 정도	1시간 정도	2시간 이상	합계 (명)	전혀 하지 않음	30분 정도	1시간 정도	2시간 이상	합계 (명)		
학년	1학년	17.8	47.1	21.9	13.3	100 (1562)	16.4	45.2	24.2	14.2	100 (1559)	이전: 5.562
	2학년	16.7	48.2	22.5	12.7	100 (1573)	15.3	45.4	25.2	14.0	100 (1571)	
	3학년	19.3	48.0	21.0	11.7	100 (1514)	17.4	45.7	24.3	12.7	100 (1515)	이후: 3.866
성적	하위권	25.3	44.6	18.3	11.8	100 (1152)	23.1	42.9	20.8	13.2	100 (1150)	이전: 67.621***
	중위권	16.7	48.2	22.3	12.8	100 (2131)	15.3	46.0	24.8	13.9	100 (2130)	
	상위권	13.2	50.0	24.0	12.8	100 (1323)	12.1	47.0	27.5	13.4	100 (1322)	이후: 62.521***
맞벌이 여부	맞벌이	19.2	47.2	21.6	12.0	100 (2914)	16.9	45.4	24.5	13.3	100 (2912)	이전: 11.178*
	외벌이	15.5	48.8	22.2	13.5	100 (1722)	15.3	45.6	24.9	14.2	100 (1720)	이후: 2.316
보호자 재가	재가	16.1	48.5	22.9	12.5	100 (3356)	14.7	46.3	25.4	13.6	100 (3354)	이전: 27.265***
	부재	22.4	45.7	19.2	12.6	100 (1268)	20.5	43.1	22.7	13.7	100 (1266)	이후: 23.248***

\*\*\* : p&lt;.001, \*\* : p&lt;.01, \* : p&lt;.05

## 다. 고등학생

### 1) 아침식사

- 일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한 횟수를 학년별로 살펴본 결과 1, 2, 3학년에서 9시 등교 이전에 일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각각 25.4%, 25.8%, 28.4%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15%, 16.2%, 21%로 감소했음. 반면 매일 아침식사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시 등교 이전에 1, 2, 3학년에서 각각 51.2%, 49.1%, 52.1%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59%, 58.1%, 58%로 증가했음.
- 일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한 횟수를 성적별로 살펴본 결과 9시 등교 이전에 일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에서 각각 32.9%, 25.4%, 19.5%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22%, 16%, 12.4%로 감소했음. 반면 매일 아침식사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시 등교 이전에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에서 각각 43%, 51.5%, 58.8%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50.5%, 59.5%, 66.4%로 증가했음.

- 일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한 횟수를 맞벌이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9시 등교 이전에 일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에서 각각 27.3%, 24.3%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17.6%, 15.6%로 감소했음. 반면 매일 아침식사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시 등교 이전에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에서 각각 49.4%, 52.8%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57%, 61%로 증가했음.
- 일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한 횟수를 등교 시 보호자 재가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9시 등교 이전에 일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보호자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에서 각각 25.7%, 28.1%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15.9%, 20%로 감소했음. 반면 매일 아침식사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시 등교 이전에 보호자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에서 각각 51.3%, 48.5%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60.2%, 53.3%로 증가했음.

〈표 4-32〉 아침식사 횟수(고등학생)

항목	9시 등교 이전					9시 등교 이후					$\chi^2$	
	전혀 하지 않음	1-2일	3-4일	매일	합계 (명)	전혀 하지 않음	1-2일	3-4일	매일	합계 (명)		
학년	1학년	25.4	13.0	10.3	51.2	100 (1745)	15.0	10.9	15.1	59.0	100 (1747)	이전: 14.158* 이후: 25.227***
	2학년	25.8	13.5	11.6	49.1	100 (1797)	16.2	11.5	14.2	58.1	100 (1793)	
	3학년	28.4	10.6	8.8	52.1	100 (1132)	21.0	10.0	11.0	58.0	100 (1126)	
성적	하위권	32.9	14.4	9.6	43.0	100 (1281)	22.0	13.7	13.9	50.5	100 (1280)	이전: 72.453*** 이후: 69.791***
	중위권	25.4	12.5	10.7	51.5	100 (2487)	16.0	10.4	14.1	59.5	100 (2480)	
	상위권	19.5	10.4	11.3	58.8	100 (873)	12.4	8.6	12.6	66.4	100 (873)	
맞벌이 여부	맞벌이	27.3	12.6	10.7	49.4	100 (3072)	17.6	11.8	13.6	57.0	100 (3066)	이전: 6.757 이후: 12.184**
	외벌이	24.3	12.9	10.0	52.8	100 (1586)	15.6	9.2	14.2	61.0	100 (1584)	
보호자 재가	재가	25.7	12.4	10.6	51.3	100 (3423)	15.9	10.5	13.4	60.2	100 (3419)	이전: 4.458 이후: 19.301***
	부재	28.1	13.4	10.0	48.5	100 (1226)	20.0	11.9	14.8	53.3	100 (1222)	

\*\*\* : p<.001, \*\* : p<.01, \* : p<.05

## 2)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

- 하루 동안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을 학년별로 살펴본 결과 9시 등교 이전에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이 전혀 없거나 30분 이하인 학생의 비율이 1, 2, 3학년에서 각각 56.1%, 55.8%, 47.5%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49.7%, 51.3%, 43.2%로 감소했음. 반면 1시간 이상 대화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9시 등교 이전에는 1, 2, 3학년에서 각각 43.9%, 44.1%, 52.4%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50.2%, 48.7%, 56.8%로 증가했음.
- 하루 동안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을 성적별로 살펴본 결과 9시 등교 이전에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이 전혀 없거나 30분 이하인 학생의 비율이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에서 각각 57.1%, 52.3%, 54.9%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51.3%, 47.1%, 50.6%로 감소했음. 반면 1시간 이상 대화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9시 등교 이전에는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에서 각각 43%, 47.8%, 45.1%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48.6%, 52.9%, 49.3%로 증가했음.
- 하루 동안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을 맞벌이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9시 등교 이전에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이 전혀 없거나 30분 이하인 학생의 비율이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에서 각각 56.2%, 49.4%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51.1%, 44.3%로 감소했음. 반면 1시간 이상 대화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9시 등교 이전에는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에서 각각 43.9%, 50.5%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49%, 55.7%로 증가했음.
- 하루 동안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을 등교 시 보호자 재가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9시 등교 이전에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이 전혀 없거나 30분 이하인 학생의 비율이 보호자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에서 각각 52.3%, 58.6%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46.1%, 56.2%로 감소했음. 반면 1시간 이상 대화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9시 등교 이전에는 보호자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에서 각각 47.7%, 41.4%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53.8%, 43.8%로 증가했음.

〈표 4-33〉 하루 동안 어머니와 대화 시간(고등학생)

단위: %

항목	9시 등교 이전					9시 등교 이후					$\chi^2$	
	전혀 하지 않음	30분 정도	1시간 정도	2시간 이상	합계 (명)	전혀 하지 않음	30분 정도	1시간 정도	2시간 이상	합계 (명)		
학년	1학년	9.8	46.3	27.9	16.0	100 (1746)	7.4	42.3	32.4	17.8	100 (1745)	이전: 47.891*** 이후: 43.834***
	2학년	8.1	47.7	29.2	14.9	100 (1794)	6.8	44.5	31.9	16.8	100 (1791)	
	3학년	9.6	37.9	29.6	22.8	100 (1130)	7.7	35.5	31.5	25.3	100 (1127)	
성적	하위권	13.3	43.8	26.1	16.9	100 (1280)	10.2	41.1	29.9	18.7	100 (1279)	이전: 40.007*** 이후: 27.424***
	중위권	7.5	44.8	29.9	17.9	100 (2486)	5.8	41.3	33.0	19.9	100 (2480)	
	상위권	7.9	47.0	29.3	15.8	100 (871)	7.0	43.6	31.2	18.1	100 (871)	
맞벌이 여부	맞벌이	10.0	46.2	27.8	16.1	100 (3066)	8.2	42.9	31.1	17.9	100 (3062)	이전: 23.325*** 이후: 26.414***
	외벌이	7.3	42.1	31.0	19.5	100 (1588)	5.4	38.9	33.8	21.9	100 (1585)	
보호자 재가	재가	7.9	44.4	29.9	17.8	100 (3424)	5.6	40.5	33.6	20.2	100 (3418)	이전: 30.935*** 이후: 68.654***
	부재	12.7	45.9	25.9	15.5	100 (1222)	11.9	44.3	27.3	16.5	100 (1221)	

\*\*\* : p&lt;.001, \*\* : p&lt;.01, \* : p&lt;.05

### 3)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

- 하루 동안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을 학년별로 살펴본 결과 9시 등교 이전에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이 전혀 없거나 30분 이하인 학생의 비율이 1, 2, 3학년에서 각각 76.7%, 76.2%, 69.9%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71.9%, 72.9%, 66.1%로 감소했음. 반면 1시간 이상 대화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9시 등교 이전에는 1, 2, 3학년에서 각각 23.3%, 23.8%, 30.1%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28.1%, 27%, 34%로 증가했음.
- 하루 동안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을 성적별로 살펴본 결과 9시 등교 이전에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이 전혀 없거나 30분 이하인 학생의 비율이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에서 각각 75.2%, 74.7%, 74.6%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70.5%, 70.9%, 71.9%로 감소했음. 반면 1시간 이상 대화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9시 등교 이전에는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에서 각각 24.8%, 25.3%, 25.4%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29.6%, 29.1%, 28.1%로 증가했음.



- 하루 동안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을 맞벌이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9시 등교 이전에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이 전혀 없거나 30분 이하인 학생의 비율이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에서 각각 56%, 74.4%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70.9%, 71%로 감소했음. 반면 1시간 이상 대화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9시 등교 이전에는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에서 각각 25%, 25.6%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29.1%, 29%로 증가했음.
- 하루 동안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을 등교 시 보호자 재가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9시 등교 이전에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이 전혀 없거나 30분 이하인 학생의 비율이 보호자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에서 각각 74.1%, 76.8%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69.6%, 74.5%로 감소했음. 반면 1시간 이상 대화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9시 등교 이전에는 보호자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에서 각각 25.9%, 23.1%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각각 30.4%, 25.5%로 증가했음.

〈표 4-34〉 하루 동안 아버지와 대화 시간(고등학생)

단위: %

항목	9시 등교 이전					9시 등교 이후					$\chi^2$	
	전혀 하지 않음	30분 정도	1시간 정도	2시간 이상	합계 (명)	전혀 하지 않음	30분 정도	1시간 정도	2시간 이상	합계 (명)		
학년	1학년	21.4	55.3	16.3	7.0	100 (1746)	19.0	52.9	20.4	7.7	100 (1744)	이전: 36.545***
	2학년	21.1	55.1	17.7	6.1	100 (1789)	19.9	53.0	19.7	7.3	100 (1787)	
	3학년	21.1	48.8	18.6	11.5	100 (1126)	19.2	46.9	20.8	13.2	100 (1122)	
성적	하위권	27.2	48.0	15.6	9.2	100 (1278)	24.5	46.0	19.3	10.3	100 (1276)	이전: 52.262***
	중위권	18.2	56.5	18.4	6.9	100 (2478)	16.7	54.2	21.3	7.8	100 (2473)	
	상위권	21.2	53.4	17.1	8.3	100 (872)	20.0	51.9	18.1	10.0	100 (871)	
맞벌이 여부	맞벌이	2.9	53.1	17.3	7.7	100 (3061)	20.1	50.8	20.6	8.5	100 (3056)	이전: 2.330 이후: 4.552
	외벌이	19.9	54.5	17.6	8.0	100 (1584)	18.2	52.8	19.5	9.5	100 (1581)	
보호자 재가	재가	19.6	54.5	18.1	7.8	100 (3417)	17.6	52.0	21.3	9.1	100 (3409)	이전: 21.153*** 이후: 31.344***
	부재	25.7	51.1	15.4	7.7	100 (1220)	24.6	49.9	17.2	8.3	100 (1220)	

\*\*\* : p&lt;.001, \*\* : p&lt;.01, \* : p&lt;.05

## 제4절 공부시간의 변화

### 1. 학교급별 비교

- 하루 동안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의 경우 초등학생은 9시 등교 이전에는 1.28시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1.39시간으로 증가했으며, 그 차이(약 6.6분)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음. 중학생의 경우에도 9시 등교 이전에 비해 9시 등교 이후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약 12분 증가했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음.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9시 등교 이전에 비해 9시 등교 이후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약 8.4분 증가했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음.
- 일주일 동안 학습 관련 사교육에 투자한 시간의 경우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9시 등교 이전과 이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9시 등교 이전에 비해 9시 등교 이후 약 3.6분 정도 학습 관련 사교육에 시간을 덜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4-35〉 공부 시간의 변화(학교급별)

항목	집단	9시 등교 이전			9시 등교 이후			T (이전-이후)
		N	M	SD	N	M	SD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	초등학교	3532	1.28	1.283	3515	1.39	1.313	-9.082***
	중학교	4557	1.16	1.341	4546	1.36	1.419	-17.114***
	고등학교	4660	1.86	1.990	4635	2.00	1.975	-8.368***
	합계	12749	1.45	1.627	12696	1.60	1.647	-18.600***
학습 관련 사교육 시간	초등학교	3486	4.00	4.880	3464	4.06	4.857	-1.933
	중학교	4517	5.09	5.969	4511	5.11	5.949	-.778
	고등학교	4593	3.60	4.834	4575	3.54	4.850	2.777**
	합계	12596	4.24	5.320	12550	4.25	5.316	.079

\*\*\* :  $p < .001$ , \*\* :  $p < .01$ , \* :  $p < .05$

## 2. 학교급 내 비교

### 가. 초등학생

#### 1)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

- 초등학생이 하루 동안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을 학년별로 살펴본 결과 4학년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1.31시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1.45시간으로 약 8분 정도가 유의하게 증가했음. 5학년과 6학년도 9시 등교 이전에 비해 9시 등교 이후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각각 4.8분, 7.2분 정도 유의하게 증가했음.
-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을 성적별로 살펴본 결과 하위권 학생들은 9시 등교 이전과 이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중위권과 상위권은 9시 등교 이전에 비해 9시 등교 이후 각각 6.6분, 7.8분 유의하게 증가했음.
- 맞벌이 여부에 따라 하루 동안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을 살펴본 결과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 모두 9시 등교 이전에 비해 9시 등교 이후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증가했음. 구체적으로 맞벌이 가정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 비해 6.6분 정도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증가했으며, 외벌이 가정의 경우에도 7.2분 정도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증가했음.
- 등교 시 보호자가 집에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본 결과 두 가정 모두에서 9시 등교 이전에 비해 9시 등교 이후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6.6분 정도 증가했음.

〈표 4-36〉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초등학생)

항목	집단	9시 등교 이전			9시 등교 이후			T (이전-이후)
		N	M	SD	N	M	SD	
학년별	4학년	1177	1.31	1.243	1157	1.45	1.273	-5.613***
	5학년	1197	1.32	1.317	1196	1.40	1.363	-4.440***
	6학년	1156	1.21	1.284	1160	1.33	1.298	-5.571***
성적별	하위권	336	.95	1.285	333	.98	1.107	-1.225
	중위권	1693	1.20	1.167	1685	1.31	1.165	-6.563***
	상위권	1464	1.45	1.381	1457	1.58	1.476	-6.266***
맞벌이여부별	맞벌이	2144	1.21	1.257	2133	1.32	1.261	-7.343***
	외벌이	1369	1.38	1.316	1363	1.50	1.384	-5.329***

항목	집단	9시 등교 이전			9시 등교 이후			T (이전-이후)
		N	M	SD	N	M	SD	
등교시 보호자	재가	2705	1.30	1.302	2688	1.41	1.322	-7.571***
재가 여부별	부재	783	1.19	1.198	783	1.30	1.273	-5.630***

\*\*\* :  $p < .001$ , \*\* :  $p < .01$ , \* :  $p < .05$

## 2) 학습 관련 사교육 시간

- 초등학생의 학습 관련 사교육 시간의 변화를 학년별로 살펴본 결과 4, 5, 6학년 모두 9시 등교 이전과 이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성적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 외벌이 가정과 보호자 재가 가정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구체적으로 맞벌이 가정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 비해 9시 등교 이후 약 2.4분 정도 학습 관련 사교육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호자 재가 가정에서도 약 7.8분 정도 학습 관련 사교육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4-37〉 학습 관련 사교육 시간(초등학생)

항목	집단	9시 등교 이전			9시 등교 이후			T (이전-이후)
		N	M	SD	N	M	SD	
학년별	4학년	1161	3.38	4.419	1147	3.41	4.285	-.692
	5학년	1173	4.31	5.103	1170	4.41	5.238	-1.234
	6학년	1150	4.30	5.034	1145	4.34	4.933	-1.254
성적별	하위권	332	2.36	3.767	332	2.33	3.502	.000
	중위권	1660	3.62	4.652	1649	3.67	4.589	-1.337
	상위권	1460	4.77	5.180	1447	4.85	5.184	-1.508
맞벌이여부별	맞벌이	2120	3.89	4.753	2107	3.93	4.721	-.963
	외벌이	1345	4.15	5.073	1337	4.25	5.059	-2.006*
등교시 보호자	재가	2669	4.01	4.856	2651	4.14	4.928	-3.121**
재가 여부별	부재	772	3.96	4.987	768	3.81	4.662	1.276

\*\*\* :  $p < .001$ , \*\* :  $p < .01$ , \* :  $p < .05$

## 나. 중학생

### 1)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

- 9시 등교 이전과 이후 중학생이 하루 동안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어떻게 달라졌

는지를 학년별로 살펴본 결과 1학년과 2학년은 13.2분, 3학년은 9.6분 정도 유의하게 증가했음.

-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의 변화를 성적별로 살펴본 결과 하위권 학생들은 10.2분, 중위권 학생들은 13.2분, 상위권 학생들은 11.4분 정도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유의하게 증가했음.
-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도 모두 9시 등교 이전에 비해 9시 등교 이후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증가했음. 구체적으로 맞벌이 가정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 비해 11.4분 정도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증가했으며, 외벌이 가정의 경우에도 12.6분 정도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증가했음.
- 등교 시 보호자가 집에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본 결과 보호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12분, 보호자가 없는 가정에서는 11.4분 정도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유의하게 증가했음.

〈표 4-38〉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중학생)

항목	집단	9시 등교 이전			9시 등교 이후			T (이전-이후)
		N	M	SD	N	M	SD	
학년별	1학년	1529	1.18	1.282	1526	1.40	1.390	-10.261***
	2학년	1539	1.13	1.331	1529	1.35	1.418	-10.962***
	3학년	1487	1.16	1.409	1489	1.32	1.449	-8.328***
성적별	하위권	1111	.70	1.134	1104	.87	1.196	-7.147***
	중위권	2092	1.16	1.238	2088	1.38	1.322	-13.296***
	상위권	1309	1.54	1.508	1309	1.73	1.590	-8.468***
맞벌이여부별	맞벌이	2851	1.07	1.283	2844	1.26	1.350	-13.066***
	외벌이	1692	1.30	1.419	1688	1.51	1.511	-10.978***
등교시 보호자 재가 여부별	재가	3290	1.19	1.345	3281	1.39	1.430	-14.621***
	부재	1241	1.07	1.325	1240	1.26	1.384	-8.678***

\*\*\* :  $p < .001$ , \*\* :  $p < .01$ , \* :  $p < .05$

## 2) 학습 관련 사교육 시간

- 중학생의 학습 관련 사교육 시간의 변화를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 학년과 성적에 따라서는 9시 등교 이전과 이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 외벌이 가정과 보호자 부재 가정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구체적으로 외벌이 가정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 비해 9시 등교 이후 약 5.4분 정도 학습 관련 사교육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호자 부재 가정에서도 약 7.8분 정도 학습 관련 사교육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4-39〉 학습 관련 사교육 시간(중학생)

항목	집단	9시 등교 이전			9시 등교 이후			T (이전-이후)
		N	M	SD	N	M	SD	
학년별	1학년	1514	5.37	5.911	1516	5.34	5.784	-.264
	2학년	1517	4.93	5.941	1512	5.04	6.053	-1.753
	3학년	1484	4.96	6.050	1481	4.95	6.005	.851
성적별	하위권	1104	2.84	4.540	1102	2.92	4.570	-.767
	중위권	2080	5.27	5.841	2079	5.27	5.799	-.066
	상위권	1292	6.79	6.652	1288	6.80	6.655	-.753
맞벌이여부별	맞벌이	2836	4.82	5.866	2833	4.80	5.815	.486
	외벌이	1669	5.56	6.122	1667	5.65	6.144	-2.360*
등교시 보호자	재가	3263	5.25	6.110	3254	5.24	6.017	.319
재가 여부별	부재	1233	4.65	5.554	1234	4.78	5.761	-2.348*

\*\*\* :  $p < .001$ , \*\* :  $p < .01$ , \* :  $p < .05$

## 다. 고등학생

### 1)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

- 고등학생의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9시 등교 이전과 이후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학년별로 살펴본 결과 1학년은 16.8분, 2학년은 17.4분 유의하게 증가했음. 그러나 3학년은 19.2분 유의하게 감소했음. 1,2학년과 달리 3학년에서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감소한 것은 설문조사의 시점이 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이후였기 때문으로 보임.
-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의 변화를 성적별로 살펴본 결과 하위권 학생들은 11.4분, 중위권 학생들은 8.4분, 상위권 학생들은 4.8분 정도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유의하게 증가했음.
-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도 모두 9시 등교 이전에 비해 9시 등교 이후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증가했음. 구체적으로 맞벌이 가정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 비해 7.8분 정도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증가했으며, 외벌이 가정의 경우에도 9분 정도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증가했음.

- 등교 시 보호자가 집에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본 결과 보호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9.6분이 유의하게 증가했지만, 보호자가 없는 가정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표 4-40〉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고등학생)

항목	집단	9시 등교 이전			9시 등교 이후			T (이전-이후)
		N	M	SD	N	M	SD	
학년별	1학년	1717	1.49	1.536	1798	1.77	1.583	-12.559***
	2학년	1780	1.73	1.626	1781	2.02	1.707	-13.298***
	3학년	1136	2.65	2.761	1120	2.33	2.724	5.425***
성적별	하위권	1275	.87	1.413	1274	1.06	1.481	-6.404***
	중위권	2466	2.04	1.917	2449	2.18	1.892	-5.545***
	상위권	863	2.83	2.296	858	2.91	2.267	-2.433*
맞벌이여부별	맞벌이	3049	1.78	1.944	3032	1.91	1.937	-6.389***
	외벌이	1570	2.03	2.073	1563	2.18	2.036	-5.400***
등교시 보호자 재가 여부별	재가	3402	1.87	1.961	3386	2.03	1.949	-8.622***
	부재	1208	1.86	2.084	1200	1.93	2.056	-1.955

\*\*\* :  $p < .001$ , \*\* :  $p < .01$ , \* :  $p < .05$

## 2) 학습 관련 사교육 시간

- 고등학생의 학습 관련 사교육 시간의 변화를 학년별로 살펴본 결과, 2학년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1학년은 6.6분 정도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 3학년은 25.8분 정도 감소했음. 3학년에서 사교육 시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난 것은 설문조사 시점이 수능 직후였기 때문으로 보임.
- 성적에 따라서는 하위권과 중위권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상위권에서는 11.4분 정도 유의하게 감소했음.
- 맞벌이 가정과 보호자 재가 가정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구체적으로 맞벌이 가정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 비해 9시 등교 이후 약 4.2분 정도 학습 관련 사교육 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호자 재가 가정에서도 약 5.4분 정도 학습 관련 사교육 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4-41〉 학습 관련 사교육 시간(고등학생)

항목	집단	9시 등교 이전			9시 등교 이후			T (이전-이후)
		N	M	SD	N	M	SD	
학년별	1학년	1692	4.45	5.171	1687	4.56	5.248	-2.001*
	2학년	1747	3.79	4.911	1747	3.79	4.933	.294
	3학년	1128	2.12	3.760	1116	1.69	3.378	6.705***
성적별	하위권	1250	2.01	3.735	1252	2.02	3.769	.961
	중위권	2438	3.97	4.887	2424	3.92	4.960	1.345
	상위권	852	5.00	5.502	848	4.81	5.420	2.681**
맞벌이여부별	맞벌이	3004	3.37	4.650	2992	3.30	4.669	2.472*
	외벌이	1549	4.11	5.163	1544	4.07	5.173	1.302
등교시 보호자 재가 여부별	재가	3359	3.83	5.007	3345	3.74	4.990	3.004**
	부재	1187	3.05	4.307	1184	3.05	4.445	.259

\*\*\* : p&lt;.001, \*\* : p&lt;.01, \* : p&lt;.05

## 제5절 건강 상태의 변화

### 1. 학교급별 비교

- 9시 등교 이전과 이후 학생들이 인식하는 건강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학교 급별로 살펴보았음.
- 신체 건강의 경우<sup>1)</sup> 초등학생은 9시 등교 이전에는 2.06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1.85로 건강 상태가 유의하게 좋아졌음.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9시 등교 이전에는 각각 2.34, 2.64였던 신체 건강 상태가 9시 등교 이후에는 각각 2.09, 2.37로 유의하게 좋아졌음.
- 정신 건강의 경우<sup>2)</sup> 초등학생은 9시 등교 이전에는 1.82였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1.68로 건강 상태가 유의하게 좋아졌음.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9시 등교

1) 신체 건강은 ① 배고픔이나 속쓰림을 느낄 때가 많다 ② 몸에 기운이 없고 아플 때가 많다의 두 문항을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5)로 설문한 값의 평균값이다. 따라서 값이 클수록 신체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정신 건강은 ① 주변 사람에게 짜증이 날 때가 많다 ② 의욕이 없고 우울할 때가 많다 ③ 초조하고 뭔가에 쫓기는 기분이 들 때가 많다의 세 문항을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5)로 설문한 값의 평균값이다. 따라서 값이 클수록 정신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각각 2.09, 2.38이었던 정신 건강 상태가 9시 등교 이후에는 각각 1.88, 2.14로 유의하게 좋아졌음.

〈표 4-42〉 건강 상태의 변화(학교급별 비교)

항목	집단	9시 등교 이전			9시 등교 이후			T (이전-이후)
		N	M	SD	N	M	SD	
신체 건강	초등학교	3633	2.06	1.077	3501	1.85	.992	15.241***
	중학교	4664	2.34	1.172	4584	2.09	1.041	19.708***
	고등학교	4683	2.64	1.193	4666	2.37	1.077	18.944***
	합계	12980	2.37	1.177	12751	2.12	1.062	31.202***
정신 건강	초등학교	3627	1.82	.949	3493	1.68	.889	13.255***
	중학교	4660	2.09	1.062	4580	1.88	.937	18.321***
	고등학교	4685	2.38	1.123	4660	2.14	1.011	18.332***
	합계	12972	2.12	1.078	12733	1.92	.970	29.027***

\*\*\* :  $p < .001$ , \*\* :  $p < .01$ , \* :  $p < .05$

## 2. 학교급 내 비교

### 가. 초등학생

#### 1) 신체 건강

- 초등학생들의 신체 건강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학년별로 살펴본 결과, 9시 등교 이전에 비해 9시 등교 이후 4, 5, 6학년 모두에서 신체 건강에 대한 인식이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성적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도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 모두에서 9시 등교 이전에 비해 9시 등교 이후 신체 건강에 대한 인식이 유의하게 향상되었음.
-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 등교 시 보호자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 모두에서도 9시 등교 이전에 비해 9시 등교 이후 신체 건강에 대한 인식이 유의하게 향상되었음.

〈표 4-43〉 신체 건강(초등학생)

항목	집단	9시 등교 이전			9시 등교 이후			T (이전-이후)
		N	M	SD	N	M	SD	
학년별	4학년	1215	1.93	1.034	1143	1.73	.955	8,306***
	5학년	1226	2.04	1.059	1191	1.86	1.017	7,368***
	6학년	1190	2.21	1.120	1165	1.94	.994	10,710***
성적별	하위권	351	2.40	1.118	332	2.09	1.038	6,577***
	중위권	1748	2.08	1.064	1680	1.88	.992	9,820***
	상위권	1494	1.94	1.066	1454	1.74	.971	9,670***
맞벌이여부별	맞벌이	2215	2.10	1.095	2135	1.87	1.001	12,509***
	외벌이	1398	2.00	1.048	1347	1.80	.978	8,795***
보호자 재가	재가	2774	2.05	1.075	2677	1.83	.981	14,010***
여부별	부재	809	2.07	1.079	778	1.89	1.021	5,880***

\*\*\* :  $p < .001$ , \*\* :  $p < .01$ , \* :  $p < .05$ 

## 2) 정신 건강

- 초등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학년별로 살펴본 결과, 신체 건강과 마찬가지로 모든 학년에서 9시 등교 이전에 비해 9시 등교 이후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이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성적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도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 모두에서 9시 등교 이전에 비해 9시 등교 이후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이 유의하게 향상되었음.
-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 등교 시 보호자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 모두에서도 9시 등교 이전에 비해 9시 등교 이후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이 유의하게 향상되었음.

〈표 4-44〉 정신 건강(초등학생)

항목	집단	9시 등교 이전			9시 등교 이후			T (이전-이후)
		N	M	SD	N	M	SD	
학년별	4학년	1213	1.69	.880	1144	1.58	.830	6,498***
	5학년	1224	1.81	.945	1184	1.67	.889	7,649***
	6학년	1188	1.97	1.001	1164	1.78	.933	8,663***
성적별	하위권	350	2.18	1.053	333	1.95	1.016	6,392***
	중위권	1745	1.84	.915	1674	1.70	.855	9,054***
	상위권	493	1.72	.937	1451	1.59	.879	7,491***
맞벌이여부별	맞벌이	2210	1.85	.966	2128	1.70	.892	10,679***
	외벌이	1397	1.78	.923	1346	1.65	.883	7,800***
보호자 재가	재가	2769	1.83	.956	2671	1.68	.888	12,082***
여부별	부재	809	1.81	.931	776	1.70	.894	5,241***

\*\*\* :  $p < .001$ , \*\* :  $p < .01$ , \* :  $p < .05$

## 나. 중학생

### 1) 신체 건강

- 중학생들의 신체 건강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학년별로 살펴본 결과, 9시 등교 이전에 비해 9시 등교 이후 모든 학년에서 신체 건강에 대한 인식이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중학생들의 신체 건강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성적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도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 모두에서 9시 등교 이전에 비해 9시 등교 이후 신체 건강에 대한 인식이 유의하게 향상되었음.
-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 등교 시 보호자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 모두에서도 9시 등교 이전에 비해 9시 등교 이후 신체 건강에 대한 인식이 유의하게 향상되었음.

〈표 4-45〉 신체 건강(중학생)

항목	집단	9시 등교 이전			9시 등교 이후			T (이전-이후)
		N	M	SD	N	M	SD	
학년별	1학년	1562	2.21	1.148	1526	1.97	1.004	11.095***
	2학년	1573	2.34	1.164	1546	2.10	1.046	11.571***
	3학년	1528	2.45	1.191	1511	2.20	1.062	11.470***
성적별	하위권	1156	2.51	1.197	1132	2.26	1.072	10.091***
	중위권	2138	2.37	1.167	2105	2.09	1.016	14.938***
	상위권	1325	2.13	1.121	1302	1.95	1.029	8.043***
맞벌이여부별	맞벌이	2921	2.37	1.174	2867	2.12	1.039	15.227***
	외벌이	1728	2.28	1.161	1703	2.03	1.037	12.554***
보호자 재가 여부별	재가	3363	2.33	1.169	3312	2.08	1.032	17.284***
	부재	1273	2.35	1.173	1246	2.12	1.063	9.325***

\*\*\* :  $p < .001$ , \*\* :  $p < .01$ , \* :  $p < .05$

### 2) 정신 건강

- 중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학년별로 살펴본 결과, 신체 건강과 마찬가지로 모든 학년에서 9시 등교 이전에 비해 9시 등교 이후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이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성적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도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 모두에서 9시 등교 이전에 비해 9시 등교 이후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이 유의하게 향상되었음.
-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 등교 시 보호자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 모두에서도

9시 등교 이전에 비해 9시 등교 이후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이 유의하게 향상되었음.

〈표 4-46〉 정신 건강(중학생)

항목	집단	9시 등교 이전			9시 등교 이후			T (이전-이후)
		N	M	SD	N	M	SD	
학년별	1학년	1562	1.98	1.023	1522	1.80	.929	9.421***
	2학년	1572	2.10	1.068	1548	1.90	.936	10.370***
	3학년	1525	2.19	1.087	1509	1.94	.942	11.952***
성적별	하위권	1155	2.22	1.103	1130	2.01	.989	10.107***
	중위권	2135	2.09	1.050	2103	1.86	.901	13.979***
	상위권	1325	1.96	1.022	1302	1.82	.939	6.745***
맞벌이여부별	맞벌이	2917	2.11	1.063	2868	1.90	.933	15.024***
	외벌이	1729	2.04	1.056	1699	1.86	.938	10.449***
보호자 재가 여부별	재가	3362	2.07	1.053	3308	1.86	.918	15.933***
	부재	1273	2.13	1.083	1248	1.94	.980	8.837***

\*\*\* :  $p < .001$ , \*\* :  $p < .01$ , \* :  $p < .05$

## 다. 고등학생

### 1) 신체 건강

- 고등학생들의 신체 건강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학년별로 살펴본 결과, 초등학생이 나 중학생과 마찬가지로 9시 등교 이전에 비해 9시 등교 이후 모든 학년에서 신체 건강에 대한 인식이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고등학생들의 신체 건강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성적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도 초중 학교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 모두에서 9시 등교 이전에 비해 9시 등교 이후 신체 건강에 대한 인식이 유의하게 향상되었음.
-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 등교 시 보호자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 모두에서도 9시 등교 이전에 비해 9시 등교 이후 신체 건강에 대한 인식이 유의하게 향상되었음.

〈표 4-47〉 신체 건강(고등학생)

항목	집단	9시 등교 이전			9시 등교 이후			T (이전-이후)
		N	M	SD	N	M	SD	
학년별	1학년	1744	2.64	1.205	1738	2.33	1.084	12.925***
	2학년	1800	2.65	1.159	1796	2.41	1.061	10.627***
	3학년	1136	2.61	1.228	1130	2.34	1.091	8.971***
성적별	하위권	1288	2.75	1.209	1275	2.45	1.088	10.958***
	중위권	2488	2.64	1.165	2486	2.38	1.045	14.032***
	상위권	872	2.48	1.235	871	2.23	1.141	6.845***
맞벌이여부별	맞벌이	3080	2.65	1.195	3070	2.38	1.079	14.956***
	외벌이	1585	2.62	1.189	1579	2.33	1.074	11.661***
보호자 재가	재가	3431	2.63	1.188	3420	2.35	1.064	17.357***
여부별	부재	1225	2.66	1.207	1220	2.41	1.112	8.216***

\*\*\* :  $p < .001$ , \*\* :  $p < .01$ , \* :  $p < .05$ 

## 2) 정신 건강

- 고등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학년별로 살펴본 결과, 초등학생이 나 중학생과 마찬가지로 모든 학년에서 9시 등교 이전에 비해 9시 등교 이후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이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성적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도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 모두에서 9시 등교 이전에 비해 9시 등교 이후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이 유의하게 향상되었음.
-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 등교 시 보호자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 모두에서도 9시 등교 이전에 비해 9시 등교 이후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이 유의하게 향상되었음.

〈표 4-48〉 정신 건강(고등학생)

항목	집단	9시 등교 이전			9시 등교 이후			T (이전-이후)
		N	M	SD	N	M	SD	
학년별	1학년	1747	2.37	1.104	1737	2.12	.984	12.121***
	2학년	1798	2.41	1.118	1794	2.18	1.016	11.459***
	3학년	1137	2.36	1.160	1127	2.12	1.040	7.933***
성적별	하위권	1288	2.45	1.140	1274	2.20	1.030	10.049***
	중위권	2490	2.38	1.093	2483	2.15	.984	13.818***
	상위권	872	2.29	1.176	869	2.04	1.052	6.996***
맞벌이여부별	맞벌이	3080	2.40	1.124	3065	2.15	1.014	15.153***
	외벌이	1587	2.35	1.119	1578	2.13	1.005	10.359***
보호자 재가	재가	3433	2.37	1.117	3416	2.11	.985	17.822***
여부별	부재	1225	2.42	1.140	1218	2.23	1.076	6.7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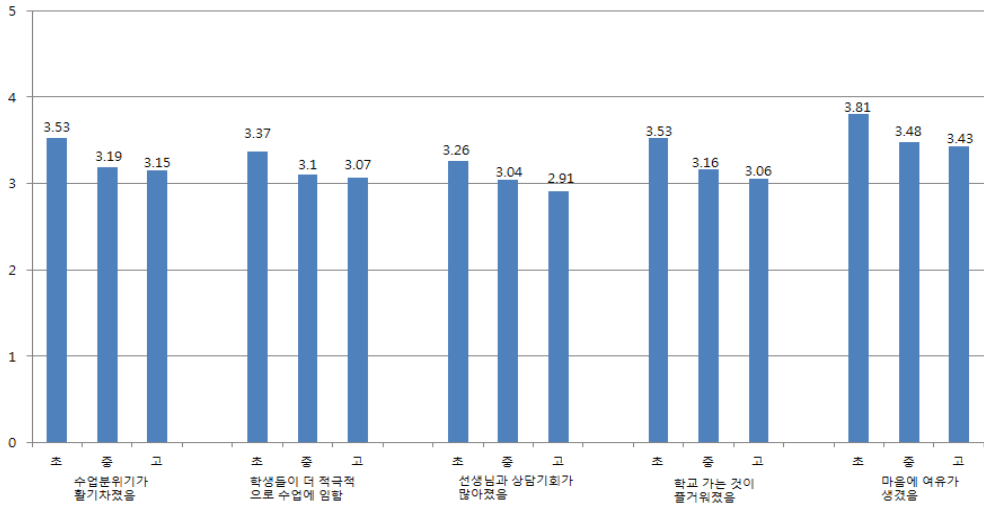
\*\*\* :  $p < .001$ , \*\* :  $p < .01$ , \* :  $p < .05$

## 제6절 수업분위기 및 학교에 대한 태도의 변화

### 1. 학생

#### 가. 학교급별 비교

- 9시 등교로 인해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학교급별로 살펴보았음.
- 9시 등교를 한 다음부터 수업분위기가 더 활기차졌는지,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는지 등을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혹은 매우 나빠졌다, 5=매우 그렇다 혹은 매우 좋아졌다)로 설문한 결과 학교급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항목에서 3.0 이상의 값이 나타났음. 특히 초등학생이 중학교생이나 고등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이고 있었음.
- 초등학생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3.0 이상의 값이 나타난 가운데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3.81)와 학교 가는 것이 즐거워졌다(3.53), 수업분위기가 활기차졌다(3.53)는 인식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한편 선생님과 상담 기회가 많아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값이 나타났음.
- 중학생의 경우에도 모든 항목에서 3.0 이상의 값이 나타난 가운데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3.48)는 인식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여타의 항목에서는 3.0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값이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은 값이 나타났음.
-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선생님과 상담 기회가 많아졌다(2.91)는 항목을 제외한 여타의 항목에서 3.0 이상의 값이 나타났음. 특히 중학생과 마찬가지로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3.48)는 인식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그림 4-1) 수업 분위기 및 학교에 대한 태도의 변화(학생, 학교급별)

## 나. 학교급 내 비교

### 1) 초등학생

- 9시 등교를 한 다음부터 수업분위기가 더 활기차졌는지를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혹은 매우 나빠졌다, 5=매우 그렇다 혹은 매우 좋아졌다)로 설문한 결과 모든 학년에서 3.4 이상의 값이 나타난 가운데 4학년이 5, 6학년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이고 있었음.
- 성적별 비교에서도 성과 관계없이 3.4 이상의 값이 나타난 가운데 상위권 학생들이 하위권 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이고 있었음.
- 맞벌이 여부와 등교시 보호자 재가 여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표 4-49〉 수업분위기가 활기차졌음(초등학생)

	집단	N	M(약간 그렇다 이상 비율)	SD	F/T	사후검정
학년	1. 4학년	1219	3.73(53.6)	.942	45.330***	1-2*** 1-3***
	2. 5학년	1233	3.46(40.1)	.901		
	3. 6학년	1193	3.40(38.1)	.869		
	합계	3645	3.53(43.9)	.916		
성적	1. 하위권	355	3.41(40.8)	.986	4.265*	1-3*
	2. 중위권	1752	3.52(44.1)	.897		
	3. 상위권	1499	3.57(44.4)	.932		
	합계	1606	3.53(43.9)	.913		
맞벌이여부	1. 맞벌이	2222	3.53(43.6)	.894	-.047	-
	2. 외벌이	1404	3.53(44.4)	.948		
	합계	3626	3.53(43.9)	.915		
보호자 재가	1. 재가	2785	3.55(45.0)	.909	2.782**	-
	2. 부재	813	3.45(40.3)	.923		
	합계	3598	3.53(43.9)	.913		

\*\*\* :  $p < .001$ , \*\* :  $p < .01$ , \* :  $p < .05$ 

- 9시 등교를 한 다음부터 동료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는지를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혹은 매우 나빠졌다, 5=매우 그렇다 혹은 매우 좋아졌다)로 설문한 결과 모든 학년에서 3.27 이상의 값이 나타난 가운데 4학년이 5, 6학년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이고 있었음.
- 성적이나 맞벌이 여부, 등교 시 보호자 재가 여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표 4-50〉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함(초등학생)

	집단	N	M(약간 그렇다 이상 비율)	SD	F/T	사후검정
학년	1. 4학년	1212	3.56(46.0)	.919	41.393***	1-2*** 1-3***
	2. 5학년	1225	3.28(30.9)	.891		
	3. 6학년	1192	3.27(30.7)	.813		
	합계	3629	3.37(35.9)	.886		
성적	1. 하위권	354	3.30(35.6)	.977	1.355	-
	2. 중위권	1742	3.37(35.8)	.856		
	3. 상위권	1494	3.39(36.0)	.893		
	합계	3590	3.37(35.9)	.884		
맞벌이여부	1. 맞벌이	2215	3.35(35.2)	.871	-1.230	-
	2. 외벌이	1395	3.39(36.7)	.907		
	합계	3610	3.37(35.8)	.885		
보호자 재가	1. 재가	2772	3.39(36.4)	.883	2.610**	-
	2. 부재	811	3.30(33.5)	.886		
	합계	3583	3.37(35.9)	.884		

\*\*\* :  $p < .001$ , \*\* :  $p < .01$ , \* :  $p < .05$



- 9시 등교를 한 다음부터 선생님과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는지를 5점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혹은 매우 나빠졌다, 5=매우 그렇다 혹은 매우 좋아졌다)로 설문한 결과 모든 학년에서 3.21 이상의 값이 나타난 가운데 4학년이 5, 6학년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이고 있었음.
- 성적별로 비교한 결과에서는 상위권 학생들이 중위권, 하위권 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이고 있었음.
- 맞벌이 여부, 등교 시 보호자 재가 여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표 4-51〉 선생님과의 상담기회가 많아졌음(초등학생)

	집단	N	M(약간 그렇다 이상 비율)	SD	F/T	사후검정
학년	1. 4학년	1214	3.36(36.8)	.961	10.156***	4-5** 4-6***
	2. 5학년	1230	3.22(28.8)	.932		
	3. 6학년	1193	3.21(28.0)	.846		
	합계	3637	3.27(31.2)	.917		
성적	1. 하위권	354	3.16(30.2)	.975	5.622**	1-3* 2-3*
	2. 중위권	1747	3.24(29.9)	.899		
	3. 상위권	1497	3.32(33.1)	.919		
	합계	3598	3.27(31.2)	.916		
맞벌이여부	1. 맞벌이	2217	3.26(31.3)	.911	-.281	-
	2. 외벌이	1401	3.27(31.1)	.923		
	합계	3618	3.27(31.3)	.916		
보호자 재가	1. 재가	2779	3.28(31.5)	.908	1.552	-
	2. 부재	811	3.22(30.1)	.944		
	합계	3590	3.26(31.2)	.916		

\*\*\* :  $p < .001$ , \*\* :  $p < .01$ , \* :  $p < .05$

- 9시 등교를 한 다음부터 학교 가는 것이 즐거워졌는지를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혹은 매우 나빠졌다, 5=매우 그렇다 혹은 매우 좋아졌다)로 설문한 결과 모든 학년에서 3.37 이상의 값이 나타난 가운데 4학년이 5, 6학년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이고 있었음.
- 성적별로 비교한 결과에서는 상위권 학생들이 중위권, 하위권 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이고 있었음.
- 맞벌이 여부, 등교 시 보호자 재가 여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표 4-52〉 학교 가는 것이 즐거워졌음(초등학생)

	집단	N	M(약간 그렇다 이상 비율)	SD	F/T	사후검정
학년	1. 4학년	1213	3.76(56.6)	1.038	48.722***	4-5*** 4-6***
	2. 5학년	1227	3.46(41.6)	1.038		
	3. 6학년	1191	3.37(38.4)	.968		
	합계	3631	3.53(45.6)	1.029		
성적	1. 하위권	353	3.36(42.5)	1.150	5.821**	1-2* 1-3**
	2. 중위권	1745	3.54(45.5)	1.000		
	3. 상위권	1495	3.57(46.5)	1.026		
	합계	3593	3.53(45.6)	1.028		
맞벌이여부	1. 맞벌이	2215	3.51(44.7)	1.024	-1.465	-
	2. 외벌이	1397	3.56(47.0)	1.034		
	합계	3612	3.53(45.6)	1.028		
보호자 재가	1. 재가	2778	3.56(46.5)	1.020	2.920	-
	2. 부재	806	3.44(41.8)	1.051		
	합계	3584	3.53(45.6)	1.028		

\*\*\* : p&lt;.001, \*\* : p&lt;.01, \* : p&lt;.05

- 9시 등교를 한 다음부터 마음에 여유가 생겼는지를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혹은 매우 나빠졌다, 5=매우 그렇다 혹은 매우 좋아졌다)로 설문한 결과 모든 학년에서 3.75 이상의 높은 값이 나타난 가운데 4학년이 5, 6학년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이고 있었음.
- 성적별로 비교한 결과에서는 상위권 학생들이 중위권, 하위권 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이고 있었음.
- 맞벌이 여부, 등교 시 보호자 재가 여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표 4-53〉 마음에 여유가 생겼음(초등학생)

	집단	N	M(약간 그렇다 이상 비율)	SD	F/T	사후검정
학년	1. 4학년	1217	3.98(67.6)	1.052	25.262***	4-5*** 4-6***
	2. 5학년	1229	3.75(56.8)	1.098		
	3. 6학년	1189	3.69(55.8)	1.047		
	합계	3635	3.81(60.1)	1.073		
성적	1. 하위권	351	3.62(53.6)	1.174	7.097**	1-2* 1-3**
	2. 중위권	1748	3.80(60.0)	1.036		
	3. 상위권	1497	3.86(62.1)	1.084		
	합계	3596	3.81(60.1)	1.072		
맞벌이여부	1. 맞벌이	2218	3.81(59.9)	1.070	-.185	-
	2. 외벌이	1399	3.81(60.5)	1.077		
	합계	3617	3.81(60.1)	1.073		

	집단	N	M(약간 그렇다 이상 비율)	SD	F/T	사후검정
보호자 재가	1. 재가	2777	3.83(60.6)	1.062	2.823**	-
	2. 부재	811	3.71(60.6)	1.104		
	합계	3588	3.81(60.1)	1.073		

\*\*\* :  $p < .001$ , \*\* :  $p < .01$ , \* :  $p < .05$

## 2) 중학생

- 중학생을 대상으로 9시 등교를 한 다음부터 수업분위기가 더 활기차졌는지를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혹은 매우 나빠졌다, 5=매우 그렇다 혹은 매우 좋아졌다)로 설문한 결과 학년, 맞벌이 여부, 등교 시 보호자 재가 여부 등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 성적별 비교에서는 중위권 학생들이 상위권 학생들에 비해  $p < .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이고 있었음.

〈표 4-54〉 수업분위기가 활기차졌음(중학생)

	집단	N	M(약간 그렇다 이상 비율)	SD	F/T	사후검정
학년	1. 1학년	1568	3.23(31.5)	.858	2.467	-
	2. 2학년	1574	3.18(29.0)	.865		
	3. 3학년	1528	3.16(25.6)	.823		
	합계	4670	3.19(28.7)	.849		
성적	1. 하위권	1162	3.19(28.3)	.832	3.347*	2-3*
	2. 중위권	2136	3.22(29.3)	.822		
	3. 상위권	1329	3.15(27.9)	.901		
	합계	4627	3.19(28.7)	.848		
맞벌이여부	1. 맞벌이	2925	3.19(28.2)	.841	.013	-
	2. 외벌이	1732	3.19(29.3)	.859		
	합계	4657	3.19(28.6)	.848		
보호자 재가	1. 재가	3373	3.19(28.5)	.841	-.726	-
	2. 부재	1271	3.21(29.1)	.862		
	합계	4644	3.19(28.6)	.847		

\*\*\* :  $p < .001$ , \*\* :  $p < .01$ , \* :  $p < .05$

- 중학생을 대상으로 9시 등교를 한 다음부터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는지를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혹은 매우 나빠졌다, 5=매우 그렇다 혹은 매우 좋아졌다)로 설문한 결과 학년, 맞벌이 여부, 등교 시 보호자 재가 여부 등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 성적별 비교에서는 중위권 학생들이 상위권 학생들에 비해  $p < .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이고 있었음.

〈표 4-55〉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함(중학생)

	집단	N	M(약간 그렇다 이상 비율)	SD	F/T	사후검정
학년	1. 1학년	1565	3.10(24.9)	.842	.018	-
	2. 2학년	1572	3.10(24.3)	.856		
	3. 3학년	1525	3.10(22.6)	.805		
	합계	4662	3.10(23.9)	.835		
성적	1. 하위권	1160	3.11(23.8)	.806	7.269**	2-3**
	2. 중위권	2131	3.14(24.8)	.802		
	3. 상위권	3129	3.03(22.6)	.907		
	합계	4620	3.10(23.9)	.836		
맞벌이여부	1. 맞벌이	2922	3.11(23.8)	.825	.538	
	2. 외벌이	1728	3.09(24.1)	.851		
	합계	4650	3.10(23.9)	.835		
보호자 재가	1. 재가	3366	3.09(23.7)	.835	-1.179	
	2. 부재	1271	3.12(24.5)	.827		
	합계	4637	3.10(23.9)	.833		

\*\*\* :  $p < .001$ , \*\* :  $p < .01$ , \* :  $p < .05$

- 중학생을 대상으로 9시 등교를 한 다음부터 선생님과의 상담 기회가 많아졌는지를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혹은 매우 나빠졌다, 5=매우 그렇다 혹은 매우 좋아졌다)로 설문한 결과 맞벌이 여부, 등교 시 보호자 재가 여부 등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 학년별 비교에서는 1학년이 2학년에 비해  $p < .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였으며, 성적별 비교에서는 하위권 학생과 중위권 학생들이 상위권 학생들에 비해  $p < .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이고 있었음.

〈표 4-56〉 선생님과의 상담기회가 많아졌음(중학생)

	집단	N	M(약간 그렇다 이상 비율)	SD	F/T	사후검정
학년	1. 1학년	1565	3.09(22.9)	.860	4.218*	1-2*
	2. 2학년	1572	3.00(19.1)	.862		
	3. 3학년	1526	3.05(20.2)	.836		
	합계	2663	3.04(20.8)	.854		
성적	1. 하위권	1159	3.07(22.9)	.824	5.839**	1-3* 2-3**
	2. 중위권	2134	3.07(19.1)	.830		
	3. 상위권	1328	2.98(20.2)	.912		
	합계	4621	3.04(20.8)	.853		

	집단	N	M(약간 그렇다 이상 비율)	SD	F/T	사후검정
맞벌이여부	1. 맞벌이	2922	3.05(20.9)	.845	.719	-
	2. 외벌이	1729	3.03(20.4)	.866		
	합계	4651	3.04(20.7)	.853		
보호자 재가	1. 재가	3369	3.04(20.4)	.845	-.383	-
	2. 부재	1269	3.05(21.7)	.869		
	합계	4638	3.04(20.7)	.852		

\*\*\* : p<.001, \*\* : p<.01, \* : p<.05

- 중학생을 대상으로 9시 등교를 한 다음부터 학교 가는 것이 즐거워졌는지를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혹은 매우 나빠졌다, 5=매우 그렇다 혹은 매우 좋아졌다)로 설문한 결과 학년, 성적, 맞벌이 여부, 등교 시 보호자 재가 여부 등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표 4-57〉 학교 가는 것이 즐거워졌음(중학생)

	집단	N	M(약간 그렇다 이상 비율)	SD	F/T	사후검정
학년	1. 1학년	1563	3.20(31.2)	.953	2.641	-
	2. 2학년	1571	3.12(27.5)	.937		
	3. 3학년	1526	3.16(27.6)	.915		
	합계	4660	3.16(28.8)	.936		
성적	1. 하위권	1157	3.17(31.2)	.942	1.454	-
	2. 중위권	2132	3.18(27.5)	.912		
	3. 상위권	1329	3.12(27.6)	.964		
	합계	4618	3.16(28.8)	.935		
맞벌이여부	1. 맞벌이	2921	3.16(28.4)	.925	-.127	-
	2. 외벌이	1727	3.16(29.4)	.952		
	합계	4648	3.16(28.8)	.935		
보호자 재가	1. 재가	3366	3.16(28.8)	.931	.410	-
	2. 부재	1270	3.15(28.8)	.942		
	합계	4636	3.16(28.8)	.934		

\*\*\* : p<.001, \*\* : p<.01, \* : p<.05

- 중학생을 대상으로 9시 등교를 한 다음부터 마음에 여유가 생겼는지를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혹은 매우 나빠졌다, 5=매우 그렇다 혹은 매우 좋아졌다)로 설문한 결과 학년, 성적, 맞벌이 여부, 등교 시 보호자 재가 여부 등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표 4-58〉 마음에 여유가 생겼음(중학생)

	집단	N	M(약간 그렇다 이상 비율)	SD	F/T	사후검정
학년	1. 1학년	1564	3.48(48.5)	1.061	1.118	-
	2. 2학년	1574	3.45(47.0)	1.064		
	3. 3학년	1526	3.51(49.1)	1.025		
	합계	4664	3.48(48.2)	1.051		
성적	1. 하위권	1160	3.47(48.5)	1.015	.874	-
	2. 중위권	2135	3.50(47.0)	1.024		
	3. 상위권	1328	3.46(49.1)	1.122		
	합계	4623	3.48(48.2)	1.051		
맞벌이여부	1. 맞벌이	2921	3.48(48.2)	1.042	.352	-
	2. 외벌이	1732	3.47(48.3)	1.063		
	합계	4653	3.48(48.2)	1.050		
보호자 재가	1. 재가	3371	3.48(48.2)	1.045	.242	-
	2. 부재	1269	3.48(48.4)	1.057		
	합계	4640	3.48(48.2)	1.048		

\*\*\* : p&lt;.001, \*\* : p&lt;.01, \* : p&lt;.05

## 3) 고등학생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9시 등교를 한 다음부터 수업분위기가 더 활기차졌는지를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혹은 매우 나빠졌다, 5=매우 그렇다 혹은 매우 좋아졌다)로 설문한 결과 1학년과 2학년이 3학년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였음.
- 성적, 맞벌이 여부, 등교 시 보호자 재가 여부 등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표 4-59〉 수업분위기가 활기차졌음(고등학생)

	집단	N	M(약간 그렇다 이상 비율)	SD	F/T	사후검정
학년	1. 1학년	1747	3.19(29.8)	.820	8.594***	1-3*** 2-3*
	2. 2학년	1799	3.15(28.5)	.816		
	3. 3학년	1152	3.06(24.4)	.886		
	합계	4698	3.15(27.9)	.836		
성적	1. 하위권	1296	3.15(27.0)	.829	.055	-
	2. 중위권	2498	3.15(27.9)	.804		
	3. 상위권	873	3.14(29.8)	.931		
	합계	4667	3.15(28.0)	.836		
맞벌이여부	1. 맞벌이	3092	3.15(28.5)	.845	.879	-
	2. 외벌이	1592	3.13(27.0)	.817		
	합계	4684	3.15(28.0)	.836		
보호자 재가	1. 재가	3446	3.17(28.7)	.813	2.634**	-
	2. 부재	1229	3.09(26.1)	.894		
	합계	4675	3.15(28.0)	.835		

\*\*\* : p&lt;.001, \*\* : p&lt;.01, \* : p&lt;.05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9시 등교를 한 다음부터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는지를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혹은 매우 나빠졌다, 5=매우 그렇다 혹은 매우 좋아졌다)로 설문한 결과 1학년이 3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였음.
- 성적, 맞벌이 여부, 등교 시 보호자 재가 여부 등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표 4-60〉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함(고등학생)

	집단	N	M(약간 그렇다 이상 비율)	SD	F/T	사후검정
학년	1. 1학년	1746	3.12(25.5)	.845	6.135**	1-3**
	2. 2학년	1798	3.08(22.7)	.812		
	3. 3학년	1152	3.00(21.1)	.892		
	합계	4696	3.07(23.4)	.845		
성적	1. 하위권	1294	3.08(22.0)	.816	.016	-
	2. 중위권	2499	3.07(23.6)	.825		
	3. 상위권	872	3.07(24.9)	.939		
	합계	2665	3.08(23.4)	.845		
맞벌이여부	1. 맞벌이	3091	3.08(23.7)	.845	.619	-
	2. 외벌이	1591	3.06(22.7)	.844		
	합계	4682	3.07(23.4)	.845		
보호자 재가	1. 재가	3446	3.09(23.1)	.829	1.201	-
	2. 부재	1227	3.05(24.4)	.884		
	합계	4673	3.08(23.4)	.844		

\*\*\* :  $p < .001$ , \*\* :  $p < .01$ , \* :  $p < .05$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9시 등교를 한 다음부터 선생님과의 상담 기회가 많아졌는지를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혹은 매우 나빠졌다, 5=매우 그렇다 혹은 매우 좋아졌다)로 설문한 결과 학년, 성적, 맞벌이 여부, 등교 시 보호자 재가 여부 등에 따라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표 4-61〉 선생님과의 상담기회가 많아졌음(고등학생)

	집단	N	M(약간 그렇다 이상 비율)	SD	F/T	사후검정
학년	1. 1학년	1749	2.93(15.4)	.830	1.065	-
	2. 2학년	1797	2.89(14.1)	.822		
	3. 3학년	1152	2.89(14.6)	.889		
	합계	4698	2.91(14.7)	.842		

	집단	N	M(약간 그렇다 이상 비율)	SD	F/T	사후검정
성적	1. 하위권	1295	3.09(15.7)	.828	.993	-
	2. 중위권	2499	3.10(13.6)	.839		
	3. 상위권	871	3.08(16.5)	.964		
	합계	4665	3.10(14.7)	.860		
맞벌이여부	1. 맞벌이	3091	2.92(15.0)	.842	1.077	-
	2. 외벌이	1593	2.89(14.1)	.838		
	합계	4684	2.91(14.7)	.841		
보호자 재가	1. 재가	3448	2.91(14.6)	.826	.453	-
	2. 부재	1227	2.90(15.1)	.882		
	합계	4675	2.91(14.7)	.841		

\*\*\* :  $p < .001$ , \*\* :  $p < .01$ , \* :  $p < .05$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9시 등교를 한 다음부터 학교 가는 것이 즐거워졌는지를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혹은 매우 나빠졌다, 5=매우 그렇다 혹은 매우 좋아졌다)로 설문한 결과 중위권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하위권 성적을 가진 학생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였음.
- 학년, 맞벌이 여부, 등교 시 보호자 재가 여부 등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표 4-62〉 학교 가는 것이 즐거워졌음(고등학생)

	집단	N	M(약간 그렇다 이상 비율)	SD	F/T	사후검정
학년	1. 1학년	1749	3.09(27.5)	.954	1.598	-
	2. 2학년	1795	3.04(25.3)	.937		
	3. 3학년	1150	3.04(26.7)	1.019		
	합계	4694	3.06(26.5)	.964		
성적	1. 하위권	1294	2.99(23.4)	.950	4.408*	1-2*
	2. 중위권	2498	3.08(27.1)	.942		
	3. 상위권	871	3.09(28.9)	1.035		
	합계	4663	3.06(26.4)	.963		
맞벌이여부	1. 맞벌이	3089	3.06(26.7)	.963	.528	-
	2. 외벌이	1591	3.05(26.1)	.966		
	합계	4680	3.06(26.5)	.964		
보호자 재가	1. 재가	3445	3.08(26.9)	.948	2.410*	-
	2. 부재	1226	3.00(25.4)	1.006		
	합계	4671	3.06(26.5)	.964		

\*\*\* :  $p < .001$ , \*\* :  $p < .01$ , \* :  $p < .05$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9시 등교를 한 다음부터 마음에 여유가 생겼는지를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혹은 매우 나빠졌다, 5=매우 그렇다 혹은 매우 좋아졌다)로 설문한 결과 1학년과 2학년이 3학년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였음.
- 성적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어 중위권과 상위권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하위권 성적을 가진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였음.
- 맞벌이 여부, 등교 시 보호자 재가 여부 등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표 4-63〉 마음에 여유가 생겼음(고등학생)

	집단	N	M(약간 그렇다 이상 비율)	SD	F/T	사후검정
학년	1. 1학년	1749	3.46(50.5)	1.092	4.620*	1-3* 2-3*
	2. 2학년	1798	3.46(51.4)	1.088		
	3. 3학년	1151	3.35(43.3)	1.121		
	합계	4698	3.43(49.1)	1.099		
성적	1. 하위권	1295	3.32(42.0)	1.074	9.534***	1-2*** 1-3**
	2. 중위권	2499	3.48(51.9)	1.071		
	3. 상위권	873	3.47(51.7)	1.197		
	합계	4667	3.43(49.1)	1.099		
맞벌이여부	1. 맞벌이	3092	3.43(49.1)	1.205	.074	-
	2. 외벌이	1592	3.43(49.3)	1.085		
	합계	4684	3.43(49.1)	1.098		
보호자 재가	1. 재가	3447	3.46(50.6)	1.085	3.012**	-
	2. 부재	1228	3.36(45.4)	1.126		
	합계	4675	3.44(49.2)	1.0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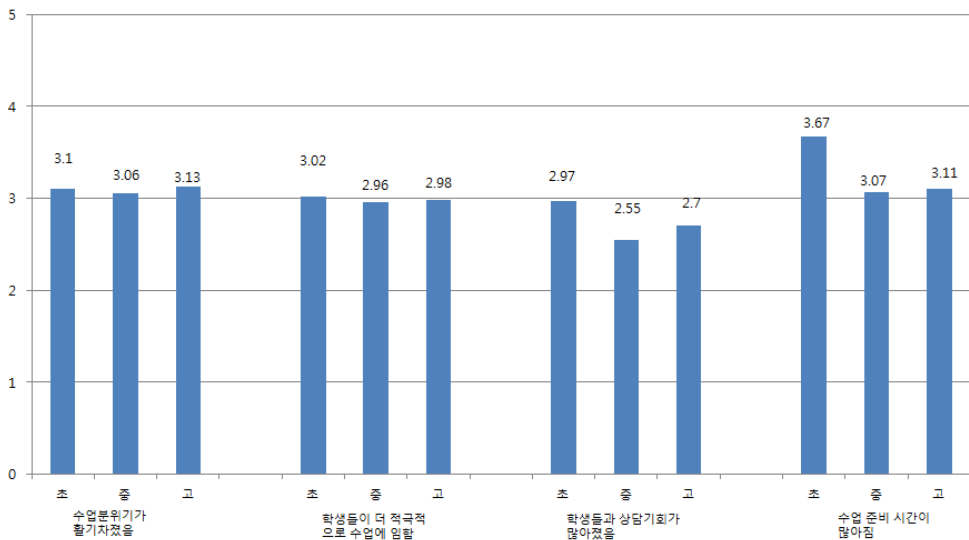
\*\*\* :  $p < .001$ , \*\* :  $p < .01$ , \* :  $p < .05$

## 2. 교사

- 교사들을 대상으로 9시 등교로 인해 수업분위기나 학교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학교급별로 살펴보았음.
- 9시 등교를 한 다음부터 수업분위기가 더 활기차졌는지,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는지 등을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혹은 매우 나빠졌다, 5=매우 그렇다 혹은 매우 좋아졌다)로 설문한 결과 학교급을 막론하고 학생들과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는 항목을 제외한 항목에서 3.0 이상 혹은 3.0에 근접한

값이 나타났음.

- 수업분위기가 활기차졌는지와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는지에 대해서는 학교급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학생들과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는 것과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증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급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 초등학교 교사들의 경우 학생들과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증가했다는 것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3.0 이상의 값이 나타난 가운데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에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값이 나타났음.
- 중학교 교사들도 학생들과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증가했다는 것을 제외한 항목에서 3.0 정도의 값을 보인 가운데 수업을 준비할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과 수업분위기가 활기차졌다는 것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음. 학생들과 상담할 기회가 증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값을 보였음.
- 고등학교 교사도 학생들과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증가했다는 것을 제외한 항목에서 3.0 정도의 값을 보였으며, 수업을 준비할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과 수업분위기가 활기차졌다는 것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음.



(그림 4-2) 수업 분위기 및 학교에 대한 태도의 변화(교사, 학교급별)

## 제5장

# 요약 및 정책 제언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 제언



## 제5장

# 요약 및 정책 제언

### 제1절 요약

-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른 등교 시간으로 인한 만성적인 수면 부족과 잦은 아침 결식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실제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2009년에 7.4시간이던 중학생의 수면 시간이 2013년에는 7.2시간으로 줄었으며, 2009년에 6.1시간이었던 고등학생의 수면시간도 2013년에는 5.6시간으로 줄었음(김영지 외, 2013). 미국 국립수면재단에서 제시한 14~17세의 권고 수면시간이 8~10시간임을 감안할 때,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상당수가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임. 등교 전 아침식사를 하는지와 관련해서도 초등학생의 17.2%, 중학생의 25.2%, 일반/특목/자율고 재학생의 27.7%, 특성화고 재학생의 42.9%가 거의 하지 않는 편이거나 보통 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하였음(김영지 외, 2013).
- 서구에서는 수면 부족이 학생들의 신체·정신 건강과 인지적 성취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가 다수 제출되었음. 나아가 청소년기에는 신체 리듬의 변화에 따라 수면 각성 사이클이 2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밤 12시가 넘을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른 등교 시간을 준수하지 못해 권위에 도전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학생으로 낙인 찍히기 쉬운데, 이들의 행위는 의지로 극복할 수 없는 생물학적인 것이어서 등교 시간 지연 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Mindell and Owens, 2003). 청소년들의 수면 사이클을 고려할 때 청소년들의 뇌가 충분히 활성화되기 전에 등교하는 것은 성인들이 새벽 3시나 4시에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는 것임(Mindell and Owen, 2003).
- 이에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나 노스캐롤라이나 주, 미네소타 주를 비롯한 일부 주의 학교들과 영국이나 캐나다, 이스라엘, 뉴질랜드, 덴마크 등의 일부 학교에서도 학생

- 들의 등교 시간을 늦추는 정책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신체·정신 건강, 인지적 성취가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제출되었음.
- 제3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으로 당선된 이재정 교육감은 교육감직인수위원회를 통해 학생과 현장의 요구를 수렴한 결과 9시 등교를 청원하는 학생들의 요구가 분출하여 총 1,507건의 요구 중 713건이 9시 등교를 청원하는 것이었음. 이에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2014년 9월부터 각급 학교에 9시 등교를 추진하도록 권고한 결과 2014년 10월 31일 현재 초등학교의 99.7%, 중학교의 98.8%, 고등학교의 81.6%가 9시 등교를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일각에서는 맞벌이 가정의 부담 증가 및 학력 저하의 가능성 등을 이유로 9시 등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경기도교육청에는 현장 방문을 통해 다양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는 축적되지 않은 상황임.
  - 이에 이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9시 등교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자 했음. 특히 이 연구에서는 9시 등교가 목표로 했던 학교생활의 변화와 가정생활의 변화를 모두 검증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했음.

## 1.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의 변화

-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설문한 결과 초등학생의 79.2%, 중학생의 72.6%, 고등학생의 64.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9시 등교 정책이 발표되었을 때와 현재 모두 찬성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49.0%인 반면 두 시점에서 모두 반대였다고 응답한 학생은 18.3%에 그쳤으며, 처음에는 반대였다가 현재는 찬성 입장으로 변화한 학생은 22.6%인 반면 처음에는 찬성이었다가 현재는 반대 입장으로 변화한 학생은 10.1%에 그쳤음. 특히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처음에는 반대였다가 현재는 찬성하는 학생의 비율이 각각 24.9%와 25.3%로 초등학생보다 높았음. 이러한 결과는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9시 등교 정책이 시행되면서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경험한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이 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함.

- 학부모를 대상으로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설문한 결과에서도 9시 등교 정책에 찬성하는 비율이 65.1%였음. 9시 등교 정책이 발표되었을 때와 현재 모두 찬성했다고 응답한 학부모가 43.2%인 반면 두 시점에서 모두 반대였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28.3%에 그쳤으며, 처음에는 반대였다가 현재는 찬성 입장으로 변화한 학부모가 21.9%인 반면 처음에는 찬성이었다가 현재는 반대 입장으로 변화한 학부모는 6.6%에 그쳤음.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부모들에게서도 9시 등교 정책이 시행되면서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경험한 학부모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함. 특히 자녀들의 성적이 높거나 맞벌이 가정 혹은 등교 시 보호자가 집에 없는 가정의 경우 9시 등교에 반대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들 가정에서도 처음에는 반대였다가 현재는 찬성으로 변화한 비율이 처음에는 찬성이었다가 현재는 반대로 변화한 경우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 이들이 갖는 불안이 9시 등교 시행 이후 일정 정도 해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교사를 대상으로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설문한 결과 설문조사 시점에서 9시 등교 정책에 찬성하는 비율이 71.0%였음. 9시 등교 정책이 발표되었을 때와 현재 모두 찬성했다고 응답한 교사가 35.12%인 반면 두 시점에서 모두 반대였다고 응답한 교사는 23.7%에 그쳤으며, 처음에는 반대였다가 현재는 찬성 입장으로 변화한 교사가 35.9%인 반면 처음에는 찬성이었다가 현재는 반대 입장으로 변화한 교사는 5.3%에 그쳤음. 이러한 결과는 9시 등교 정책이 시행되면서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경험한 교사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함.

## 2. 수면시간의 변화

- 설문조사를 통해 9시 등교 이후 학생들의 총수면시간(일어나는 시간과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의 차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학교급에서 학생들의 총수면시간이 증가했음. 구체적으로 초등학생의 총수면시간이 9시 등교 이전에는 8.76시간(약 8시간 46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8.89시간(약 8시간 53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8.92시간(약 8시간

55분)으로 증가하여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약 7분 정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약 9분 정도 수면시간이 증가했음. 중학생의 수면시간은 9시 등교 이전에는 7.59시간(약 7시간 35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7.87시간(약 7시간 52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7.82시간(약 7시간 49분)으로 9시 등교 이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약 17분 정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약 14분 정도 수면시간이 증가했음. 고등학생의 수면시간은 9시 등교 이전에는 6.27시간(약 6시간 16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6.79시간(약 6시간 47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6.31시간(약 6시간 19분)으로 9시 등교 이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약 31분 정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약 3분 정도 수면시간이 증가했음.

### 3. 학교생활의 변화

- 9시 등교는 학생들의 지각을 줄이는 데도 기여했음. 초등학생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지각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6.2%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67.6%로 증가했음. 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지각한다고 응답한 초등학생들이 9시 등교 이전에는 9.9%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7.7%로 감소했음. 중학생의 경우에도 9시 등교 이전에는 지각을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57.8%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66.3%로 증가한 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지각한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9시 등교 이전에는 11.1%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7.4%로 감소했음. 고등학생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지각을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52.8%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63.3%로 증가했음. 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지각한다고 응답한 고등학생은 9시 등교 이전에는 14.2%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10.5%로 감소했음.
- 9시 등교는 오전 수업 중 졸거나 자는 학생을 줄이는 데도 기여했음. 구체적으로 9시 등교 이전에 오전 수업 중에 졸거나 잔 적이 없다고 응답한 초등학생이 75.4%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80.5%로 증가했음. 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졸거나 잔다고 응답한 초등학생들이 9시 등교 이전에는 6.2%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4.4%로 감소했음. 중학생의 경우에도 9시 등교 이전에는 오전 수업 중 즐기거나 잔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30.2%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37.1%로 증가했음. 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즐기거나 잔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9시 등교 이전에는 37%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26.8%로 감소했음.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15.2%의 학생들이 9시 등교 이전에 오전 수업 중 즐기거나 잔 적이 없다고 응답했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22.4%로 증가했음. 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즐기거나 잔다고 응답한 고등학생은 9시 등교 이전에는 60.8%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45.9%로 감소했음.

- 9시 등교 이후 숙제나 준비물을 못 챙기는 학생의 비율도 감소했음. 9시 등교 이전에 숙제나 준비물을 못 챙긴 적이 없다고 응답한 초등학생이 15.7%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25.3%로 증가했음. 반면 숙제나 준비물을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못 챙긴 초등학생들이 9시 등교 이전에는 16.9%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13.8%로 감소했음. 중학생의 경우에도 9시 등교 이전에는 숙제나 준비물을 못 챙긴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25.6%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34.2%로 증가했음. 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숙제나 준비물을 못 챙긴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9시 등교 이전에는 17.8%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12.4%로 감소했음.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36.5%의 학생들이 9시 등교 이전에 숙제나 준비물을 못 챙긴 적이 없다고 응답했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44.4%로 증가했음. 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숙제나 준비물을 못 챙긴다고 응답한 고등학생은 9시 등교 이전에는 16.9%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11.9%로 감소했음.

#### 4. 가정생활의 변화

- 9시 등교 이후 아침식사를 못 하는 학생들의 비율도 감소했음. 초등학생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일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10.5%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7%로 감소했음. 반면 매일 아침식사를 한다고 응답한 초등학생들의 비율이 9시 등교 이전에는 64%였으나 9시 등교 이후

- 에는 72.9%로 증가했음. 중학생의 경우에도 9시 등교 이전에는 일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18.5%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12.1%로 감소했음. 반면 매일 아침식사를 하는 비율이 9시 등교 이전에는 56.9%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65.1%로 증가했음. 고등학생의 경우 일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9시 등교 이전에는 26.3%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16.9%로 감소했음. 반면 매일 아침식사를 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9시 등교 이전에는 50.7%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58.5%로 증가했음.
- 9시 등교 이후 부모와의 대화시간도 증가했음. 초등학생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하루 동안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이 전혀 없거나 30분 이하인 학생의 비율이 38.8%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33.3%로 감소했음. 반면 1시간 이상 대화한다고 응답한 초등학생들의 비율이 9시 등교 이전에는 61.1%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66.7%로 증가했음. 중학생의 경우에도 9시 등교 이전에는 하루 동안 어머니와 30분 이하로 대화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44.1%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39.7%로 감소했음. 반면 1시간 이상 대화한다는 학생들은 9시 등교 이전에는 55.8%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60.3%로 증가했음. 고등학생의 경우 9시 등교 이전에는 하루 동안 어머니와 30분 이하로 대화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53.9%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48.8%로 감소했음. 반면 1시간 이상 대화한다는 학생들은 9시 등교 이전에는 46%였으나 9시 등교 이후에는 51.2%로 증가했음. 아버지와의 대화 시간도 어머니와의 대화 시간과 비슷한 양상으로 증가했음.
  - 9시 등교 이후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도 증가했음. 하루 동안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의 경우 초등학생은 9시 등교 이전에는 1.28시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1.39시간으로 증가했으며, 그 차이(약 6.6분)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음. 중학생의 경우에도 9시 등교 이전에 비해 9시 등교 이후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약 12분 증가했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음.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9시 등교 이전에 비해 9시 등교 이후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약 8.4분 증가했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음. 반면 일주일 동안 학습 관련 사교육에 투자한 시간의 경우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9시 등교 이전과 이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9시 등교 이전에 비해 9시 등교 이후 약 3.6분 정도 학습 관련 사교육에 시간을 덜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5. 건강상태, 수업분위기 및 학교에 대한 태도의 변화

- 9시 등교는 학생들의 신체·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음. 배고픔이나 속쓰림을 느낀 정도, 몸에 기운이 없다거나 아프다고 느끼는 정도를 통해 신체 건강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비교한 결과 초, 중, 고등학생 모두 9시 등교 이전에 비해 9시 등교 이후 신체 건강에 대한 인식이 유의하게 좋아졌음. 짜증이나 우울, 초조함 등을 느끼는 정도가 9시 등교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초, 중, 고등학생 모두 9시 등교 이후 유의하게 좋아졌음.
- 9시 등교는 수업분위기나 학교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음. 학생들을 대상으로 9시 등교를 한 다음부터 수업분위기가 더 활기차졌는지,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는지 등을 5점 척도로 설문한 결과 학교급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항목에서 3.0 이상의 값이 나타났음. 특히 초등학생이 중학교생이나 고등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이고 있었음. 초등학생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3.0 이상의 값이 나타난 가운데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3.81)와 학교 가는 것이 즐거워졌다(3.53), 수업분위기가 활기차졌다(3.53)는 인식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한편 선생님과 상담 기회가 많아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값이 나타났음. 중학생의 경우에도 모든 항목에서 3.0 이상의 값이 나타난 가운데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3.48)는 인식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여타의 항목에서는 3.0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값이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은 값이 나타났음.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선생님과 상담 기회가 많아졌다(2.91)는 항목을 제외한 여타의 항목에서 3.0 이상의 값이 나타났음. 특히 중학생과 마찬가지로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3.48)는 인식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학교급을 막론하고 학생들과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는 항목을 제외한 항목에서 3.0 이상 혹은 3.0에 근접한 값이 나타났음. 초등학교 교사들의 경우 학생들과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증가했다는 것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3.0 이상의 값이 나타난 가운데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에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값이 나타났음. 중학교 교사들도 학생들과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증가했다는 것을 제외한 항목에서 3.0

정도의 값을 보인 가운데 수업을 준비할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과 수업분위기가 활기차졌다는 것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음. 고등학교 교사도 학생들과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증가했다는 것을 제외한 항목에서 3.0 정도의 값을 보였으며, 수업을 준비할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과 수업분위기가 활기차졌다는 것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음.

## 제2절 정책 제언

- 전술한 바와 같이 9시 등교는 학생들의 수면권 보장을 보장하고 신체·정신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었음. 나아가 9시 등교는 아침식사 횟수나 부모와의 대화시간,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 등을 증가시키고 있었으며, 수업 분위기를 활기차게 만들고 교사들의 수업 준비 시간을 증가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음.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9시 등교로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9시 등교가 정착되도록 해야 함.
-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들과의 면담에서는 9시 등교 이후 아침 프로그램의 변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확인할 수 있었음. 아침 프로그램은 맞벌이 가정이나 등교 시 보호자가 집에 없는 가정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나 변형된 0교시 혹은 반강제적 아침자습의 형태로 아침 프로그램을 시행하려는 학교도 일부 있었음. 이러한 시도는 일반고를 중심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입시에 대한 부담과 일반고가 처한 구조적 조건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시도가 급격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9시 등교 정책의 취지와 효과를 왜곡할 수 있음. 따라서 아침 프로그램은 맞벌이 가정 등과 같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에 한정되어 돌봄 기능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청 차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함.
- 교사와 학생의 상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9시 등교 이후 학교생활에서 학교 가는 것이 즐거워졌고, 수업분위기가 활기차게 변화했다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는 높게 나타난 반면 선생님과의 상담 기회가 많아졌다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

- 났음.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학교급을 막론하고 학생들과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는 항목은 여타의 항목에 비해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음. 교사 및 학생과의 면담에서는 9시 등교 이전과 같은 아침 조회 시간의 부재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었음. 따라서 1교시 시작은 9시 이후에 하고, 1교시 시작 전 10분-15분 정도를 담임교사와 학생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확보하는 방법 등을 구안할 필요가 있음. 같은 맥락에서 블록타임과 같은 방법으로 수업 시간을 조정하여 20분 이상의 쉬는 시간을 한 차례 정도 확보하거나 점심시간을 여유있게 확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교사와 학생의 상담 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초등학교의 경우 9시 등교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전술한 바와 같이 9시 등교는 초등학생보다는 수면 리듬의 변화가 수반되는 청소년기 학생에게 더 중요한 정책임. 실제로 수면 시간의 증가를 비롯한 9시 등교의 제반 성과도 초등학생에 비해 중고등학생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었음. 반면 9시 등교로 인한 맞벌이 가정의 부담 증가나 자녀 등교시 보호자가 없는 가정의 반발 등은 상대적으로 초등학교 학부모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침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력과 예산이 필요함. 따라서 초등학교의 경우는 학생들의 통학 거리 등을 고려하여 8시 30분 전후를 등교 시간으로 권장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아침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9시 등교로 확보한 수업의 활력을 수업 혁신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음. 전술한 바와 같이 9시 등교 이후 학생들의 수업 준비도나 참여도, 집중도가 향상되었으며, 교사들의 수업 준비 시간이 증가했음.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자동적으로 수업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임. 따라서 9시 등교 이후 변화된 수업 분위기를 학생 중심, 배움 중심 수업의 활성화로 승화시키기 위한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 분석 결과 9시 등교 이후 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국 국립수면재단에서 권고한 수면 시간과 비교할 경우 한국의 학생들은 여전히 수면 부족 상태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음. 특히 중고등학생의 수면 시간은 9시 등교 이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을 기준으로 해도 각각 7시간 52분, 6시간 47분에 머물고 있음. 따라서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수면 특징 질 좋은 수면의 필요성, 학교 시작 시간 지연 정책

도입의 성과와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마을 및 지역 단위로 등교 시간이나 출퇴근 시간 등과 관련된 공동의 협약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경기도교육청(2014a), 건강한 성장, 활기찬 학습을 위한 9시 등교 추진 계획, 미간행유인물.
- 경기도교육청(2014b), 건강한 성장, 활기찬 학습을 위한 9시 등교 추진 실태 조사 보고, 미간행유인물.
- 김영지·김경준·김지혜·이민희(201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Ⅲ』,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신홍범(2008), 『수면전문의가 들려주는 머리가 좋아지는 수면』, 북뱅크.
-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
- 임희진(2013), 『201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질병관리본부(2013), 『제9차(2013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 Andrade, M. M., Benedito-Silva, A. A., Demenice, E. E., Arnhold, J. P. and Menna-Barreto, L. M.(1993), Sleep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14(5), pp. 401-406.
- Borlase, B. J., Gander, P. H. and Gibson, R. H.(2013), Effects of School Start Times and Technology Use on Teenagers' Sleep: 1999-2008, *Sleep and Biological Rhythms*, 11(1), pp. 46-54.
- Cardinali, D. P.(2008), Chronoeducation: How the Biological Clock Influences the Learning Process, In Battro, A. M. and Fischer, K. W. and Lena, P(eds.), *The Educated Brain: Essays in Neuroeducation*, Cambridge Univ Press.
- Carskadon, A. R., Millman, M., Wolfson, R., Braverman, A., Adelman, P. K. and Young, T.(2014), School Start Times for Adolescents, *Pediatrics*, 134(3), 642-649.
- Carskadon, M. A., Harvey, K., Duke, P., Anders, T. F., Litt, I. F., and Dement, W. C.(1980), Pubertal Changes in Daytime Sleepiness, *Sleep*, 2, pp. 453-460.
- Carskadon, M. A., Vieira, C. and Acebo, C.(1993), Association Between Puberty and Delayed Phase Preference, *Sleep*, 16(3), pp. 258-262.
- Czeisler, C., Redline, S. and Hu, F.(2012), Fighting the Clock: How America's Sleep Deficit is Damaging Longterm Health, *sleep Medicine*, March 6.
- Edwards, F.(2011). Early to Rise: The Effect of Daily Start Times on Academic Performance, Working Paper,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Gradisar, M., Gardner, G. and Dohnt, H.(2010). Recent Worldwide Sleep Patterns and Problems During Adolescence: A Review and Meta-analysis of Age, Region, and Sleep, *Sleep Medicine*, 12(2), pp. 110-118.
- Hirshkowitz, M. et al.(2015), National Sleep Foundation's Sleep Time Duration Recommendations: Methodology and Results Summary, *Sleep Health*, Online Version, [http://www.sleephealthjournal.org/article/S2352-7218\(15\)00015-7/pdf](http://www.sleephealthjournal.org/article/S2352-7218(15)00015-7/pdf)에서 2015. 2. 5 인출.
- Hofman, W. F. and Steenhof, L.(1997), Sleep Characteristics of Dutch Adolescents Are Related to School Performance, *Sleep Wake Res. The Netherlands*, 8, 51-55.
- Jacob, B. A. and Rockoff, J. E.(2011), *Organizing Schools to Improve Student Achievement: Start Times, Grade Configurations, and Teacher Assignments*, Washington, DC: The Hamilton Project at the Brookings Institute.
- Kelley, P. and C. L. (2014). Later Education Start Times in Adolescence: Time for Change, *Student Health*, Retrieved August 12.
- Link, S. C. and Ancoli-Israel, S.(1995), Sleep and the Teenager, *Sleep Res.* 24, pp. 184.
- Lufi, D., Tzischinsky, O. and Hadar, S.(2011), Delaying School Starting Time by One Hour: Some Effects on Attention Levels in Adolescents, *Journal of Clinical Sleep Medicine*, 7(2), 137-143.
- Mindell J. A. and Owens J. A.(2003), *A Clinical Guide to Pediatric Sleep: Diagnosis and Management of Sleep Problems*, Philadelphia: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NIH(National Institutes of Health)(1997), *Problem Sleepiness in Your Patient*, NIH Publication.
- O'Malley, E. B. and O'Malley, M. B.(2011), School Start Time and Its Impact on Learning and Behavior. In Ivanenko, A.(ed.), *Sleep and Psychiatric Disorder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New York: Informa Healthcare.
- Owen, J. A., Belon, K., and Moss, P.(2010). Impact of Delaying School Start Time on Adolescent Sleep, Mood, and Behavior, *Archives of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64(7), pp. 608-614.
- Saper, C. B., Cano, G. and Scammell, T. E.(2005), Homeostatic, Circadian, and



- Emotional Regulation of Sleep, *The Journal of Comparative Neurology*, 493(1), pp. 92-98.
- Saxvig, I. W., Pallesen, S., Wilhelmsen-Langeland, A., Molde, H. and Bjorvatn, B.(2012),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Delayed Sleep Phase in High School Students, *Sleep Medicine*, 13(2), pp. 193-199.
- Short M. A., Gradisar, M., Lack, L. C., Wright, H. R., Dewald, M. S., Wolfson, A. R. and Carskadon, M. A.(2013),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Sleep Duration Between U.S. and Australian Adolescents: The Effect of School Start Time, Parent-Set Bedtimes, and Extracurricular Load, *Health Education & Behavior*, 40(3), pp. 323-330.
- Taylor, D. J., Jenni, O. G., Acebo, C. and Carskadon, M. A.(2005), Sleep Tendency During Extended Wakefulness: Insights into Adolescent Sleep Regulation and Behavior, *Journal of Sleep Research*, 14(3), pp. 239-244.
- Wahlstrom, K.(2002), Changing Times: Findings From the First Longitudinal Study of Later High School Start Times, *NASSP Bulletin*, 86(633), pp. 3-21.
- Wolfson, A. R. and Carskadon, M. A.(1998), Sleep Schedules and Daytime Functioning i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9(4), pp. 875-887.
- Wolfson, A. R., Spaulding, N. L., Dandrow, C. and Baroni, E. M.(2007), Middle School Start Times: The Importance of a Good Night's Sleep for Young Adolescents, *Behavior Sleep Medical*, 5(3), pp. 194-209.
- Wrzus, C. and Wagner, G. C.(2014), Feeling Good When Sleeping in Day-to-day Associations Between Sleep Duration and Affective Well-being Differ from Youth to Old Age, *Emotion*, 14(3), pp. 624-628.

〈언론기사 및 보도자료〉

- 서울신문(2014. 11. 4), “서울 9시 등교제 추진 파장, 인천도 뒤따라…전국으로 확산 움직임”
- 한국일보(2014. 11. 3), “서울 초중고도 내년 1학기부터 9시 등교 추진”
- Times Colonist(2013), New high school will cater to teens' interests, lifestyles. May 11.

The Gazette(2011), Grades improve if classes start later, study finds. Aug. 16.

Tbnewswatch(2012), Sleeping in. Sept. 4.

Yahoo! News(2013), Could a one-hour lie-in improve pupils' exam results? UK schools  
'could move class start times back to 10am. Mar. 18.

BBC News(2010), Lie in for teenagers has positive results. Mar. 22.

Thestar.com(2013), Toronto's late-start high school says absenteeism down, alertness up.  
May 15.

## 〈부록〉 설문지

### 9시 등교 정책의 교육적, 사회적 효과 분석을 위한 설문지 (교사용)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의뢰한 "9시 등교의 교육적, 사회적 효과 분석 연구"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9시 등교가 학생들의 삶과 가정생활, 학교문화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여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응답 내용은 숫자 혹은 기호로 표기되어 다른 설문지들과 함께 자료 분석 과정을 거치므로 **응답자의 개인 정보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설문은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뿐 어떠한 상업적 목적으로도 활용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솔직한 응답은 보다 좋은 경기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연구책임자 경기도교육연구원 백 병 부

※ 이번 조사에 대해 궁금한 것이나 의문이 있는 분들께서는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백병부 : 전화 031-8012-0930, e-mail bbgo11@hanmail.net

1. 다음은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1. 9시 등교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떻게 변화했나요?

- ① 처음 발표되었을 때도 반대했었고, 지금도 반대한다
- ② 처음 발표되었을 때는 반대했었는데, 지금은 찬성한다
- ③ 처음 발표되었을 때는 찬성했었는데, 지금은 반대한다
- ④ 처음 발표되었을 때도 찬성했고, 지금도 찬성한다

1-1. 1-1 번과 같이 응답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

2. 다음은 9시 등교를 둘러싼 여러 주장들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각각의 주장에 대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9시 등교로 학생들의 수면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9시 등교로 수업시간에 자거나 조는 학생들이 줄어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9시 등교로 아침을 못 먹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줄어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9시 등교로 부모와 자녀의 대화 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9시 등교로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가 변화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학교의 다른 일정도 여유 있게 바뀔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9시 등교로 사교육비가 늘어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9시 등교로 아침시간에 pc방 등에 가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9시 등교로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9시 등교로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경기도의 9시 등교 정책은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II. 9시 등교 정책이 실시되면서 재직 중인 학교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 표시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나빠졌다)	별로 그렇지 않다(약간 나빠졌다)	그저 그렇다 (변한 게 없다)	약간 그렇다 (약간 좋아졌다)	매우 그렇다 (매우 좋아졌다)
1) 9시 등교를 한 다음부터 수업분위기가 더 활기차졌다	①	②	③	④	⑤
2) 9시 등교를 한 다음부터 수업시간에 자거나 조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9시 등교를 한 다음부터 학생들이 더 집중해서 수업을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4) 9시 등교를 한 다음부터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5) 9시 등교를 한 다음부터 학생들과 상담을 하거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6) 9시 등교를 한 다음부터 선생님들이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III. 선생님이 재직 중인 학교에서는 1교시 수업 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이나 프로그램(독서, 아침자습, 스포츠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었습니까? 실시하고 있다면 얼마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9시 등교 실시 이전	① 실시하지 않았다	② 전혀 효과가 없었다	③ 별로 효과가 없었다	④ 그저 그렇다	⑤ 약간 효과가 있었다	⑥ 매우 효과가 있었다
2) 9시 등교 실시 이후	① 실시하지 않는다	② 전혀 효과가 없다	③ 별로 효과가 없다	④ 그저 그렇다	⑤ 약간 효과가 있다	⑥ 매우 효과가 있다



### 9시 등교 정책의 교육적, 사회적 효과 분석을 위한 설문지 (학부모용)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의뢰한 "9시 등교의 교육적, 사회적 효과 분석 연구"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9시 등교가 학생들의 삶과 가정생활, 학교문화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여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응답 내용은 숫자 혹은 기호로 표기되어 다른 설문지들과 함께 자료 분석 과정을 거치므로 **응답자의 개인 정보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설문은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뿐 어떠한 상업적 목적으로도 활용되지 않습니다.

학부모님의 솔직한 응답은 보다 좋은 경기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연구책임자 경기도교육연구원 백 병 부

※ 이번 조사에 대해 궁금한 것이나 의문이 있는 분들에게서는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백병부 : 전화 031-8012-0930, e-mail bbgo11@hanmail.net

1. 다음은 9시 등교 이전과 이후에 설문지를 가져 온 자녀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1. 설문지를 가져 온 자녀의 잠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 등교 시간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9시 등교 실시 이전	9시 등교 실시 이후	
		아침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	아침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 (참여하는 학생만 응답)
1) 자녀가 잠드는 시간	( )시( )분	( )시( )분	( )시( )분
2) 자녀가 일어나는 시간	( )시( )분	( )시( )분	( )시( )분
3) 자녀가 집에서 학교로 출발하는 시간	( )시( )분	( )시( )분	( )시( )분
4) 자녀가 학교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	( )분	( )분	( )분

2. 9시 등교 이전과 이후 가정생활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9시 등교 이전	9시 등교 이후
1) 일주일 동안 집에서 아침식사를 몇 번 정도 했나요?	① 전혀 하지 않았다    ② 1-2일 ③ 3-4일                    ④ 매일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1-2일 ③ 3-4일                    ④ 매일
2)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은 하루에 얼마나 되나요?	① 전혀 하지 않았다    ② 30분 정도 ③ 1시간 정도            ④ 2시간 이상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30분 정도 ③ 1시간 정도            ④ 2시간 이상
3)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은 하루에 얼마나 되나요?	① 전혀 하지 않았다    ② 30분 정도 ③ 1시간 정도            ④ 2시간 이상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30분 정도 ③ 1시간 정도            ④ 2시간 이상

II. 다음은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학부모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1.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학부모님의 생각은 어떻게 변화했나요?

- ① 처음 발표되었을 때도 반대했었고, 지금도 반대한다
- ② 처음 발표되었을 때는 반대했었는데, 지금은 찬성한다
- ③ 처음 발표되었을 때는 찬성했었는데, 지금은 반대한다
- ④ 처음 발표되었을 때도 찬성했고, 지금도 찬성한다

2. II-1 번과 같이 응답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

3. 다음은 9시 등교를 둘러싼 여러 주장들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각각의 주장에 대해 학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9시 등교로 학생들의 수면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9시 등교로 수업시간에 자거나 조는 학생들이 줄어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9시 등교로 아침을 못 먹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줄어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9시 등교로 부모와 자녀의 대화 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9시 등교로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가 변화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학교의 다른 일정도 여유 있게 바뀔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9시 등교로 사교육비가 늘어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9시 등교로 아침시간에 pc방 등에 가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9시 등교로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9시 등교로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경기도의 9시 등교 정책은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III. 다음은 부모님의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설문지를 가져온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2. 설문지를 가져 온 자녀의 학년

- ① 1 학년      ② 2 학년      ③ 3 학년      ④ 4 학년      ⑤ 5 학년      ⑥ 6 학년

3. 설문지를 가져온 자녀의 현재 성적은 대략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최하위권      ② 하위권      ③ 중위권      ④ 상위권      ⑤ 최상위권

4. 설문지를 가져 온 자녀가 평소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데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 걸어서 감      ② 자전거      ③ 버스      ④ 부모님이 태워다 줌      ⑤ 기타

5. 부모님은 모두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 ① 예(맞벌이)      ② 아니오

6.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설 때 부모님이나 보호자(할아버지, 할머니 등) 중 한 분이 집에 계십니까?

- ① 예(부모님이나 보호자 중 한 분은 집에 계시거나 나보다 늦게 출근하신다)  
② 아니오(부모님이나 보호자 모두 나보다 먼저 출근하신다)

7. 설문지를 가져온 자녀가 9시 이전에 학교에서 하는 아침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참여하고 있다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참여하지 않는다      ②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③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④ 그저 그렇다      ⑤ 약간 만족한다      ⑥ 매우 만족한다

감사합니다.



**9시 등교 정책의 교육적, 사회적 효과 분석을 위한 설문지 (학생용)**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부탁한 "9시 등교의 교육적, 사회적 효과 분석 연구"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9시 등교가 학생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여 보다 나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응답 내용은 숫자 혹은 기호로 표기되어 다른 설문지들과 함께 분석 과정을 거치므로 **개인 정보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설문은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연구책임자 경기도교육연구원 백 병 부

※ 이번 조사에 대해 궁금한 것이나 의문이 있는 분들께서는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백병부 : 전화 031-8012-0930, e-mail bbgo11@hanmail.net

1. 9시 등교 이전과 이후에 학생들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1. 잠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 등교 시간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9시 등교 실시 이전	9시 등교 실시 이후	
		아침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	아침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 (참여하는 학생만 응답)
1) 잠드는 시간	( )시( )분	( )시( )분	( )시( )분
2) 일어나는 시간	( )시( )분	( )시( )분	( )시( )분
3) 집에서 학교로 출발하는 시간	( )시( )분	( )시( )분	( )시( )분
4)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학교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	( )분	( )분	( )분

2. 1교시 수업 전에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독서, 아침자습, 스포츠 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었습니까? 참여하고 있었(었다)다면 얼마나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까?

1) 9시 등교 실시 이전	① 참여하지 않았다	② 전혀 효과적이지 않았다	③ 별로 효과적이지 않았다
	④ 그저 그랬다	⑤ 약간 효과적이었다	⑥ 매우 효과적이었다
2) 9시 등교 실시 이후	① 참여하지 않는다	②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③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④ 그저 그렇다	⑤ 약간 효과적이다	⑥ 매우 효과적이다

3. 9시 등교 실시 이전과 이후의 학교생활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9시 등교 실시 이전					9시 등교 실시 이후				
	그런 적이 없다	한 학기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그런 적이 없다	한 학기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1) 지각을 얼마나 하나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오전 수업 시간에 졸거나 잠을 잔 적이 있나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오후 수업 시간에 졸거나 잠을 잔 적이 있나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숙제를 못하거나 준비물을 못챙긴 적이 있나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9시 등교 이전과 이후 가정생활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9시 등교 이전	9시 등교 이후
1) 일주일 동안 집에서 아침식사를 몇 번 정도 했나요?	① 전혀 하지 않았다 ② 1-2일 ③ 3-4일 ④ 매일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1-2일 ③ 3-4일 ④ 매일
2)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은 하루에 얼마나 되나요?	① 전혀 하지 않았다 ② 30분 정도 ③ 1시간 정도 ④ 2시간 이상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30분 정도 ③ 1시간 정도 ④ 2시간 이상
3)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은 하루에 얼마나 되나요?	① 전혀 하지 않았다 ② 30분 정도 ③ 1시간 정도 ④ 2시간 이상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30분 정도 ③ 1시간 정도 ④ 2시간 이상

5. 9시 등교 이전과 이후 공부를 하거나 학원을 다니는 시간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전혀 안 한 경우에는 ①번, 조금이라도 했을 경우에는 ②번의 ( )에 시간을 써 주세요.

	9시 등교 이전	9시 등교 이후
1) 하루에 숙제 이외에 혼자서 공부 하는 시간	① 전혀 안 했다 ② 약 ( )시간 정도 했다	① 전혀 안 한다 ② 약 ( )시간 정도 한다
2) 일주일에 공부를 가르쳐 주는 학원 수업을 듣거나 과외를 하는 시간	① 전혀 안 했다 ② 약 ( )시간 정도 했다	① 전혀 안 한다 ② 약 ( )시간 정도 한다
3) 일주일에 예체능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하는 시간	① 전혀 안 했다 ② 약 ( )시간 정도 했다	① 전혀 안 한다 ② 약 ( )시간 정도 한다

6. 9시 등교 이전과 이후 여러분의 건강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9시 등교 이전					9시 등교 이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배고픔이나 속쓰림을 느낄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몸에 기운이 없고 아플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주변 사람에게 짜증이 날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의욕이 없고 우울할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초조하고 원가에 쫓기는 기분이 들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II. 9시 등교 정책이 실시되면서 재학 중인 학교나 학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나빠졌다)	별로 그렇지 않다(약간 나빠졌다)	그저 그렇다(변한 게 없다)	약간 그렇다(약간 좋아졌다)	매우 그렇다(매우 좋아졌다)
1) 9시 등교를 한 다음부터 수업분위기가 더 활기차졌다	①	②	③	④	⑤
2) 9시 등교를 한 다음부터 수업시간에 자거나 조는 친구들이 줄어들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9시 등교를 한 다음부터 친구들이 더 집중해서 수업을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4) 9시 등교를 한 다음부터 친구들이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5) 9시 등교를 한 다음부터 선생님과 상담을 하거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6) 9시 등교를 한 다음부터 학교 가는 것이 즐거워졌다	①	②	③	④	⑤
7) 9시 등교를 한 다음부터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	①	②	③	④	⑤

III. 다음은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1.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학생의 생각은 어떻게 변화했나요?

- ① 처음 발표되었을 때도 반대했었고, 지금도 반대한다
- ② 처음 발표되었을 때는 반대했었는데, 지금은 찬성한다
- ③ 처음 발표되었을 때는 찬성했었는데, 지금은 반대한다
- ④ 처음 발표되었을 때도 찬성했고, 지금도 찬성한다

2. III-1번과 같이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적어 주세요.

( )

IV. 다음은 여러분에 관한 기초 정보를 묻는 질문입니다.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1. 재학 중인 학교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2. 학년

- ① 1 학년    ② 2 학년    ③ 3 학년    ④ 4 학년    ⑤ 5 학년    ⑥ 6 학년

3. 현재 성적은 대략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 ① 최하위권    ② 하위권    ③ 중위권    ④ 상위권    ⑤ 최상위권

4. 평소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데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 걸어서 감    ② 자전거    ③ 버스    ④ 부모님이 태워다 줌    ⑤ 기타

5. 부모님은 모두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 ① 예(맞벌이)    ② 아니오

6.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설 때 부모님이나 보호자(할아버지, 할머니 등) 중 한 분이 집에 계십니까?

- ① 예(부모님이나 보호자 중 한 분은 집에 계시거나 나보다 늦게 출근하신다)  
② 아니오(부모님이나 보호자 모두 나보다 먼저 출근하신다)

7. 수능 시험에 응시한 고3 학생만 응답해 주세요. 9시 등교로 인해서 수능 시험 시작 시간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 ①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② 약간 어려움이 있었다    ③ 어려움이 매우 컸다

감사합니다.

## ● 9시 등교 효과 분석

- 발 행 일      2015년 02월 13일 인쇄  
                  2015년 02월 16일 발행
- 발 행 인      이 한 복
- 발행기관      (재) 경기도교육연구원  
                  (440-84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421  
                  누리집: <http://www.gie.re.kr>  
                  전 화: (031) 8012-0900  
                  전 송: (031) 8012-0980
- 등 록 일      2014년 4월 28일
- 등록번호      제374-2014-000034호
- I S B N      979-11-86090-25-1 93370
- 인 쇄      아이콘커뮤니케이션 (T. 031-245-5500)

## 9시 등교 효과 분석